

各司謄錄
각사등록 전라도편
역사기후 자료집

全羅監司啓錄

湖南啓錄

公文編案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

| | |
|------------------|---------------------------|
|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 1829년(순조 29) |
| | 1845년(헌종 11) |
| | 1847년(헌종 13) |
| | 1849년(헌종 15) |
| | 1854년(철종 5) |
| | 1876년(고종 13) |
| | 1885년(고종 22)~1889년(고종 26) |
|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 1878년(고종 15)~1880년(고종 17) |
| | 1885년(고종 22)~1887년(고종 24) |
| 公文編案 64책, | 1897년(건양 2) |

各司謄錄
각사등록 전라도편
역사기후 자료집

全羅監司啓錄

湖南啓錄

公文編案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목 차

해제 | 7

일러두기 | 19

| 일련번호 | 서기 / 왕력 | 등록(책) | 각사등록(책) | 쪽수 |
|-----------|---------------|------------|----------|-----|
| 0001-0007 | 1829년, 순조 29년 | 전라감사계록 1책 | 각사등록 18책 | 22 |
| 0008-0016 | 1845년, 헌종 11년 | 전라감사계록 2책 | 각사등록 18책 | 32 |
| 0017-0026 | 1847년, 헌종 13년 | 전라감사계록 3책 | 각사등록 18책 | 41 |
| 0027-0045 | 1849년, 헌종 15년 | 전라감사계록 4책 | 각사등록 18책 | 51 |
| 0046-0052 | 1849년, 철종 즉위년 | 전라감사계록 4책 | 각사등록 18책 | 73 |
| 0053-0089 | 1854년, 철종 5년 | 전라감사계록 5책 | 각사등록 18책 | 83 |
| 0090-0125 | 1876년, 고종 13년 | 전라감사계록 6책 | 각사등록 18책 | 127 |
| 0126-0143 | 1885년, 고종 22년 | 전라감사계록 7책 | 각사등록 18책 | 166 |
| 0144-0152 | 1886년, 고종 23년 | 전라감사계록 7책 | 각사등록 18책 | 187 |
| 0153-0170 | 1887년, 고종 24년 | 전라감사계록 7책 | 각사등록 18책 | 196 |
| 0171-0174 | 1888년, 고종 25년 | 전라감사계록 7책 | 각사등록 18책 | 214 |
| 0175-0184 | 1889년, 고종 26년 | 전라감사계록 7책 | 각사등록 18책 | 218 |
| 0185-0189 | 1878년, 고종 15년 | 호남계록 1책 | 각사등록 18책 | 228 |
| 0190-0223 | 1879년, 고종 16년 | 호남계록 3, 5책 | 각사등록 18책 | 234 |
| 0224-0241 | 1880년, 고종 17년 | 호남계록 6책 | 각사등록 18책 | 273 |
| 0242-0275 | 1885년, 고종 22년 | 호남계록 1책 | 각사등록 18책 | 294 |
| 0276-0294 | 1886년, 고종 23년 | 호남계록 3, 4책 | 각사등록 18책 | 334 |
| 0295-0297 | 1887년, 고종 24년 | 호남계록 4 책 | 각사등록 18책 | 355 |
| 0298-0302 | 1897년, 건양 2년 | 공문편안 64책 | | 358 |
| 0303 | 1897년, 광무 1년 | 공문편안 64책 | | 363 |

해제

1. 시간을 담은 문서의 질감 : 『각사등록』의 자료적 특징과 현황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중앙과 지방 간의 왕복 문서 및 등록류를 편집·정리하여 영인한 조선시대 기초 사료집으로서, 계록(啓錄), 등록(謄錄), 관첩(關牒),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다양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 연대는 임진왜란 이전 일부를 비롯해 1910년 대한제국기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기록은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각사등록』에 수록된 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있다. 198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101책의 영인본으로 간행하였고, 최근 국역화 및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하여 자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01책 중 1책에서 55책까지는 도별 행정문서들을 총집해 놓았는데,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지방관아의 보고문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지방사회의 실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각사등록』의 도별 자료는, 경기도(1~6책), 충청도(6~10책), 경상도(11~17책), 전라도(18~21책), 황해도(22~26책), 강원도(27~28책), 평안도(29~41책), 함경도(42~46책)의 순으로 영인되었으며, 이밖에도 48~55책까지는 경기도 보유편(47책), 충청도 보유편(48책), 경상도 보유편(49~52책), 전라도 보유편(53~54책), 황해도·강원도 보유편(55책) 등으로 1~46책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유편으로 성책되어 있다. 이중 1~46책에는 우택, 측우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기상 정보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한편 『공문편안(公文編案)』은 1894년 7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탁지부와 각 아문·부·도·군·읍 사이에 오간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총 9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공문편안』에는 갑오개혁 이후 제도개혁에 따른 중앙의 훈령과 지시 사항에 대해 지방에서의 처리 방안 및 문제점을 보고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20세기 초 유생들의 동학교도 비난, 수재와 흥년으로 인한 민정의 피해 상황, 이서배들의 중간 수탈, 역둔토의 조사 및 정부로의

귀속 조치 등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공문편안』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공문편안』에는 『각사등록』과 마찬가지로 측우, 우택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은 『공문편안』이 근대이행기 『각사등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록자료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각사등록』과 그것의 근대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공문편안』은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료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문서행정의 보고이자 지방사회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회사자료로서 연구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2. 『각사등록』에 담긴 측우 기록의 역사성

1) 하늘에서 온 데이터, 땅에서의 응답 : 조선 전기 농업정책과 측우 행정

전근대 동아시아국가들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국왕의 통치행위에 접목시켜 해석하는 유교적 자연관을 발전시켜왔다. 국왕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자로서 각종 의례행위를 통해 권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백성의 삶을 돌봐야 하는 통치자로서, 농업, 부세, 진휼정책을 추진하여 수신(修身)과 애민(愛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리학적 통치이념 하에 성립된 조선왕조는 특히 기상천문과 관련된 의례를 고도화하는 한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혹은 재이론(災異論)에 입각한 감선(減膳), 기우제 설행 등의 도덕적 통치 행위를 일상화해갔다. 또한 건국 초부터 유교적 농본국가를 표방하였기에, 농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별, 계절별 기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지질환경과 수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고려말부터 연작 상경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파종법, 시비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농서를 편찬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지질 특성상 수차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조선에서는 제언, 천방을 설치하는 선에서 관개시설의 보급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큰 제언을 조성하려면 농민들의 노동력을 일시에 동원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제언 주변의 농지만이 물대기에 용이할 뿐더러 천방의 경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의 논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의 농지는 강우량의 의존도가 높은 천수답(天水畓)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절기별, 지역별 강우량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각도 군현의 지방관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우택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보고하는 우택 정보는 ‘읍진(浥塵)’, ‘1서(鋤)’, ‘1려(犁)’, ‘천거창일(川渠漲溢)’, ‘강천범람(江川汎濫)’과 같이 지역에 소재한 농지와 하천을 기준으로 한 정보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화되고 표준화된 강우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441년(세종 23) 문종의 주도로 측우기를 제작하여 각도 군현에 보급함으로써 우택 정보를 보완하는 측우기의 측량값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1441년(세종 23) 4월 29일 『세종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에 근심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分寸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주조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分寸을 조사하였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측우기를 통한 강우 측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 이후 중앙에 보고되는 측우, 우택 기록은 한 해의 농형(農形)을 진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도 감사와 각읍 수령의 주요 행정 업무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우택, 측우 기록은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 생산과 재해 대응, 부세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측우기는 선초부터 중앙에 보고된 우택 정보를 계량화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강우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강우 데이터 및 농형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세입 산정과 진휼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의 수세 가능 면적이 감소하고 행정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측우 행정 또한 일시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2) 강우기록, 국가를 다시 세우다 : 양난 이후 측우 행정의 복원과 활용

17세기 양난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경신·을병 대기근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농업정책과 진휼 및 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전세 및 대동세의 수취 기반을 정비해나갔으며,

전국의 교통 요지에 진휼창을 설치해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어 1770년(영조 46)에는 측우기를 복원하여 각 도의 감영과 유수부에 설치하고, 강우량과 농업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조는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 위해 전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세종대 측우기가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위 46년 5월 1일, 세종조의 옛 제도를 모방해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과 경희궁에 각각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설치해 강우량의 척촌(尺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정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각도 감영과 유수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택과 농형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올리면서 측우기의 측량값도 함께 보고하게 되었다. 보고 내용에는 강우뿐 아니라,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홍수·지진·해일·충해 같은 자연재해와 피해 상황도 함께 보고되었다.

그런데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는 전국 군현에 모두 설치되지 않고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사료 상에 드러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배경 요인을 들자면, 18세기 이래 고도화된 도단위 행정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 비충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각읍에 풍흉의 정도와 재해 상황을 반영해 도별로 급재(給災)를 인정해주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 단위 행정 통제력을 강화해갔다.

우선 1713년(숙종 39) 이래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를 시행하고 전임 감사를 해당 도의 구관당상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감사·수령의 행정 체계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 조치가 주목된다. 각도 감사 외에 비변사에서 각도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구관당상을 임명하여 도의 현안을 현실감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65년(영조 41) 무렵에는 비록 313개 군현에 그치기는 했지만, 『여지도서』라는 전국 단위 관찬 지리지를 편찬함으로써 호구, 토지, 물산, 조세, 환곡, 군역 등의 부세 자원에 관한 도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충제 역시 이러한 지방통치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부세제도로서 각도 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를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한 것은 이러한 도 단위 부세행정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 기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770년(영조 46) 측우기 복원 이후 서울의 창덕궁과 경희궁, 내외 관상감은 물론 지방 감영과 각도 유수부에 측우기가 보급됨으로써 계량화된 강우량이 조정에 보고

되었으며, 각 군현에서 수집된 우택 정보 역시 각도 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됨으로써 조선후기 측우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존하는 『각사등록』의 우택, 측우 기록은 조선후기 측우 행정이 재정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문서행정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측우 행정 시스템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져 근대적 공문첩인 『공문편안』에까지 우택과 측우 정보가 실리게 되었다. 1770년(영조 46)에 복원된 조선왕조의 측우행정 시스템이 근대적인 기상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110여 년간 장기지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측우 행정의 성립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각사등록』 상에 우택, 측우 기사가 실리게 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기록을 총집, 번역한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3.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편찬 경위와 대상자료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당해 11월 17일에 걸쳐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 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의 결과물로 간행된 번역서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우택 관련 기록들을 검출하여 도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측우 기록을 검토하고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0년대 이후 기상학 분야에서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1차 수집, 정리하고 도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번역 상의 오류와 기사 누락이 많고, 자료 출처와 DB 작성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既번역 자료 및 통계 DB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8개월에 걸쳐 既번역된 『각사등록』의 우택·측우 기록을 검토해 번역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고, 일관된 번역 원칙에 따라 용례를 통일하여 번역한 후 교차 검토를 통해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원문 자료를 찾아내어 OCR작업으로 원문을 추가로 입력하고 새로 번역함으로써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총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총 15권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형태로 공식 출판하고 통계 DB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번역 총서는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 경상도편, 전라도편, 강원도편, 황해도편(1·2), 평안도편(1·2·3·4), 함경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대상 자료는 아래 <표 1>과 같다. 번역 총서는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해만 번역 대상 연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는 자료에 수록된 전체 작성 연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번역 대상 자료

| 지역 | 각사등록 등 | 서명 | 작성연대 |
|-----|--------------------|-------------|---|
| 경기도 | 각사등록 1책 | 기영장계등록 |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
| | 각사등록 4책 | 광주부유영장계등록 | 1861년(철종 12)~1869년(고종 6) |
| | 각사등록 5책 | 광영계록 | 1870년(고종 7)~1893년(고종 30) |
| | | 화영계록 |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 |
| | 각사등록 4책 | 개성부유영장계등록 |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92년(고종 29) |
| | 각사등록 4책 | 이등계록 | 1830년(순조 30)~순조 31년(1831), |
| | | 강화부유영장계등록 | 1847년(헌종 13), 1851년(철종 5), 1856년(철종 7)~1860년(철종 11), 1876년(철종 13)~1879년(고종 16) |
| |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82책 | 공문편안 | 1895년(고종30) |
| 충청도 | 승정원일기 탈초본 138~141책 | 승정원일기 | 1894년(고종 31)~1907년(순종 1) |
| | 각사등록 6~7책 | 충청감영계록·금영계록 | 1835년(헌종 1)~1837년(헌종 3), 1844년(헌종 10)~1845년(헌종 11), 1852년(철종 3)~1855년(철종 6), 1861년(철종 12), 1871년(고종 8)~1878년(고종 15), 1895(고종 32) |

| | | | |
|-----|------------------|----------|---|
| |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32책 | 공문편안 | 1896년(건양 1)~1900년(광무 4) |
| 경상도 | 각사등록 11책 | 경상감영계록 |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 |
| | 각사등록 17책 | 통제영계록 |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
| |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6책 | 공문편안 | 1897년(건양 2), 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
| 전라도 | 각사등록 18책 | 전라감사계록 | 1829년(순조 29), 1845년(헌종 11), 1847년(헌종 13), 1849년(헌종 15), 1854년(철종 5), 1876년(고종 13), 1885년(고종 22)~1889년(고종 26) |
| | | 호남계록 | 1878년(고종 15)~1880년(고종 17), 1885년(고종 22)~1887년(고종 24) |
| |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4책 | 공문편안 | 1897년(건양 2) |
| 강원도 | 각사등록 27책 | 강원감영계록 | 1831년(순조 31)~1832년(순조 32), 1856년(철종 7)~1857년(철종 8), 1860년(철종 11) |
| | | 관동계록 | 1892년(고종 29)~1893년(고종 30) |
| | | 춘천유영계첩록 |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
| 황해도 | 각사등록 22~24책 | 황해감영장계등록 |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3),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1848년(헌종 14), 1850년(철종 1), 1854년(철종 5)~1855년(철종 6), 1860년(철종 11), 1863년(철종 14), 1866년(고종 3), 1867년(고종 4),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1899년(광무 3) |
| | 공문편안 52책 | 공문편안 | 1897년(광무 원년)~1898년(광무 2) |
| 평안도 | 각사등록 29책 | 관서계록 | 1822년(순조 22) |
| | 각사등록 29~33책 | 평안감영계록 | 1830년(순조 30), 1831년(순조 31), 1833년(순조 33), 1834년(순조 34), 1835년(헌종 1), 1836년(헌종 2), 1838년(헌종 4), 1840년(헌종 6)~1843년(헌종 9), 1844년(헌종 10)~1843년(헌종 11), |

| | | | |
|-----|-------------|---------|--|
| | | | 1848년(헌종 14)~1850년(철종 1), 1852년(철종 3)~1853년(철종 4), 1855년(철종 6)~1858년(철종 9),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64년(고종 1)~1870년(고종 7), 1873년(고종 10)~1874년(고종 11), 1883년(고종 20)~1884년(고종 21) |
| 함경도 | 각사등록 42책 | 함경감영계록 | 1856년(철종 7), 1862년(철종 13)~1867년(고종 4) |
| | 각사등록 43책 | 함경북병영계록 | 1846년(헌종 12)~1847년(헌종 13), 1850년(철종 1), 1851년(철종 2), 1888년(고종 25)~1890년(고종 27) |
| | 공문편안 78·91책 | 공문편안 | 1897년(건양 2)~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
| | 원산해관관측소 | 원산해관관측소 | 1885년(고종 22)~1907년(융희 원년) |

다음 절에서는 위의 <표 1>에 실린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4.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은 『각사등록』 중에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관측된 기후 및 농형 자료를 총집하여 번역한 자료집이다. 『전라감사계록(全羅監司啓錄)』과 『호남계록(湖南啓錄)』, 『공문편안(公文編案)』에 기록된 측우기 및 우택 자료를 알기 쉽게 번역함으로써 당대 기후 변화와 농사 활동과의 관계는 물론 기후 패턴을 복원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편찬 체제와 내용 구성

『전라감사계록』은 1829년(순조 29)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전라감사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장계를 베껴 써 모아 놓은 자료로, 전라도 각 읍진에서 감영으로 보고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우택, 측우, 농형에 대한 보고는 1829년, 1845년, 1847년, 1849년, 1854년, 1876년, 1885년 1889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책에서는 주요 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농업 상태를 상세히 기술해 놓았으며, 매년 9~10월에는 한 해의 농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락(浦落), 복사(覆沙), 풍손(風損), 고손(枯損)과 같은 재해 결수를 명확히 기록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환곡 문제를 논의하며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호남계록』은 전라도 감영에서 작성한 계문들을 모아 베껴 써 놓은 자료로서, 19세기 후반 전라도의 문서 행정은 물론 도내 농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호남계록』은 1885년 2월부터 1887년 4월까지의 계문을 네 권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관찰사 윤영신(尹榮信, 1831~?)이 재직하던 시기에 작성된 이 기록은 우택과 농형, 월식 등과 같은 보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책은 작성 시기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계문의 발송 날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갑오개혁 이후에도 우택, 측우, 농형과 관련된 보고는 중앙에 계속 제출되었는데, 공문서들은 『공문편안』에 수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택, 측우 및 농형 보고 체계가 갑오개혁기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자료들을 통해 논농사에서는 올벼와 늦벼를, 밭농사에서는 기장, 조, 콩, 팥, 목화, 메밀, 밀과 같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벼는 논갈이, 이앙, 김매기 등이 제때 행해지고 있는지, 벼의 생육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기술해 놓았으며, 기장과 조는 이삭 패기 및 초기 생육 상태를, 콩과 팥은 섞어짓기와 뒷갈이 상태를 중심으로 서술해 놓았다. 목화는 솜 따기 등 수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보리와 밀은 이삭 패기와 익어가는 상태를 세밀히 관찰해 보고하였다.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 상황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소나기, 강풍, 우박 등에 의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지역별로 정리해 놓았으며, 특히 우박으로 인해 보리 등의 농작물이 심각한 손해를 입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자연재해가 농업 생산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 자료의 활용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은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전라도의 강우량과 농업

작황, 재난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지역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향후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기후사 연구에서 전라도 지역의 강우 패턴과 재해 발생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는 중간중간 누락된 해가 있기는 하지만, 1829년부터 1889년까지 60년간 우택, 측우, 농형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사가 남아 있고, 갑오개혁 이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1897년 『공문편안』 기사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당대 전라도 지역에 이전과 다른 위기 요인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진단하는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농업사 연구에서 기후와 농업 활동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 역시 타도와 마찬가지로 측우와 농형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논농사의 경우 절기별로 파종, 제초, 이앙, 추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밭농사의 경우에도 재배 작물의 종류와 농사 방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에 실린 측우-농형 기사의 분석을 통해 전라도 지역의 기후환경과 농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재정사 연구에서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구조와 부세행정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 측우기 제작이 공법제도의 시행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영조대 측우기 복원 역시 1760년(영조 36) 비총제가 법제화되고, 도별 부세행정체계가 고도화된 조치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기존의 재정사 연구가 토지의 생산량과 부세 수취와의 관계만을 다루었다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에 실린 우택, 측우 기사는 토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요인과 이를 행정 시스템 하에서 파악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우-농형-부세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시대 재해정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 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 사회의 대응 방식과 중앙 보고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해정책과 재난관리체계의 실상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에는 기상 정보 외에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충해, 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우제 선행 및 구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선후

기 지역별 재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 연구에서 환경사적 관점을 접목한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에 실린 도내 기후환경과 농업 정보, 재난 상황과 대책 등은 전근대 전라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전라도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 극복해갔으며 한편으로 근대적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 추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은 조선시대 기후환경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적할 수 있는 원천자료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전라도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일러두기

- 이 책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등록류 등을 영인 간행 한 『각사등록』에서 기상 자료를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저본으로 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원본 자료를 참조하였다. 『각사등록』은 음력 날짜로 되어있고, 1896년 양력사용 개정 이후 자료인 『공문편안』은 양력 날짜로 되어있다.
- 이 책은 각사등록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총 8도의 측우자료를 번역검증하여 역사기후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경상도편·전라도편·강원도편·황해도편(1·2)·평안도편(1·2·3·4)·함경도편으로 총 15권으로 엮었다.
-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과 보충역을 했다.
-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어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학계의 관례를 따랐다.
- 편집순서는 영인본의 순서를 따라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 전근대 기후 자료는 특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이 있어, 이를 그대로 살려 현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문 원문을 번역문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문 독자들이 원문의 독특한 표현을 느끼고 그 의미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번역문은 일반 독자가 전근대 기상 자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통용하는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었다.
- 번역문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독자가 글의 흐름을 유지하고, 현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해당 일자의 기사는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기상 현상과 거리가 먼 경우 생략하였다.
- 원문의 단순 오탈자의 경우 내용에 파악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교정, 교감하지 않았다.
- 문건별로 일련번호를 달았고, 영인본 면수를 표기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나 관용적 표현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 곡물 명칭과 도량형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 지침』을 따랐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전라도편

0001. 1829년(순조 29) 8월 10일(양력 9월 7일)

全羅監司啓錄 1책(1a~1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1책(1a~1b)

今月初四日之雨, 長水等四十七邑鎮所得多寡, 及臣營下初七日得雨八分. 緣由纔已馳達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四日之雨, 樂安·興陽, 得二鋤, 羅州, 得一鋤, 初七日之雨, 金溝, 得一鋤, 全州·南原·任實·高山·益山·礪山·咸悅等七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今方刈取, 移種早稻幾盡黃熟, 中晚稻次第發穗, 早黍粟幾皆向熟, 晚黍粟已盡發穗, 和種豆太方張結殼, 根耕豆太方始結殼, 木綿間間吐絮, 木麥漸次茁茂, 間或開花是如爲白遣, 臣營下今初八日辰時, 又雨, 斷續霑灑, 初九日, 間間滂沱, 初十日卯時, 乃止. 測雨器水深爲八寸六分, 而陰雲不解, 尚有餘意是白乎所, 以臣營下所得觀之, 此時冷雨, 若是過多, 汚下處田畚各穀, 不無沈墊之患, 而惜乾之右沿諸邑, 亦皆普洽是白乎喻, 得雨之報, 方此顛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達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장수 등 47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및 저의 감영에 초7일에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4일의 비로 낙안·홍양은 2서가 내렸고, 나주는 1서가 내렸고, 초7일의 비로 금구는 1서가 내렸고, 전주·남원·임실·고산·익산·여산·함열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옮겨 심은 올벼는 거의 다 누렇게 익었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섞어 짓는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고, 목화는 간간이 숨이 터져 나오고, 메밀은 점차 짝이 무성해지는데 간혹 꽃이 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8일 진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초9일에는 간간이 착착 쏟아지다가 초10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 6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아직도 더 올 조짐이 있습니다. 저의 감영에 내린 것으로 보자면, 이러한 시기에 찬비가 이처럼 지나치게 많으니 지대가 낮은 곳 논밭의 각종

곡식은 물에 잠길 근심이 없지 않지만, 가뭄을 걱정하던 우도의 여러 고을도 또한 다 두루 흡족할 것입니다. 비가 내렸다는 보고를 바야흐로 이렇게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2. 1829년(순조 29) 8월 13일(양력 9월 10일)

全羅監司啓錄 1책(2b~3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1책(1d~2a)

道內農形及臣營下, 今月初八日辰時始雨, 初十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八寸六分, 而陰雲不解, 尙有餘意緣由, 纔已馳達爲白有在果. 伊日午時, 仍爲開霽爲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九日十日之雨, 全州·金溝·泰仁·金堤·益山·礪山·萬頃·扶安·古阜·興德·井邑·高敞·茂長·靈光·咸平·務安·羅州·長城·潭陽·淳昌·高山·珍山·錦山·龍潭·鎭安·長水·任實·南原·雲峰·求禮·谷城·玉果·昌平·同福·和順·光州·南平·綾州·順天·光陽·長興·康津·興陽·法聖等四十四邑鎭, 川渠漲滿, 茂朱·咸悅·臨陂·樂安·靈巖等五邑, 得二犁, 龍安·沃溝·寶城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乎所, 右沿諸邑段, 許久惜乾之餘, 得此甘露, 高低周洽, 各穀焦萎者, 賴有蘇醒之喜, 民事萬萬多幸是白乎矣. 羅州·順天·南原·光陽等地, 或有風損爲害之處, 而外他各邑之污下沈墊處, 雖幸卽爲開霽是白乎乃, 亦不無間間潰決之患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達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10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8치 6푼인 것과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아직도 더울 조짐이 있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9일·10일의 비로 전주·금구·태인·김제·익산·여산·만경·부안·고부·홍덕·정읍·고창·무장·영광·함평·무안·나주·장성·담양·순창·고산·진산·금산·용담·진안·장수·임실·남원·운봉·구례·곡성·옥과·창평·동복·화순·광주·남평·능주·순천·광양·장흥·강진·홍양·법성 등 44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무주·함열·임피·낙안·영암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용안·옥구·보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우도 여러 고을의 경우, 오래 가뭄을 걱정한 끝에 이렇게 단비를 만나 높고 낮은 곳이 두루 흡족하고 시들었던 각종 곡식이 되살아나는 기쁨이 있는 덕분에 백성들의 사정은 매우 다행입니다. 나주·순천·남원·광양 등 지역은 더러 바람으로 손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그밖에 각 고을의 지대가 낮아 물에 잠긴 곳은 비록 즉시 개어서 다행이지만 또한 간간이 독이 터질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3. 1829년(순조 29) 8월 20일(양력 9월 17일)

全羅監司啓錄 1책(3b~4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1책(2c~2d)

今月初八日九日十日之雨, 全州等五十二邑鎮所得多寡, 纔已馳達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珍島, 川渠漲滿, 海南, 得一犁. 靈光·珍島·咸平·務安·茂長·興陽·樂安·長興·海南·康津·和順·求禮·寶城·古阜·扶安·法聖等十六邑鎮段, 初八九日之雨, 風勢交作, 發穗之稼, 開花之綿, 間多被靡撲落之災是如爲白遣. 農形段, 付種早稻幾盡刈取, 移種早稻間間刈取, 中稻今方垂穎, 晚稻幾皆發穗, 早黍粟間或刈取, 晚黍粟今始向熟, 和種豆太次第入實, 根耕·豆太方張結穀, 木綿間間摘取, 木麥或開花或結穀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十九日卯時, 始雨, 斷續霏灑, 二十日丑時, 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 而仍爲開霽是白乎所, 靈光等邑, 風損已爲可悶是白岔除良. 且以臣營下觀之, 此時冷雨, 稍過分數, 汚下處禾稼, 或有沈墊之慮, 傍川地田畚, 不無汰覆之患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列邑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達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9일·10일의 비로 전주 등 52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진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남은 1려가 내렸습니다. 영광·진도·함평·무안·무장·홍양·낙안·장흥·해남·강진·화순·구례·보성·고부·부안·범성 등 16개 고을과 군영의 경우, 초8·9일에 비가 내렸는데 바람이 어지러이 일어나 이삭이 괜 벼와 꽃이 핀 목화가 그사이에 쓰러지고 떨어지는 재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베어 거두고, 중벼는 지금 막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뻗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목화는 간간이 따서 거두고, 메밀은 더러 꽃이 피거나 더러 꼬투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주룩 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0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영광 등 고을은 바람에 의한 손상이 이미 걱정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의 감영으로 보자면 이러한 시기에 찬비가 조금 양이 지나쳐 지대가 낮은 곳의 벼는 더러 물에 잠길 염려가 있고 시냇가 지역의 논밭은 사태로 뒤덮일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4. 1829년(순조 29) 8월 27일(양력 9월 24일)

全羅監司啓錄 1책(5a~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1책(3b~3c)

連接各邑所報，則今十九日二十日之雨，全州·益山·金溝·高山·礪山·鎭安·萬頃·龍安·金堤·任實·茂長·珍山·龍潭·興德·潭陽·長城·古阜·扶安·咸平·雲峰等二十邑，川渠漲溢，沃溝·錦山·淳昌·咸悅·順天·靈光·茂朱等七邑，得二犁，臨陂·谷城·昌平·光州·泰仁·求禮·興陽·樂安·康津等九邑，得一犁，井邑·玉果·羅州·長水·海南·寶城·高敞·和順·綾州·南平·南原·長興等十二邑，得二鋤是如爲白乎所，川漲邑之此時冷雨，雖過分數，近日日候連爲調順，田畝各種可期善就是白如乎，臣既歷過山郡，轉向野沿，前路形止，隨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達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19일·20일의 비로 전주·익산·금구·고산·여산·진안·만경·용안·김제·임실·무장·진산·용담·홍덕·담양·장성·고부·부안·함평·운봉 등 2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옥구·금산·순창·함열·순천·영광·무주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임피·곡성·창평·광주·태인·구례·홍양·낙안·강진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읍·옥과·나주·장수·해남·보성·고창·화순·능주·남평·남원·장흥 등 12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시내가 불어난 고을은 이러한 시기에 찬비가 비록 양이 지나치지만 요즘 날씨가 연이어 순조로우니 논밭의 각종 곡식은 잘 여물기를 기대할 만합니다. 저는 이미 산골의 군을 거쳐 지나서 방향을 바꿔 들관과 바닷가로 향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경위는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5. 1829년(순조 29) 9월 6일(양력 10월 3일)

全羅監司啓錄 1책(8a~8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1책(5a~5b)

全州等七邑農形，臣巡到南原府，已爲馳達爲白有在果。田穀段，黍粟間間刈取，豆太今方入實，木綿方張摘取，而開絮稍勝於峽邑是白乎所。檢田等節，另加綜核之意，嚴飭於各該守宰處爲白乎脉，今初六日辰時始雨，或霏或灑，亥時至，所得爲一犁，而淒風連吹，雨意尙多，嗣後形止及前路農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達爲白臥乎事。

전주 등 7개 고을의 농사 상황은 제가 순시하며 남원부에 이르러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밭곡식의 경우, 기장·조는 간간이 베어 거두고, 콩·팥은 지금 막 알이 들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는데 터진 솜은 산골 고을보다 조금 낫습니다. 밭을 조사하는 등의 사항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조사하라는 뜻으로 각 해당 수령에게 엄중히 지시했습니다. 이번 초6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해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연이어 불고 아직도 비가 올 조짐이 많습니다. 이후 경위 및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6. 1829년(순조 29) 9월 15일(양력 10월 12일)

全羅監司啓錄 1책(8b~9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1책(5b~5d)

谷城等六邑農形及今月初六日之雨, 所得爲一犁緣由, 臣巡到寶城郡, 已爲馳達爲白有在果. 自同郡歷長興·康津·海南·靈巖·羅州·南平·和順, 方到光州牧是白如乎. 長興·康津兩邑段, 風後之白乾, 川沙之潰覆, 間間有之是白在如中, 長興優於康津是白遣, 海南·靈巖兩邑段, 汚下灌溉之畝, 雖爲善熟, 高燥被旱之處, 穗粒稀疎. 且風損爲害, 較他甚焉. 以歷路所見言之, 海南則災實相錯, 靈巖則災少實多是白遣. 羅州段, 幅員廣大, 原野各穀, 無不均登, 而至於濱海處, 旱損風災, 與沿邑諸島之災損, 係是通患是白遣. 南平·和順·光州等三邑段, 土品膏沃, 水根且裕, 到底黃熟, 一望穰穰, 雖有如干枯損, 不足以災狀論是白遣. 沿路迂僻, 臣行未到處段, 發遣徧裨, 使之摘奸是白乎則, 珍島段, 田多畝少, 地亦瘠薄, 惱旱偏酷, 受風最甚, 僅爲發穗者, 直立不垂, 空殼居多, 未及發穗者, 尙帶青色, 已判全棄, 統論一境, 食實無幾. 且以田種言之, 豆太木綿, 萎黃零殘, 俱爲失稔是白遣. 海南之黃一等五面, 右水營所管及靈巖之松旨一面段, 田畝災損, 與珍島無異是白乎旣. 連接各邑所報, 則初六日之雨, 山沿諸邑, 或爲川漲, 或得犁鋤是如爲白乎所. 此時冷雨, 有害無益, 而旋即開霽, 誠爲多幸, 前路農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達爲白臥乎事.

곡성 등 6개 고을의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6일의 비로 1려가 내린 연유는 제가 순시하며 보성군에 이르러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보성군에서 장흥·강진·해남·영암·나주·남평·화순을 거쳐 막 광주목에 도착했습니다. 장흥·강진 2개 고을의 경우, 바람이 분 뒤 하얗게 마르고 시내가 터져 모래가 뒤덮은 곳이 간간이 있는 가운데 장흥이 강진보다 심합니다. 해남·영암 2개 고을의 경우, 지대가 낮고 물을 대는 논은 비록 잘 익지만 높고 메마른 곳은 이삭 알갱이가 드뭅니다. 또 바람의 피해는 다른 곳보다 심합니다. 지나는 길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해남은 재해와 결실이 서로 섞였고, 영암은 재해는 적고 결실은 많습니다. 나주는 면적은 넓고 크며 별관의 각종 곡식은 모두 잘 익지 않은 것이 없고 바닷가의 경우 가뭄과 바람의 피해는 지나는 고을의 여러 섬의 재해와 더불어 두루 근심입니다. 남평·화순·광주 등 3개 고을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의 근원도 넉넉한데 이르는

곳마다 누렇게 익어서 얼핏 봐도 곡식이 풍요로우니 비록 어지간히 말라버린 것이 있더라도 재해로 상황을 따지기에는 부족합니다. 지나는 길에서 치우친 곳이라 제가 이르지 못하는 곳은 비서를 파견하여 캐보도록 하였습니다. 진도는 발이 많고 논이 적은데 토지도 척박한데 심한 가뭄이 더욱 혹독하고 바람의 피해가 가장 심하여 겨우 이삭이 팬 것은 곳곳이 서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빈 꼬투리가 대부분이며, 이삭이 패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 푸른색을 띠고 있어 이미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판가름 났으니 한 지역을 통틀어 따지자면 먹을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또 발곡식으로 말하자면 콩·팥과 목화는 누렇게 시들고 쇠약하여 모두 여물지 못합니다. 해남의 황일 등 5개 면과 우수영 관할 및 영암의 송지 1개 면은 논밭의 손해가 진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6일의 비로 산과 강가의 여러 고을 중 더러는 시내가 불어나고 더러는 1려·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때의 찬비는 해로울 뿐 이득은 없는데 곧바로 개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7. 1829년(순조 29) 9월 20일(양력 10월 17일)

全羅監司啓錄 1책(9b~10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1책(5d~6a)

長興等八邑農形, 臣巡到光州牧, 已爲馳達爲白有在果. 自同州, 歷長城·井邑·泰仁·金溝, 今月十九日, 還營是白如乎, 所經原野, 次第看審是白乎則, 長城·井邑段, 毋論高低, 到底登熟, 而長城則間或有沙覆之處是白遣, 泰仁·金溝段, 汚下膏沃之畝, 無不善就, 而高燥被旱之地, 穗穎稀疎是白遣, 全州段, 西南面農形, 與金溝等邑, 無甚異同是白遣, 田種段, 豆太木綿, 雖未大登, 均是免歉, 而此疆彼界, 別無優劣之可論是白乎旆, 雲峯·長水·任實·南原·鎭安·龍潭·錦山·寶城等八邑, 今月十一日<十>二日之夜, 霜降是如. 報來爲白有如乎, 檢田等節, 十分精核, 毋或冒濫之意, 連飭列邑, 待概狀齊報, 更加商度, 分等執摠,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達爲白臥乎事.

장흥 등 8개 고을의 농사 상황은 제가 순시하며 광주목에 이르러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장성·정읍·태인·금구를 거쳐 이번 달 19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별관을 지나며 차례로 살펴보았더니 장성·정읍은 높고 낮은 곳을 막론하고 이르는 곳마다 익어가고, 장성은 간혹 사태로 덮인 곳이 있습니다. 태인·금구의 경우, 낮은 지대의 비옥한 논은 잘 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높고 메마르거나 가문 지역은 이삭이 드물었습니다. 전주의 경우, 서·남면의 농사 상황은 금구 등의 고을과 차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발곡식은 콩·팥과 목화는 비록 크게 잘 되지는 못했지만 모두 흉년을 면했고,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 우열을 따질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운봉·장수·임실·남원·진안·용담·금산·보성 등 8개 고을은 이번 달 11일·1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토지 조사 등의 사항은 충분히 정밀하게 조사하되 혹시라도 함부로 못되게 굴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 고을에 연이어 지시했습니다. 대략 보고를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다시 헤아려 풍흉 등급을 나누고 총수를 합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8. 1845년(헌종 11) 7월 22일(양력 8월 24일)

全羅監司啓錄 2책(7a~7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91d~92b)

臣營下今月十五日六日, 得雨二寸七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三日之雨, 茂長·咸平, 得二鋤, 南原·同福·和順·南平·靈光·羅州·康津·興德·法聖等九邑鎮, 得一鋤, 十五日六日之雨, 益山·高山·鎮安·龍潭·茂朱·南原·雲峰·求禮·光陽·淳昌·玉果·潭陽·昌平·光州·和順·同福·綾州·南平·羅州·靈巖·務安·咸平·靈光·茂長·興德·長城·泰仁等二十七邑, 川渠大漲, 汰覆沈消之患, 間多有之, 金溝·金堤·沃溝·高敞·谷城·興陽等六邑, 得一犁, 咸悅·萬頃·臨陂·珍山·長興·珍島等六邑, 得二鋤, 龍安·任實·井邑·樂安·海南·法聖等六邑鎮, 得一鋤, 興陽·珍島, 祈雨祭, 間已停止, 農形段, 付種早稻已盡發穗, 移種稻間或胚胎, 中晚稻幾訖再除草, 木綿結穎, 黍粟發穗, 豆太和種結殼, 根耕開花, 木麥向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16일에 내린 비가 2치 7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3일의 비로 무장·함평은 2서가 내렸고, 남원·동북·화순·남평·영광·나주·강진·홍덕·법성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15일·16일의 비로 익산·고산·진안·용담·무주·남원·운봉·구례·광양·순창·옥과·담양·창평·광주·화순·동북·능주·남평·나주·영암·무안·함평·영광·무장·홍덕·장성·태인 등 2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사태로 뒤덮이고 물에 잠겨 녹아버릴 근심이 그사이에 많습니다. 금구·김제·옥구·고창·곡성·홍양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함열·만경·임피·진산·장흥·진도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용안·임실·정읍·낙안·해남·법성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양·진도는 기우제를 그사이에 이미 중지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켜고, 옮겨 심은 벼는 간혹 알을 배고, 중벼·늦벼는 거의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목화는 다래를 맺고, 기장·조는 이삭이 패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것은 꽃이 피고, 메밀은 무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9. 1845년(헌종 11) 8월 2일(양력 9월 3일)

全羅監司啓錄 2책(16b~16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97c~97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早稻向熟, 移種早稻發穗, 中晚稻胚胎, 木綿次第結穎, 黍粟幾盡發穗, 豆太和種入實, 根耕結穀, 木麥茁茂是如爲白乎所, 各穀成就, 政在此時, 而邇來日候驟涼, 兩澤稍闕, 晚移各種, 恐不無受損之慮是白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익어가고, 옮겨 심은 올벼는 이삭이 났고, 중벼·늦벼는 알을 배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고, 기장·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알이 들고, 그루같이한 것은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각종 곡식이 여무는 것은 바로 이때에 달렸는데 요즈음 날씨가 갑자기 서늘하고 우택이 조금 부족하니 늦게 옮겨 심은 각종 곡식은 아마도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0. 1845년(헌종 11) 8월 5일(양력 9월 6일)

全羅監司啓錄 2책(17b~18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98a~98a)

道內農形段，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四日巳時始雨，或霏或灑，初五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而姑未開霽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4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1. 1845년(헌종 11) 8월 7일(양력 9월 8일)

全羅監司啓錄 2책(18a~18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98b~98c)

今月初五日寅時至, 營下得雨三寸四分. 緣由, 觀察使臣金景善,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同日卯時以後, 間或霏微, 猶未快霽是白遣, 今月初四日五日之雨, 泰仁·古阜·長城·〈興〉陽·玉果·淳昌·南原·谷城·求禮·光陽·高敞·茂長·靈光·法聖等十四邑鎮, 川渠漲滿, 井邑, 得二犁, 金溝·金堤·興德·任實·鎮安等五邑, 得一犁, 沃溝·珍山·錦山·龍潭·等四邑, 得二鋤, 高山·益山·龍安·萬頃·臨陂等五邑, 得一鋤, 礪山, 泥塵是如, 報來是白乎所.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인시까지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4푼인 연유는 관찰사인 저 김정선이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묘시 이후 간혹 부슬부슬 내리는데 여전히 말끔하게 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4일·5일의 비로 태안·고부·장성·홍양·옥과·순창·남원·곡성·구례·광양·고창·무장·영광·법성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정읍은 2려가 내렸고, 금구·김제·홍덕·임실·진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옥구·진산·금산·용담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고산·익산·용안·만경·임피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2. 1845년(헌종 11) 8월 18일(양력 9월 19일)

全羅監司啓錄 2책(19b~19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98d~99a)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四日·五日之雨, 長水·同福·順天·和順·綾州·寶城·長興·羅州·咸平等九邑, 川渠漲滿, 昌平·務安, 得二犁, 扶安·茂朱·雲峰·光州·樂安·興陽·靈巖·珍島等九邑, 得二犁, 康津·海南, 得一鋤, 咸悅,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刈取, 移種早稻向熟, 中晚稻間間發穗, 木綿吐絮, 黍粟向熟, 豆太和種與根耕入實, 木麥開花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초5일의 비로 장수·동북·순천·화순·능주·보성·장흥·나주·함평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창평·무안은 2려가 내렸고, 부안·무주·운봉·광주·낙안·홍양·영암·진도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진·해남은 1서가 내렸고, 함열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베어 거두고, 옮겨 심은 올벼는 익어가고, 중벼·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묵화는 숨이 터져 나오고, 기장·조는 익어가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과 그루같이한 것은 알이 들고, 메밀은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3. 1845년(헌종 11) 8월 22일(양력 9월 23일)

全羅監司啓錄 2책(20a~20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99b~99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一日申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二日丑時至, 測兩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早稻已盡刈取, 移種早稻方始刈取, 中晚稻先移者間間向熟, 晚移者或胎而未發, 或穗而直立, 木綿摘絮, 黍粟垂穎, 豆太和種與根耕漸次向熟, 木麥幾盡開花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1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으며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옮겨 심은 올벼는 막 베어서 거두기 시작했고, 중벼·늦벼는 먼저 옮겨 심은 것은 간간이 익어가고, 늦게 옮겨 심은 것은 더러는 알을 뻗으나 패지는 않았고, 더러는 이삭이 꽃꽂이 섰고, 목화는 숨을 따고, 기장·조는 이삭을 숙였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과 그루같이한 것이 점차 익어가고, 메밀은 거의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4. 1845년(헌종 11) 8월 28일(양력 9월 29일)

全羅監司啓錄 2책(23b~23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101a~101b)

臣營下今月二十二日丑時至, 得雨五分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一日二日之雨, 光陽, 得二鋤, 益山·龍安·咸悅·臨陂·珍山·錦山·龍潭·長城·羅州·順天·同福等十一邑, 得一鋤, 高山·茂朱·金溝·泰仁·金堤·古阜·興德·茂長·井邑·淳昌·任實·求禮·玉果·昌平·光州·咸平·寶城·興陽等十八邑, 浥塵, 而入今月以來, 東風連吹, 涼氣太促, 早種之已穗者, 向熟差遲, 晚移之將發者, 含縮居多, 無望善就是如爲白遣, 雲峰·長水, 今月二十五日夜, 霜降是如. 報來是白乎所, 無論早移晚種, 其爲受損, 沿峽同然, 而霜信又此太遽, 言念民事, 誠極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2일 축시까지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22일의 비로 광양은 2서가 내렸고, 익산·용안·함열·임피·진산·금산·용담·장성·나주·순천·동복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산·무주·금구·태인·김제·고부·홍덕·무장·정읍·순창·임실·구례·옥과·무장·정읍·순창·임실·구례·옥과·창평·광주·보성·홍양 등 1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들어온 이후로 동풍이 연이어 불고 서늘한 기운이 크게 재촉하여 이미 이삭이 팬 올곡은 익어가는 것이 조금 지체되고, 장차 이삭이 팠 것으로 늦게 옮겨 심은 것은 대부분 오그라들어 잘 여물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운봉·장수는 이번 달 25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는 보고가 왔는데, 일찍 옮겨 심은 것이나 늦곡을 따질 것 없이 손해를 입었으며 물가나 산골이 똑같습니다. 서리 소식이 또 이렇게 매우 빠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5. 1845년(헌종 11) 9월 2일(양력 10월 2일)

全羅監司啓錄 2책(34a~34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106b~106b)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三日·四日·五日之雨, 羅州, 得二鋤, 潭陽·南平·長興·靈巖·興陽·珍島·等六邑, 得一鋤, 海南, 沔塵, 農形段, 移種早稻方張刈取, 中晚稻先移者向熟, 差遲晚移者, 未發與直立外, 次第入實, 木綿摘絮, 黍粟成熟, 豆太和種與根耕, 方張向熟, 木麥今始結殼.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24일·25일의 비로 나주는 2서가 내렸고, 담양·남평·장흥·영암·홍양·진도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해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옮겨 심은 올벼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중벼·늦벼는 먼저 옮겨 심은 것은 익어가고, 조금 지체해서 늦게 옮겨 심은 것은 이삭이 패지 않은 것과 곳곳이 선 것 외에는 차례로 알이 들고, 목화는 솜을 따고, 기장·조는 익었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과 그루같이한 것이 한창 익어가고, 메밀은 지금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6. 1845년(헌종 11) 9월 12일(양력 10월 12일)

全羅監司啓錄 2책(37b~38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2책(107d~108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移種早稻幾盡刈取, 中晚稻先移者漸次向熟, 晚移者未發與直立外, 亦多垂穎, 木綿摘絮過半, 黍粟間或刈取, 豆太和種與根耕幾皆向熟, 木麥今方入實, 鎮安去月二十九日夜, 霜降, 全州·金溝·高山·珍山·錦山·茂朱·龍潭·益山·礪山·龍安·咸悅·臨陂·沃溝·金堤·萬頃·扶安·古阜·泰仁·井邑·長城·高敞·興德·茂長·靈光·羅州·南平·綾州·同福·和順·光州·潭陽·玉果·淳昌·任實·南原·谷城·光陽·順天·樂安·寶城·長興·靈巖·咸平·務安·興陽·法聖等四十六邑鎮, 今月初三四日夜, 霜降, 無論中晚稻, 雨後晚移之未發與直立, 固已判棄, 而至於向實者, 亦更無餘望是如. 迭相告悶是白乎所, 檢田一事, 關係甚重, 十分審核之意, 另加申飭, 待其概狀齊報, 分等執摠,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옮겨 심은 올벼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중벼·늦벼는 먼저 옮겨 심은 것은 점차 익어가고, 늦게 옮겨 심은 것은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것과 곳곳이 선 것 외에 또한 고개를 숙인 이삭이 많고, 목화는 절반 넘게 솜을 뺐고, 기장·조는 간혹 베어 거두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과 그루같이한 것이 거의 다 익어가고, 메밀은 지금 막 알이 들고 있습니다. 진안은 지난달 29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전주·금구·고산·진산·금산·무주·용담·익산·여산·용안·함열·임피·옥구·김제·만경·부안·고부·태인·정읍·장성·고창·홍덕·무장·영광·나주·남평·능주·동북·화순·광주·담양·옥과·순창·임실·남원·곡성·광양·순천·낙안·보성·장흥·영암·함평·무안·홍양·법성 등 46개 고을과 군영은 이번 달 초3·4일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중벼·늦벼를 따질 것 없이 비온 뒤에 늦게 옮겨 심은 것은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것과 곳곳이 선 것은 진실로 이미 포기하는 것으로 판가를 냈고, 알이 들고 있는 것도 또한 남은 가망이 없다고 하며 서로 번갈아 걱정을 아웁니다. 밭을 조사하는 한 가지 일은 관계가 매우 엄중하므로 충분히 살펴서 조사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고, 대략 보고를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서 풍흉 등급을 나누고 총수를 합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7. 1847년(헌종 13) 3월 27일(양력 5월 11일)

全羅監司啓錄 3책(3a~3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24a~124b)

道內雨澤, 前道臣李時在在任時,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到界以後,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六日七日之雨, 谷城·靈光·茂長等三邑, 得二鋤, 昌平·南平·和順·綾州·務安·咸平·光陽·順天·康津·珍島等十邑, 得一鋤, 錦山·靈巖, 浥塵, 農形段, 付種畝方始耕播, 早種畝間或再翻耕, 中晚稻幾訖初翻耕, 秧板間間注種, 大麥胚胎, 小麥茁茂是如爲白遣, 臣營下今月二十五日戌時始雨, 或霏或灑, 二十六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載陰載陽是白如可, 申時仍爲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이전 관찰사 이시재가 재임할 때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전라도에 도착한 이후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일·17일의 비로 곡성·영광·무장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창평·남평·화순·능주·무안·함평·광양·순천·강진·진도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산·영암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는 논은 막 땅을 갈고 볍씨를 뿌리기 시작했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는 초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못자리에는 간간이 물을 대서 볍씨를 뿌리고, 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5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으며,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신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8. 1847년(헌종 13) 4월 1일(양력 5월 14일)

全羅監司啓錄 3책(7a~7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26a~126b)

臣營下雨澤，去月二十六日寅時至，水深四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五日六日之雨，錦山·龍潭·雲峰·南平·羅州·長城·高敞·等七邑，得一鋤，淳昌·潭陽·玉果·谷城·同福·和順·綾州·寶城·靈光·茂長·井邑·興德·古阜·金堤·泰仁·金溝·萬頃·臨陂·沃溝·咸悅·龍安·益山·礪山·高山·茂朱·長水·鎭安·法聖等二十九邑鎭，沍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臥乎事。

저의 감영 우택이 지난달 26일 인시까지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일·26일의 비로 금산·용담·운봉·남평·나주·장성·고창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창·담양·옥과·곡성·동북·화순·능주·보성·영광·무장·정읍·홍덕·고부·김제·태인·금구·만경·임피·옥구·함열·용안·익산·여산·고산·무주·장수·진안·범성 등 29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9. 1847년(헌종 13) 4월 7일(양력 5월 20일)

全羅監司啓錄 3책(11b~12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28c~128c)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畝幾盡耕播, 早稻畝方張再
翻耕, 中晚稻畝間或再翻耕, 秧板次第注種, 木綿·黍粟方始耕播, 大麥發穗, 小麥胚胎是如爲
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는 논은 거의 다 땅을 갈고 볍씨를 뿌렸고,
올벼 논은 한창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못자리는 차례로 물을 대서 씨앗을 뿌리고, 목화와 기장·조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보리는 이삭이 패고, 밀은 알을 밴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20. 1847년(헌종 13) 4월 17일(양력 5월 30일)

全羅監司啓錄 3책(14b~15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30a~130a)

道內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早付種及秧板立苗向青，早稻畚幾盡再翻耕，中晚稻畚方張再翻耕，木綿·黍粟次第立苗，和種豆太方始耕播，大麥入實，小麥發穗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일찍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싹이 돋아 푸르러지고, 올벼 논은 거의 다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한창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목화와 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돋고, 섞어 짓는 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보리는 알이 들고, 밀은 이삭이 팬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1. 1847년(헌종 13) 4월 27일(양력 6월 9일)

全羅監司啓錄 3책(17a~17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31b~131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付種畝間或初除草, 早稻畝次第再翻耕, 中晚稻畝方始三翻耕, 秧苗漸茁, 木綿·黍粟初耘, 和種豆太立苗, 大麥向熟, 小麥入實是如是白遣. 臣營下今月二十五日未時始雨, 間間霏灑, 二十六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載陰載陽是白如可, 二十七日卯時, 仍爲開霽是白乎所.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일찍 무논에 볍씨를 뿌린 논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막 세벌 갈아엎기 시작하였고, 모는 점차 싹이 자라고, 목화와 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 짓는 콩·팥은 싹이 돋고, 보리는 익어가고, 밀은 알이 든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5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으며 언뜻 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7일 묘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2. 1847년(헌종 13) 5월 1일(양력 6월 13일)

全羅監司啓錄 3책(17b~18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37c~137d)

臣營下雨澤，去月二十六日卯時至，水深爲四分，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去月三十日巳時，間間霏灑，戌時至，測雨器水深爲七分，而今月初一日巳時，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五日六日之雨，南平·羅州·務安·光陽·康津·海南等六邑，得二鋤，金溝·長城·光州·和順·谷城·順天·珍島·法聖等八邑鎮，得一鋤，高山·珍山·錦山·茂朱·龍潭·鎭安·長水·任實·南原·淳昌·泰仁·萬頃·益山·礪山·龍安·咸悅·臨陂·沃溝·扶安·金堤·古阜·井邑·興德·高敞·茂長·靈光·咸平·靈巖·潭陽·玉果·昌平·同福·綾州·長興·寶城·樂安·求禮·興陽·三十八邑，沍塵是如。報爲白乎所，見今秧節已屆，繼以一霽，竝切顒望。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 우택은 지난달 26일 묘시까지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사시에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으며 이번 달 초1일 사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4월 25일·26일의 비로 남평·나주·무안·광양·강진·해남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금구·장성·광주·화순·곡성·순천·진도·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고산·진산·금산·무주·용담·진안·장수·임실·남원·순창·태인·만경·익산·여산·용안·함열·임피·옥구·부안·김제·고부·정읍·홍덕·고창·무장·영광·함평·영암·담양·옥과·창평·동북·능주·장흥·보성·낙안·구례·홍양 등 3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모내기철이 이미 닳쳤으니 이어서 한차례 퍼붓기를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3. 1847년(헌종 13) 5월 5일(양력 6월 17일)

全羅監司啓錄 3책(30b~31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38b~138c)

臣營下雨澤，去月三十日，得雨七分。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任實·谷城·順天·光陽·南平·務安·等六邑，得一鋤，益山·礪山·龍安·咸悅·臨陂·沃溝·萬頃·金堤·金溝·高山·珍山·錦山·茂朱·龍潭·雲峰·求禮·南原·泰仁·井邑·扶安·古阜·興德·高敞·茂長·咸平·靈光·長城·潭陽·淳昌·玉果·昌平·光州·和順·綾州·法聖等三十五邑鎮，沍塵是如爲白乎所。秧節已屆，一霈尙薪[斬]，誠切顓悶。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 우택은 지난달 30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임실·곡성·순천·광양·남평·무안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익산·여산·용안·함열·임피·옥구·만경·김제·금구·고산·진산·금산·무주·용담·운봉·구례·남원·태인·정읍·부안·고부·홍덕·고창·무장·함평·영광·장성·담양·순창·옥과·창평·광주·화순·능주·법성 등 35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내기철이 이미 닳쳤는데 아직도 한차례 퍼붓지 않으니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4. 1847년(헌종 13) 5월 일(양력 6월 일)

全羅監司啓錄 3책(31a~31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38c~138c)

道內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之雨, 羅州·長興·海南·康津·珍島等五邑, 得一鋤, 同福·樂安·寶城·靈巖等四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方張初除草, 早稻畝有水根處間間移秧, 中晚稻畝次第三翻耕, 木綿·黍粟幾盡初耘, 和種豆太漸次向苗, 大麥刈取, 小麥向熟. 而三月初旬以後, 雨澤慳閔, 間或鋤浥, 亦未均沾, 原野高坪立苗各種, 率多乾惜是如爲白乎所. 見今夏至在邇, 一霈尙薪[斬], 益切顛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나주·장흥·해남·강진·진도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동복·낙안·보성·영암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 논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은 간간이 모내기하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세벌 갈아엎기를 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싹이 자라고, 보리는 베어 거두고, 밀은 익어갑니다. 3월 초10일 이후 우택은 내리지 않고 간혹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인데 또한 고르게 적시지 않으니 벌판이나 높은 들에 싹이 돋은 각종 곡식은 대부분 마를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하지가 가까운데 한차례 퍼붓지 않으니 걱정이 더욱 절실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5. 1847년(헌종 13) 5월 12일(양력 6월 24일)

全羅監司啓錄 3책(32a~32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49d~149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日六日之雨, 南平, 得二鋤, 長城·光州·羅州·咸平·康津·寶城·順天等七邑, 得一鋤, 高山·珍山·長水·泰仁·金堤·古阜·井邑·興德·高敞·茂長·靈光·務安·靈巖·綾州·和順·同福·昌平·潭陽·淳昌·玉果·谷城·求禮·光陽·樂安·海南·法聖等二十六邑鎮, 浥塵是如爲白乎旆, 夏至已過, 一霈尙薪[斬], 秧役愆期, 民事可悶, 雲峰請行祈雨祭, 故以不卜日虔誠設行之意, 措辭題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남평은 2서가 내렸고, 장성·광주·나주·함평·강진·봉성·순천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산·진산·장수·태인·김제·고부·정읍·홍덕·고창·무장·영광·무안·영암·능주·화순·동북·창평·담양·순창·옥과·곡성·구례·광양·낙안·해남·범성 등 26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도 한차례 퍼붓지 않아 모내기 일은 때를 놓쳐 백성들의 사정은 걱정할 만한데, 운봉은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6. 1847년(헌종 13) 5월 14일(양력 6월 26일)

全羅監司啓錄 3책(32b~32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3책(150a~150b)

今月初五日六日之雨南平等三十四邑鎮, 所得多寡及雲峯祈雨祭設行.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之雨, 興陽, 得一犁, 長興, 得一鋤, 初九日之雨, 南平, 得二鋤, 綾州·和順·寶城·順天·求禮·玉果·同福等七邑, 浥塵, 而見今秧節差晚, 鋤浥之澤, 亦未均霑, 堤坎引漑處外, 移插無路, 民情轉渴是如. 茂朱·龍潭·長水·高山·興德·高敞·等六邑祈雨祭, 亦爲請行. 故[處]誠設行之意, 措辭題送爲白遣, 臣營下今月十三日戌時, 始雨, 間間霏灑, 十四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陰雲尙濃, 姑未開霽是白如乎, 憫旱之餘, 甘澍伊始, 繼以霏洽, 益切顙祝,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남평 등 34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및 운봉이 기우제를 시행한다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의 비로 홍양은 1려가 내렸고, 장흥은 1서가 내렸으며, 초9일의 비로 남평은 2서가 내렸고, 능주·화순·보성·순천·구례·옥과·동복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현재 모내기철이 조금 늦었는데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의 우택도 고르게 적시지 않으니 방죽과 보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곳을 외에는 옮겨 심을 길이 없으니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애가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용담·장수·고산·흥덕·고창 등 6개 고을은 또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3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4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먹구름이 여전히 짙고 아직 개이지 않습니다. 가뭄을 걱정한 끝에 단비가 시작되었으니 이어서 주룩주룩 흠족하게 내리기를 더욱 간절히 빕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7. 1849년(헌종 15) 3월 17일(양력 4월 9일)

全羅監司啓錄 4책(3a~3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64c~164d)

臣營下今月初九日辰時至, 得雨二寸三分緣由, 前道臣洪義錫在任時,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到界以後,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八日九日之雨, 錦山·龍潭·鎭安·谷城等四邑, 川渠小漲, 礪山·雲峰, 得二犁, 高山·珍山·臨陂·金溝·泰仁·高敞·務安·羅州·南平·同福·玉果等十一邑, 得一犁, 益山·萬項·金堤·長城·茂長·靈光·靈巖·康津·光陽·光州·淳昌·長水·茂朱·法聖等十四邑鎭, 得二鋤, 沃溝·龍安·咸悅·興德·古阜·潭陽·昌平·南原·順天·和順·綾州·長興·寶城·樂安·興陽等十五邑, 得一鋤, 任實·井邑, 浥塵. 農形段, 早稻畚間間初翻耕, 兩麥漸次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9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2치 3푼인 연유는 이전 관찰사 홍희석이 재임할 때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전라도에 도착한 이후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9일의 비로 금산·용담·진안·곡성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여산·운봉은 2려가 내렸고, 고산·진산·임피·금구·태인·고창·무안·나주·남평·동북·옥과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익산·만경·김제·장성·무장·영광·영암·강진·광양·광주·순창·장수·무주·법성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2서가 내렸고, 옥구·용안·함열·홍덕·고부·담양·창평·남원·순천·화순·능주·장흥·보성·낙안·홍양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실·정읍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8. 1849년(헌종 15) 3월 20일(양력 4월 12일)

全羅監司啓錄 4책(4b~4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65c~165c)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九日丑時，始雨，間間霏灑，戌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而戌時以後，乍陰乍陽，二十日申時，仍爲開霽是白乎所，列邑所得多寡，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9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고, 술시 이후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0일 신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9. 1849년(헌종 15) 3월 24일(양력 4월 16일)

全羅監司啓錄 4책(7b~8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67a~167a)

臣營下今月十九日，得雨一寸八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高山·錦山·龍潭·淳昌·玉果·同福等六邑，川渠小漲，珍山·礪山·臨陂·羅州·求禮·雲峰等六邑，得二犁，益山·咸悅·光陽·靈光·海南等五邑，得一犁，龍安·萬頃·金溝·金堤·高敞·長城·潭陽·茂長·昌平·南原·順天·樂安·靈巖等十三邑，得二鋤，沃溝·鎭安·長水·任實·谷城·扶安·古阜·興德·茂朱等九邑，得一鋤，泰仁·井邑·康津等三邑，浥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9일에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고산·금산·용담·순창·옥과·동북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진산·여산·임피·나주·구례·운봉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익산·함열·광양·영광·해남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안·만경·금구·김제·고창·장성·담양·무장·창평·남원·순천·낙안·영암 등 1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옥구·진안·장수·임실·곡성·부안·고부·홍덕·무주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태인·정읍·강진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0. 1849년(헌종 15) 3월 27일(양력 4월 19일)

全羅監司啓錄 4책(8a~8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67a~167b)

臣以春耕看審事發巡.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自全州, 歷金堤·扶安·古阜·興德, 方到茂長縣, 而所經田野, 一一看審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早稻畚次第初翻耕, 中晚稻畚間或初翻耕, 兩麥漸次向茂, 今月十九日之雨, 和順·綾州, 川渠, 小漲, 南平, 得二犁, 光州·務安, 得一犁, 興陽·咸平·法聖等三邑鎮, 得二鋤, 長興·寶城, 得一鋤, 二十四日之雨, 靈光, 得二鋤, 臨陂·茂長, 得一鋤, 益山·萬頃·金溝·金堤·扶安·泰仁·井邑·古阜等八邑, 沍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봄갈이를 살펴볼 일로 순시를 출발한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전주에서 김제·부안·고부·흥덕을 거쳐 막 무장현에 도착하였는데, 지나는 곳의 밭과 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19일의 비로 화순·능주는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남평은 2려가 내렸고, 광주·무안은 1려가 내렸고, 홍양·함평·법성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2서가 내렸고, 장흥·보성은 1서가 내렸습니다. 24일의 비로 영광은 2서가 내렸고, 임피·무장은 1서가 내렸고, 익산·만경·금구·김제·부안·태인·정읍·고부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1. 1849년(헌종 15) 4월 3일(양력 4월 25일)

全羅監司啓錄 4책(9b~9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67d~168a)

道內農形及雨澤, 臣巡到茂長縣,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自茂長, 歷靈光·長城·光州·潭陽·淳昌·任實, 今月初三日, 還營, 而所經田野, 一一看審是白乎則, 早稻畚方張初翻耕, 中晚稻畚間間初翻耕, 兩麥漸益向茁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四日之雨, 珍山·龍潭·羅州·務安等四邑, 得二鋤, 全州·錦山·求禮·雲峰·順天·和順·綾州·光州·南平·靈巖·長興·康津·海南·珍島等十四邑, 得一鋤, 鎭安·礪山·任實·谷城·淳昌·潭陽·長城·興德·寶城·同福·興陽等十一邑, 浥塵是如爲白遣, 今月初三日丑時, 始雨, 或霏或灑, 酉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 而姑未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제가 순시하며 무장현에 도착하여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무장에서 영광·장성·광주·담양·순창·임실을 거쳐 이번 달 초3일에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가는 곳의 밭과 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 올벼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점 더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진산·용담·나주·무안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전주·금산·구례·운봉·순천·화순·능주·광주·남평·영암·장흥·강진·해남·진도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안·여산·임실·곡성·순창·담양·장성·홍덕·보성·동북·홍양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3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으며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2. 1849년(헌종 15) 4월 7일(양력 4월 29일)

全羅監司啓錄 4책(12a~12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69b~169c)

臣營下今月初三日, 得雨一寸八分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初六日午時, 間間霏灑, 戌時至, 測雨器水深, 又爲四分, 而尙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三日之雨, 務安得二鋤, 靈光·咸平·長興·康津等四邑, 得一犁, 泰仁·龍潭·昌平·高敞·長城·羅州·靈巖·樂安等八邑, 得二鋤, 益山·珍山·錦山·茂朱·金堤·萬頃·臨陂·沃溝·咸悅·古阜·興德·茂長·潭陽·淳昌·玉果·谷城·光州·和順·同福·綾州·南平·寶城·光陽·求禮·順天·雲峰等二十六邑, 得一鋤, 礪山·龍安·金溝·扶安·井邑·任實·南原等七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方始初耕播, 早稻畚間或再翻耕, 中晚稻畚方張初翻耕, 種板注種, 木綿·黍粟耕播, 大麥胚胎, 小麥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3일에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초6일 오시에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4푼이었으며 아직도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무안은 2서가 내렸고, 영광·함평·장흥·강진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인·용담·창평·고창·장성·나주·영암·낙안 등 8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익산·진산·금산·
무주·김제·만경·임피·옥구·함열·고부·홍덕·무장·담양·순창·옥과·곡성·광주·화순·동북·능
주·남평·보성·광양·구례·순천·운봉 등 2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용안·금구·부안·정
읍·임실·남원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볍씨를 뿌리는 무논은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못자
리에는 물을 대서 볍씨를 뿌리고, 목화와 기장·조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3. 1849년(헌종 15) 4월 11일(양력 5월 3일)

全羅監司啓錄 4책(13b~13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0a~170b)

臣營下今月初六日，得雨四寸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初十日戌時，又雨，或霏或灑，十一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而尙未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今月初三日之雨，興陽·海南，得二犁，珍島，得一犁，初六日之雨，羅州·務安，得二鋤，龍潭·金溝·南平·高敞·靈光·法聖·等六邑鎮，得一鋤，益山·礪山·珍山·茂朱·長水·任實·泰仁·萬頃·咸悅·沃溝·臨陂·金堤·扶安·古阜·井邑·興德·潭陽·淳昌·南原·谷城·康津等二十一邑，浥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6일 내린 비가 4치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10일 술시에 또 비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홍양·해남은 2려가 내렸고, 진도는 1려가 내렸고, 초6일의 비로 나주·무안은 2서가 내렸고, 용담·금구·남평·고창·영광·법성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익산·여산·진산·무주·장수·임실·태인·만경·함열·옥구·임피·김제·부안·고부·정읍·홍덕·담양·순창·남원·곡성·강진 등 2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4. 1849년(헌종 15) 4월 17일(양력 5월 9일)

全羅監司啓錄 4책(15a~1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0d~171a)

臣營下今月十一日辰時至, 得雨一寸四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十三日午時, 又雨, 間間霏灑, 戌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同時以後, 乍陰乍暘, 十五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十日十一日之雨, 龍潭, 得二犁, 臨陂·羅州, 得一犁, 礪山·金溝·長興·光陽·務安等六邑, 得二鋤, 高山·益山·珍山·錦山·金堤·萬頃·咸悅·扶安·古阜·茂長·鎭安·長水·雲峰·南原·求禮·潭陽·玉果·昌平·南平·靈巖·法聖等二十二邑鎭, 得一鋤, 龍安·沃溝·泰仁·井邑·興德·任實·淳昌·綾州·同福·寶城等十邑, 浥塵, 十三日之雨, 川渠小漲, 雲峰, 得二鋤, 咸悅·臨陂·萬頃·泰仁·古阜·高敞·潭陽·南原·谷城等九邑, 得一鋤, 益山·龍安·礪山·高山·珍山·茂朱·沃溝·金溝·金堤·扶安·茂長·等十一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已訖耕播, 早稻畝間再翻耕, 中晚稻畝幾盡初翻耕, 秧板方張注種, 木綿·黍粟次第耕播, 大麥發穗, 小麥胚胎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1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3일 오시에 또 비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5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0일·11일의 비로 용담은 2려가 내렸고, 임피·나주는 1려가 내렸고, 여산·금구·장흥·광양·무안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고산·익산·진산·금산·김제·만경·함열·부안·고부·무장·진안·장수·운봉·남원·구례·담양·옥과·창평·남평·영암·법성 등 22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용안·옥구·태인·정읍·홍덕·임실·순창·능주·동북·보성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3일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운봉은 2서가 내렸고, 함열·임피·만경·태인·고부·고창·담양·남원·곡성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익산·용안·여산·고산·진산·무주·옥구·금구·김제·부안·무장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리는 무논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고, 올벼논은 간간이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거의 다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못자리는 한창 물을 대서 벼씨를 뿌리고 있고, 묵화와 기장·조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이삭이 패고, 밀은 알을 뻗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5. 1849년(헌종 15) 4월 27일(양력 5월 19일)

全羅監司啓錄 4책(18a~18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2c~172d)

道內農形及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二日戌時, 始雨, 間間霏灑, 二十四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 而同時以後, 乍陰乍暘, 二十五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二日三日之雨, 務安, 得一犁, 南平·羅州·靈光等三邑, 得二鋤, 益山·礪山·龍安·咸悅·沃溝·臨陂·泰仁·珍山·錦山·龍潭·興德·茂長·高敞·長城·昌平·順天·康津·靈光·咸平等十九邑, 得一鋤, 高山·金溝·金堤·萬項·扶安·古阜·井邑·潭陽·淳昌·任實·南原·谷城·樂安·長水·茂朱等十五邑, 浥塵, 農形段, 付種及秧板立苗向青, 早稻畚方張再翻耕, 中晚稻畚間或再翻耕, 木綿·黍粟次第立苗, 和種豆太方始耕播, 大麥, 入實, 小麥, 發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2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4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같은 때 이후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5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2일·23일의 비로 무안은 1려가 내렸고, 남평·나주·영광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익산·여산·용안·함열·옥구·임피·태인·진산·금산·용담·홍덕·무장·고창·장성·창평·순천·강진·영광·함평 등 1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산·금구·김제·만경·부안·고부·정읍·담양·순창·임실·남원·곡성·낙안·장수·무주 등 1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싹이 돋아 푸르러지고, 올벼논은 한창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차례로 싹이 돋고, 섞어 짓는 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보리는 알이 들고, 밀은 이삭이 뽕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6. 1849년(헌종 15) 윤4월 1일(양력 5월 22일)

全羅監司啓錄 4책(18b~18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2d~173a)

道內雨澤及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去月二十八日申時始雨, 或霏或灑, 今月初一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二分, 而尙未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지난달 28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7. 1849년(헌종 15) 윤4월 7일(양력 5월 28일)

全羅監司啓錄 4책(19a~19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3a~173b)

臣營下今月初一日寅時至, 得雨四寸二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辰時以後, 間又霏灑, 初二日戌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初三日未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九日, 今月初一日二日之雨, 高山·鎭安·龍潭·雲峰·南原·求禮·同福·和順·長城等九邑, 川渠漲滿, 礪山·金溝·靈光·羅州·務安·光陽·康津·海南等八邑, 得二犁, 錦山·珍山·益山·龍安·咸悅·興德·高敞·咸平·靈巖·南平·光州·玉果·谷城·興陽·珍島等十五邑, 得一犁, 臨陂·沃溝·萬頃·金堤·泰仁·茂長·淳昌·順天·樂安·寶城·長興·綾州·昌平·長水·茂朱等十五邑, 得二鋤, 扶安·古阜·井邑·潭陽·任實·法聖等六邑鎭, 得一鋤, 農形段, 付種及秧板立苗向苗, 早稻畚已盡再翻耕, 中晚稻畚間間再翻耕, 木麥·黍粟立苗向青, 和種豆太方張耕播, 大麥幾盡入實, 小麥次第發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1일 인시까지 내린 비가 4치 2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진시 이후 그사이에 또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2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으며 초3일 미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29일과 이번 달 초1일·2일의 비로 고산·진안·용담·운봉·남원·구례·동북·화순·장성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여산·금구·영광·나주·무안·광양·강진·해남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금산·진산·익산·영광·함열·홍덕·고창·함평·영암·남평·광주·옥과·곡성·홍양·진도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임피·옥구·만경·김제·태인·무장·순창·순천·낙안·보성·장흥·능주·창평·장수·무주 등 1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부안·고부·정읍·담양·임실·법성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짝이 돌아 자라고, 올벼 논은 이미 다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간간이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메밀과 기장·조는 짝이 돌아 푸르러지고, 섞어 짓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밀은 차례로 이삭이 팬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8. 1849년(헌종 15) 윤4월 13일(양력 6월 3일)

全羅監司啓錄 4책(21a~21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4b~174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九日未時, 驟雨霏下, 風雹交作, 雹之大者如栗, 小者如碁子, 而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十一日戌時, 又雨, 或霏或灑, 十二日卯時至, 水深爲二寸五分, 而午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 驟雨, 鎭安, 川渠小漲, 金溝, 得一鋤, 高山·茂朱·長水等三邑, 沍塵, 而全州·鎭安·金溝段, 伊日雨雹所過處, 方苗之秧苗, 向熟之牟麥, 酷被撲打, 受損非細, 十一日二日之雨, 金溝, 得二犁, 益山·高山·金堤·井邑等四邑, 得一鋤, 咸悅·沃溝·臨陂·萬頃·泰仁·任實等六邑, 沍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9일 미시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고 번갈아 바람이 불고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우박이 큰 것은 밤만 하고 작은 것은 바둑돌만 했으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11일 술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수심이 2치 5푼이었으며 오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 소나기로 진안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금구는 1서가 내렸고, 고산·무주·장수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전주·진안·금구의 경우 그날 우박이 지나간 곳은 막 짝이 나던 모와 익어가던 보리가 흑독하게 두들겨 맞아 입은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11일·12일의 비로 금구는 2려가 내렸고, 익산·고산·김제·정읍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함열·옥구·임피·만경·태인·임실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9. 1849년(헌종 15) 윤4월 17일(양력 6월 7일)

全羅監司啓錄 4책(21b~22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4c~174d)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九日驟雨, 靈光, 得一鋤, 昌平·順天, 浥塵, 十一日二日之雨, 鎮安·龍潭, 川渠小漲, 長水·雲峰·求禮等三邑, 得二鋤, 錦山·茂朱·南原·扶安等四邑, 得一鋤, 珍山·礪山·古阜·興德·靈光·咸平等六邑, 浥塵, 而順天段, 初九日, 雨雹, 龍潭·咸平段, 十二日, 雨雹, 大者如栗, 小者如丸, 雹之所過處, 立苗之各種, 向熟之牟麥, 酷被撲打, 受損甚多, 農形段, 付種及秧板立苗漸茁, 早稻畚間或三翻耕, 中晚稻畚方張再翻耕, 木綿·黍粟立苗向茁, 和種豆太幾盡耕播, 大麥向熟, 小麥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 소나기로 영광은 1서가 내렸고, 창평·순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1일·12일의 비로 진안·용담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장수·운봉·구례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금산·무주·남원·부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산·여산·고부·홍덕·영광·함평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순천은 초9일에 우박이, 용담·함평은 12일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밤알만 하고 작은 것은 환약만 했는데 우박이 지나간 곳은 짝이 돌던 각종 곡식과 익어가던 보리가 흑독하게 두들겨 맞아 입은 손해가 매우 많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범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에서 돋은 싹은 점차 자라고, 올벼논은 간혹 세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한창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목화와 기장·조는 싹이 돌아 자라고,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보리는 익어가고, 밀은 알이 든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0. 1849년(헌종 15) 윤4월 27일(양력 6월 17일)

全羅監司啓錄 4책(22b~23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5a~175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三日丑時始雨, 或霏或灑, 未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 而申時以後, 乍陰乍暘, 二十六日戌時, 又雨, 二十七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三日之雨, 雲峰, 川渠漲滿, 鎮安·龍潭·光陽·羅州·務安·海南等六邑, 得一犁, 珍山·錦山·求禮·長城·咸平·靈巖等六邑, 得二鋤, 礪山·益山·金溝·任實·茂朱·南原·淳昌·潭陽·玉果·昌平·同福·順天·光州·靈光·法聖等十五邑鎮, 得一鋤, 高山·龍安·咸悅·臨陂·沃溝·萬頃·泰仁·金堤·扶安·古阜·井邑·興德·高敞·茂長·谷城·綾州等十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間或初除草, 早稻畚方始移秧, 中晚稻畚幾盡再翻耕, 木綿·黍粟間間初耘, 和種豆太立苗向青, 大麥刈取, 小麥向熟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3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신시 이후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6일 술시에 또 비가 내리다가 2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으며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3일의 비로 운봉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안·용담·광양·나주·무안·해남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진산·금산·구례·장성·함평·영암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여산·익산·금구·임실·무주·남원·순창·담양 옥과·창평·동북·순천·광주·영광·법성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고산·용안·함열·임피·옥구·만경·태인·김제·부안·고부·정읍·홍덕·고창·무장·곡성·능주 등 1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 논은 막 모내기를 시작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거의 다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목화와 기장·조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 짓는 콩·팥은 싹이 돋아 푸르러지고, 보리는 베어 거두고, 밀은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1. 1849년(헌종 15) 5월 7일(양력 6월 26일)

全羅監司啓錄 4책(25a~2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6c~176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六日七日之雨, 興陽, 川渠漲滿, 康津, 得二犁, 羅州·務安·靈巖·南平·同福·龍潭等六邑, 得一犁, 光陽·順天·綾州·光州·咸平·海南等六邑, 得二鋤, 礪山·珍山·錦山·淳昌·玉果·昌平·和順·谷城·求禮·樂安·寶城·珍島·興德·靈光·法聖等十五邑鎮, 得一鋤, 益山·龍安·咸悅·臨陂·萬頃·扶安·古阜·金溝·泰仁·井邑·高敞·茂長·潭陽·任實·南原·長水·茂朱等十七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幾盡初除草, 早中晚畝次第移秧, 木綿·黍粟方張初耘, 豆太和種向苗, 根耕播種, 兩麥刈取是如爲白遣, 臣營下今月初五日卯時, 始雨, 或霏或灑, 初六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 而仍爲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27일의 비로 홍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진은 2려가 내렸고, 나주·무안·영암·남평·동북·용담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양·순천·능주·광주·함평·해남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여산·진산·금산·순창·옥과·창평·화순·곡성·구례·낙안·보성·진도·홍덕·영광·법성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익산·용안·함열·임피·만경·부안·고부·금구·태인·정읍·고창·무장·담양·임실·남원·장수·무주 등 1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모내기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싹이 나오고 그루같이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보리와 밀은 베어서 거둔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5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으며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2. 1849년(헌종 15) 5월 17일(양력 7월 6일)

全羅監司啓錄 4책(25b~26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6d~177a)

臣營下今月初六日辰時至, 得雨二寸四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今月十三日丑時, 又雨, 間間霏灑, 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日六日之雨, 鎭安·龍潭·茂朱·長水·雲峰·任實·南原·求禮·淳昌·潭陽·玉果·同福·和順·綾州·咸平·長城·高敞·康津·興陽等十九邑, 川渠漲滿, 礪山·珍山·錦山·金溝·光陽等五邑, 得二犁, 高山·咸悅·臨陂·泰仁·昌平·光州·南平·羅州·務安·長興·順天·樂安等十二邑, 得一犁, 益山·金堤·扶安·井邑·興德·茂長·靈光·寶城·靈巖·海南·法聖等十一邑鎭, 得二鋤, 龍安·沃溝·萬頃·古阜·谷城等五邑, 得一鋤, 十三日之雨, 靈巖, 得一鋤, 礪山·高山·龍潭·咸悅·臨陂·沃溝·萬頃·金溝·興德·長水·綾州·寶城·順天等十三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間或再除草, 早稻畝已盡移秧, 中晚稻畝方張移秧, 木綿·黍粟幾盡初耘, 豆[太]和種初耘, 根耕立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6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2치 4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3일 축시에 또 비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진안·용담·무주·장수·운봉·임실·남원·구례·순창·담양·옥과·동북·화순·능주·함평·장성·고창·강진·홍양 등 1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여산·진산·금산·금구·광양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고산·함열·임피·태인·창평·광주·남평·나주·무안·장흥·순천·낙안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익산·김제·부안·정읍·홍덕·무장·영광·보성·영암·해남·법성 등 11개 고을과 군영은 2서가 내렸고, 용안·옥구·만경·고부·곡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13일의 비로 영암은 1서가 내렸고, 여산·고산·용담·함열·임피·옥구·만경·금구·홍덕·장수·능주·보성·순천 등 1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 논은 이미 다 모내기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한창 모내기하고 있고, 목화와 기장·조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초벌 김매기하고, 그루갈이한 것은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3. 1849년(헌종 15) 5월 27일(양력 7월 16일)

全羅監司啓錄 4책(26a~26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7a~177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三日午時, 始雨, 間間霏灑, 未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金溝·臨陂·錦山·順天·靈巖等五邑, 得一鋤, 茂朱·龍潭·高山·礪山·龍安·咸悅·金堤·泰仁·井邑·興德·茂長·昌平·玉果·光陽·樂安等十五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方張再除草, 早稻畝間或初除草, 中晚稻畝幾盡移秧, 木綿·黍粟方始再耘, 豆大和種次第初耘, 根耕立苗向青, 全州·任實·鎭安·龍潭·珍山·錦山·茂朱·長水·雲峰·南原·求禮·淳昌·潭陽·玉果·昌平·同福·和順·光州·綾州·南平·羅州·咸平·務安·靈巖·寶城·光陽·珍島·高敞·古阜·井邑·泰仁·臨陂·沃溝·咸悅·龍安·礪山·金溝等三十七邑, 如干秧不足處外, 次第畢移是如爲白乎所. 邇來雨澤, 數旬稍闕, 右沿諸邑, 間多惜乾, 際此一霽, 方切顯祝.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5월 23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금구·임피·금산·순천·영암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무주·용담·고산·여산·용안·함열·김제·태인·정읍·홍덕·무장·창평·옥과·광양·낙안 등 1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 논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거의 다 모내기고, 목화·기장·조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것은 싹이 돌아 푸르러집니다. 그러나 전주·임실·진안·용담·진산·금산·무주·장수·운봉·남원·구례·순창·담양·옥과·창평·동북·화순·광주·능주·남평·나주·함평·무안·영암·보성·광양·진도·고창·고부·정읍·태인·임피·옥구·함열·용안·여산·금구 등 37개 고을은 웬만큼 모가 부족한 곳 외에는 차례로 모내기를 마친다고 합니다. 요즈음 우택은 수집 일 동안 조금도 내리지 않아 우도 연안 여러 고을은 그사이에 가뭄을 걱정하여 이즈음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4. 1849년(헌종 15) 5월 30일(양력 7월 19일)

全羅監司啓錄 4책(26b~27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77b~177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七日酉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九日戌時至, 測雨器水深爲一尺三寸三分, 而尙未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7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3치 3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5. 1849년(헌종 15) 6월 7일(양력 7월 26일)

全羅監司啓錄 4책(34a~34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80b~180d)

臣營下去月二十九日戌時至, 得雨一尺三寸三分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三十日辰時以後, 間間霏灑, 酉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五分, 而今月初一日午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七日, 至三十日之雨, 高山·珍山·錦山·茂朱·龍潭·鎭安·任實·南原·雲峰·求禮·谷城·淳昌·潭陽·玉果·昌平·同福·光陽·順天·樂安·寶城·和順·光州·長城·茂長·高敞·井邑·泰仁·古阜·扶安·金堤·萬頃·沃溝·臨陂·咸悅·龍安·礪山·益山·金溝·法聖等三十九邑鎭, 川渠大漲, 疇墜汎濫, 沙覆沈消之患, 間多有之, 興德·羅州·咸平等三邑, 得二犁, 靈光·南平·靈巖·康津·興陽·珍島等六邑, 得一犁, 綾州·長興·務安·第三邑, 得二鋤, 海南, 得一鋤, 益山·高山·金堤·萬頃·扶安·興德·茂長·谷城·長興·康津·樂安·興陽·法聖等十三邑鎭, 如干秧不足處外, 次第畢移, 農形段, 付種畝幾盡再除草, 早晚稻畝方張初除草, 木綿·黍粟次第再耘, 豆太和種已盡初耘, 根耕間或初耘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지난달 29일 술시까지 내린 비가 1자 3치 3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30일 진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5푼이었고 이번 달 초1일 오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비로 고산·진산·금산·무주·용담·진안·임실·남원·운봉·구례·곡성·순창·담양·옥과·창평·동북·광양·순천·낙안·보성·화순·광주·장성·무장·고창·정읍·태인·고부·부안·김제·만경·옥구·임피·함열·용안·여산·익산·금구·법성 등 39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두둑이 범람하여 모래로 뒤덮이고 물에 잠겨서 녹는 근심이 그사이에 많습니다. 홍덕·나주·함평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광·남평·영암·강진·홍양·진도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능주·장흥·무안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해남은 1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익산·고산·김제·만경·부안·홍덕·무장·곡성·장흥·강진·낙안·홍양·법성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웬만큼 모가 부족한 곳 외에는 차례로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와
늦벼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와 기장·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그루갈이한 것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6. 1849년(철종 즉위) 6월 17일(양력 8월 5일)

全羅監司啓錄 4책(54b~55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91d~192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八日卯時, 始雨, 或霏或灑, 酉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 而初九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之雨, 南原·茂長·法聖等三邑鎮, 川渠漲滿, 雲峰, 得二犁, 珍山·龍潭, 得一犁, 礪山·臨陂·高敞等三邑, 得二鋤, 茂朱·長水·鎮安·益山·咸悅·扶安·古阜·興德·靈光·長城等十邑, 得一鋤, 高山·龍安·沃溝·萬頃·金溝·泰仁·井邑·任實·淳昌·谷城·順天等十一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已盡再除草, 早中晚<稻>畝間再除草, 木綿·黍粟幾盡再耘, 豆太和種間或<再>耘, 根耕次第初耘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8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고, 초9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의 비로 남원·무장·법성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운봉은 2려가 내렸고, 진산·용담은 1려가 내렸고, 여산·임피·고창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무주·장수·진안·익산·함열·부안·고부·홍덕·영광·장성 등 10개 고을에 1서가 내렸고, 고산·용안·옥구·만경·금구·태인·정읍·임실·순창·곡성·순천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중벼·늦벼 논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것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7. 1849년(철종 즉위) 6월 21일(양력 8월 9일)

全羅監司啓錄 4책(55a~5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92a~192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十七日申時始雨, 或霏或灑, 十八日戌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三分, 而間間霏微, 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七日八日之雨, 龍潭·泰仁, 川渠小漲, 茂朱·高山·金溝等三邑, 得二鋤, 金堤·礪山·珍山·長水·谷城·興德·靈光·等七邑, 得一鋤, 鎭安·任實·沃溝·咸悅·臨陂·萬頃·古阜等七邑, 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7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3푼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면서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18일의 비로 용담·태인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무주·고산·금구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김제·여산·진산·장수·곡성·홍덕·영광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안·임실·옥구·함열·임피·만경·고부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8. 1849년(철종 즉위) 6월 27일(양력 8월 15일)

全羅監司啓錄 4책(56a~56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92c~192d)

臣營下今月十八日戌時至, 得雨四寸三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日霏微不止, 二十二日卯時以後, 間間霑下, 二十七日辰時至, 測雨器水深, 又爲六寸三分, 而尙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七日八日之雨, 錦山·井邑, 得一犁, 羅州, 得二鋤, 靈巖·南平, 得一鋤, 玉果·綾州·咸平·海南·珍島等五邑, 浥塵, 二十二日三日之雨, 龍潭·珍山·金溝·金堤·扶安·高敞·長城·潭陽·昌平·南原·茂長·法聖·等十二邑鎮, 川渠大漲, 沙覆沈消之患, 間多有之, 任實·礪山·井邑·古阜等四邑, 得二犁, 雲峰·茂朱·高山·萬頃·靈光等<五邑>, 得一犁, 泰仁·興德·和順·咸平·靈巖·康津等六邑, 得二鋤, 益山·臨陂·淳昌·光州·務安·寶城·樂安等七邑, 得一鋤, 沃溝·咸悅·龍安·求禮·谷城·順天等六邑, 浥塵, 高山·沃溝·茂長·光州·和順·光陽·咸平·康津·珍島等九邑, 近因日候蒸濕, 蟬蟲熾蔓, 痒稼非細, 農形<段>, 付種早稻次第胚胎, 移種早稻間或三除草, 中晚稻方張再除草, 木綿開花, 黍粟胚胎, 豆太和種開花, 根耕再耘, 木麥播種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8일 술시까지 내린 비가 4치 3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일 부슬부슬 내리면서 그치지 않더니 22일 묘시 이후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7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6치 3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18일의 비로 금산·정읍은 1려가 내렸고, 나주는 2서가 내렸고, 영암·남평은 1서가 내렸고, 옥과·능주·함평·해남·진도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2일·23일의 비로 용담·진산·금구·김제·부안·고창·장성·담양·창평·남원·무장·법성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으며 모래로 뒤덮이고 물에 잠겨 녹는 근심이 그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임실·여산·정읍·고부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운봉·무주·고산·만경·영광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인·홍덕·화순·함평·영암·강진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익산·임피·순창·광주·무안·보성·낙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옥구·함열·용안·구례·곡성·순천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고산·옥구·무장·광주·화순·광양·함평·강진·진도 등 9개 고을

은 요즘 날씨가 찌는 듯이 무덥고 눅눅하며 매미가 세차게 번져 손상된 벼가 적지 않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과 올벼는 차례로 알을 배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혹 세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늦벼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는 꽃이 피고, 기장·조는 알을 배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것은 두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9. 1849년(철종 즉위) 7월 7일(양력 8월 24일)

全羅監司啓錄 4책(57b~58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93b~193c)

臣營下農形及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三日辰時又雨, 間間霪下, 初六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八寸七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四日·五日·六日·七日之雨, 礪山·益山·高山·珍山·鎭安·龍潭·茂朱·南原·雲峰·求禮·谷城·同福·淳昌·昌平·玉果·和順·南平·綾州·寶城·樂安·順天·光陽·羅州·咸平·靈光·茂長·高敞·興德·古阜·泰仁·金溝·萬頃·臨陂·等三十三邑, 川渠大漲, 原野汎濫, 汰覆沈消之患, 間多有之, 海南, 得二犁, 金堤·錦山·長水·靈巖·務安等五邑, 得一犁, 龍安·咸悅, 得二鋤, 沃溝·珍島, 得一鋤, 前啓中蟲〈損〉是白在, 高山等九邑外, 靈光·咸悅·臨陂·龍安·興德等五邑, 亦多蟲災, 痒稼非細, 農形段, 付種早稻發穗, 移種早稻胚胎, 中晚稻三除草, 木綿方張開花, 黍粟間或發穗, 豆太和種, 幾盡開花, 根耕次第三耘, 木麥方始立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3일 진시에 또 비가 내리면서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6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 7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25일·26일·27일의 비로 여산·익산·고산·진산·진안·용담·무주·남원·운봉·구례·곡성·동북·순창·창평·옥과·화순·남평·능주·보성·낙안·순천·광양·나주·함평·영광·무장·고창·홍덕·고부·태인·금구·만경·임피 등 3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나고 별판이 범람하고 사태로 뒤덮이고 물에 잠겨 논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해남은 2려가 내렸고, 김제·금산·장수·영암·무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용안·함열은 2서가 내렸고, 옥구·진도는 1서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벌레 재해는 고산등 9개 고을 외에 영광·함열·임피·용안·홍덕 등 5개 고을도 벌레 재해가 많고 손상된 벼가 적지 않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꽤고, 옮겨 심은 올벼는 알을 배고, 중벼·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있고, 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거의 다 꽃이 피었고, 그루같이한 것은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0. 1849년(철종 즉위) 7월 13일(양력 8월 27일)

全羅監司啓錄 4책(60b~61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94c~194d)

臣營下今月初六日酉時至, 得雨八寸七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初九日酉時以後, 間間霪下, 十二日酉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三寸七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三日·四日·五日·六日之雨, 益山·礪山·珍山·錦山·茂朱·龍潭·鎭安·長水·雲峰·南原·谷城·求禮·光陽·順天·寶城·興陽·靈巖·咸平·務安·綾州·南平·光州·和順·同福·昌平·玉果·淳昌·任實·泰仁·古阜·臨陂·金溝·法聖等三十三邑鎭, 川渠大漲, 原野汎濫, 汰覆沈消, 率多有之, 咸悅·井邑·羅州等三邑, 得三犁, 龍安·高敞·長城·茂長·靈光·康津·樂安·等七邑, 得一犁, 金堤·萬頃·興德·長興等四邑, 得二鋤, 高山·扶安·潭陽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6일 유시까지 내린 비가 8치 7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초9일 유시 이후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3치 7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4일·5일·6일의 비로 익산·여산·진산·금산·무주·용담·진안·장수·운봉·남원·곡성·구례·광양·순천·보성·홍양·영암·함평·무안·능주·남평·광주·화순·동북·참평·옥과·순창·임실·태인·고부·임피·금구·범성 등 33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나고 별판이 범람하였으며 사태로 뒤덮이고 물에 잠겨 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함열·정읍·나주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용안·고창·장성·무장·영광·강진·낙안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제·만경·홍덕·장흥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고산·부안·담양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1. 1849년(철종 즉위) 7월 17일(양력 9월 3일)

全羅監司啓錄 4책(62a~62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95c~195d)

臣營下今月十二日酉時至, 得雨三寸七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十四日酉時以後, 間間霏灑, 十六日酉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一寸三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九日十日十一日十二日之雨, 高山·益山·龍安·咸悅·金堤·扶安·臨陂·萬頃·泰仁·井邑·古阜·興德·高敞·長城·靈光·康津·務安·羅州·光州·昌平·玉果·谷城·求禮·雲峰·茂朱·龍潭·珍山·等二十七邑, 川渠大漲, 金溝·礪山·沃溝等三邑, 得二犁, 潭陽, 得一犁, 鎭安·南原·光陽·順天·寶城等五邑, 得一鋤, 農形段, 付種早稻發穗, 中晚稻胚胎, 木綿間或結顆, 黍粟幾盡發穗, 豆太和種與根耕次第開花, 木麥立苗向茁, 前啓中蟲損是白在, 高山等十四邑外, 長城·寶城, 亦多蟲災是如爲白乎所. 邇來雨水跨朔霽霽, 間又暴霖, 依山濱海處, 汰覆沈墊之患, 在在皆然, 而胚胎各穀, 痒損非細, 至於木綿, 顆房率多腐落, 被災諸邑, 迭相告悶, 言念穡事, 轉益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2일 유시까지 내린 비가 3치 7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4일 유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6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3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9일·10일·11일·12일의 비로 고산·익산·용안·함열·김제·부안·임피·만경·태인·정읍·고부·흥덕·고창·장성·영광·강진·무안·나주·광주·창평·옥과·곡성·구례·운봉·무주·용담·진산 등 2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금구·여산·옥구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담양은 1려가 내렸고, 진안·남원·광양·순천·보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알을 배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기장·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과 그루갈 이한 것이 차례로 꽃이 피고, 메밀은 싹이 돌아 자라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벌레 재해가 있는 고산 등 14개 고을 외에 장성·보성도 벌레 재해가 많다고 합니다. 요즈음 빗물이 한 달에 걸쳐 장마가 지고 그사이에 또 세차게 쏟아지니 산자락이나 바닷

가 지역은 사태로 뒤덮이고 물에 잠길 근심은 곳곳에서 다 그렇습니다. 알을 뺀 각종 곡식은 손상이 적지 않은데, 목화의 경우 다래와 꽃주머니가 대부분 씹어 떨어지니 재해를 입은 여러 고을은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농사를 생각하면 갈수록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 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2. 1849년(철종 즉위) 7월 27일(양력 9월 13일)

全羅監司啓錄 4책(64a~65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4책(196c~196d)

道內農形及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一日申時又雨, 間間霏灑, 二十六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四日五日六日之雨, 淳昌·古阜·靈光·靈巖等四邑, 川渠漲滿, 興德, 得一犁, 茂朱·求禮·金堤·順天等四邑, 得一鋤, 二十二日·三日·四日之雨, 靈巖, 得二犁, 礪山·淳昌·靈光·咸平等四邑, 得一犁, 錦山·昌平·茂長·法聖等四邑鎮, 得二鋤, 金溝·益山·龍安·沃溝·臨陂·萬頃·金堤·興德·長城·玉果·光州·樂安·求禮·谷城·雲峰·長水·任實·珍山等〈十〉八邑, 得一鋤, 井邑·古阜·泰仁·潭陽·南原·鎮安等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幾盡向熟, 移種早稻入實, 中晚稻發穗, 木綿次第結顆, 黍粟間或向熟, 豆太和種與根耕方張結殼, 木麥茁茂.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1일 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6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15일·16일의 비로, 순창·고부·영광·영암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덕은 1려가 내렸고, 무주·구례·김제·순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2일·23일·24일의 비로 영암은 2려가 내렸고, 여산·순천·영광·함평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산·창평·무장·법성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2서가 내렸고, 금구·익산·용안·옥구·임피·만경·김제·홍덕·장성·옥과·광주·낙안·구례·곡성·운봉·장수·임실·진산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정읍·고부·태인·담양·남원·진안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거의 다 익어가고, 옮겨 심은 올벼는 알이 들고, 중벼·늦벼는 이삭이 패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고, 기장·조는 간혹 익어가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과 그루같이한 것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메밀은 싹이 무성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3. 1854년(철종 5) 2월 24일(양력 3월 22일)

全羅監司啓錄 5책(7b~7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01a~201b)

臣營下, 今月二十三日丑時始雨, 間間霏灑, 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三分, 而載暘, 二十四日辰時, 仍爲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3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으며, 언뜻 별이 나더니 24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4. 1854년(철종 5) 2월 29일(양력 3월 27일)

全羅監司啓錄 5책(7b~8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01b~201b)

臣營下, 今月二十三日得雨三分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綾州, 得二鋤, 順天·樂安·寶城·康津·長興·務安·咸平·南平等八邑, 得一鋤, 錦山·珍山·高山·益山·金溝·泰仁·淳昌·任實·谷城·求禮等十邑, 浥塵. 農形段, 早稻畚間或初翻耕, 兩麥方始敷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3일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능주는 2서가 내렸고, 순천·낙안·보성·강진·장흥·무안·함평·남평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산·진산·고산·익산·금구·태인·순창·임실·곡성·구례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막 푸르름을 더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5. 1854년(철종 5) 3월 9일(양력 4월 6일)

全羅監司啓錄 5책(8b~8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01b~201c)

臣以春耕看審事，發巡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自全州，歷金堤·扶安·茂長·靈光·羅州·長城·泰仁·金溝等八邑，今月初九日還營，而所經田野，一一看審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兩麥漸次敷青，早稻畚間間初翻耕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는 봄갈이를 살펴볼 일로 순시를 출발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전주에서 김제·부안·무장·영광·나주·장성·태인·금구 등 8개 고을을 거쳐 이번 달 초9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는 곳의 밭과 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름을 더하고,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6. 1854년(철종 5) 3월 19일(양력 4월 16일)

全羅監司啓錄 5책(10b~11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02c~202c)

臣以春耕看審事，更發左巡。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自全州，歷淳昌·潭陽·光州·和順·同福·谷城·南原等七邑，今月十九日還營，而所經田野，一一看審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早稻畝方張初翻耕，中晚稻畝間或初翻耕，兩麥漸次向青是如爲白乎事。

제가 봄갈이를 살펴볼 일로 다시 출발하여 좌도를 순시한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전주에서 순창·담양·광주·화순·동북·곡성·남원 등 7개 고을을 거쳐 이번 달 19일 감영으로 돌아왔는데 지나는 밭과 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0057. 1854년(철종 5) 3월 29일(양력 4월 26일)

全羅監司啓錄 5책(17b~18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05d~205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畚幾訖初翻耕, 中晚稻畚間間初翻耕, 秧板方始注種, 兩麥漸次向茂. 今月二十二日之雨, 羅州, 得一鋤, 南平·光州·和順·綾州·南原·求禮·光陽·順天·樂安·寶城·興陽等十一邑, 浥塵, 二十五日六日之雨, 珍山·茂朱, 得一鋤, 咸悅·益山·礪山·高山·錦山·龍潭·鎭安·長水·任實·淳昌·金溝等十一邑, 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거의 초벌 갈아엎기를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못자리는 막 물을 대서 범씨를 뿌리고, 보리와 밀은 점차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의 비로 나주는 1서가 내렸고, 남평·광주·화순·능주·남원·구례·광양·순천·낙안·보성·홍양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5일·26일의 비로 진산·무주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함열·익산·여산·고산·금산·용담·진안·장수·임실·순창·금구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8. 1854년(철종 5) 4월 9일(양력 5월 5일)

全羅監司啓錄 5책(25a~2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09a~209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方始耕播, 早稻畚, 間或再翻耕, 中晚稻畚, 幾訖初翻耕, 秧板, 有水根處, 次第注種, 木綿·黍粟, 間間耕播, 大麥, 胚胎, 小麥, 向茂, 而近旱太甚, 不得善就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초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못자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은 차례로 물을 대서 벼씨를 뿌리고, 목화와 기장·조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뭄이 매우 심해서 잘 여물 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9. 1854년(철종 5) 4월 13일(양력 5월 9일)

全羅監司啓錄 5책(25b~26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09b~209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六日七日之雨, 珍島, 得一犁, 羅州, 得二鋤, 興德·咸平·務安·靈巖·海南·長興·綾州·南平·光州等九邑, 得一鋤, 金溝·益山·泰仁·井邑·高敞·茂長·扶安·古阜·靈光·長城·淳昌·潭陽·玉果·南原·求禮·谷城·同福·昌平·和順·寶城·興陽·樂安·順天·光陽·法聖等二十五邑·鎭, 沍塵是如爲白遣. 臣營下, 今月十二日申時始雨, 或霏或灑, 十三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 而姑未開霽是白乎所. 久閤之餘, 甘▼{1+封}[澍]伊始, 繼而優洽, 方切顙祝. 緣由竝以爲先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7일의 비로 진도는 1려가 내렸고, 나주는 2서가 내렸고, 흥덕·함평·무안·영암·해남·장흥·능주·남평·광주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구·익산·태인·정읍·고창·무장·부안·고부·영광·장성·순창·담양·옥과·남원·구례·곡성·동북·창평·화순·보성·홍양·낙안·순천·광양·법성 등 25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2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어서 넉넉히 적셔주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60. 1854년(철종 5) 4월 17일(양력 5월 13일)

全羅監司啓錄 5책(29a~29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1a~211b)

臣營下, 今月十三日巳時至, 得雨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十五日申時, 間間霏灑, 十六日辰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三寸, 而十七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今月十二日·三日之雨, 高山·龍潭·同福等三邑, 川渠漲滿, 錦山·茂朱·羅州·光陽等四邑, 得一犁, 金溝·金堤·古阜·興德·淳昌·求禮·和順·光州·南平·咸平等十邑, 得二鋤, 泰仁·益山·珍山·咸悅·鎮安·興陽·法聖等二十三邑·鎮, 得一鋤, 礪山·龍安·沃溝·臨陂·萬頃·扶安·任實等七邑, 浥塵, 十五日·六日之雨, 金溝得二犁, 泰仁·井邑, 得一犁, 益山, 得二鋤, 咸悅·礪山·萬頃·扶安·金堤·任實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3일 사시까지 내린 비의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5일 신시에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6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3치였으며 17일 진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13일의 비로 고산·용담·동북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산·무주·나주·광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구·김제·고부·홍덕·순창·구례·화순·광주·남평·함평 등 10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태인·익산·진산·함열·진안·장수·운봉·남원·곡성·옥과·창평·담양·장성·정읍·고창·무장·영광·능주·순천·보성·낙안·홍양·법성 등 23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여산·용안·옥구·임피·만경·부안·임실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15일·16일의 비로 금구는 2려가 내렸고, 태인·정읍은 1려가 내렸고, 익산은 2서가 내렸고, 함열·여산·만경·부안·김제·임실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1. 1854년(철종 5) 4월 19일(양력 5월 15일)

全羅監司啓錄 5책(30a~30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1c~211d)

臣營下, 今月十六日辰時至, 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二日三日之雨, 海南, 得一犁, 康津·靈巖, 得二鋤, 長興·務安, 得一鋤, 十五日·六日之雨, 高山·珍山·錦山·茂朱·龍潭·古阜等六邑, 川渠漲滿, 雲峰·昌平·玉果·淳昌·興德等五邑, 得一犁, 長水·潭陽·光州等三邑, 得二鋤, 高敞·南原·南平·寶城等四邑, 得一鋤, 臨陂·沃溝·龍安·求禮等四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幾盡耕播, 早稻畝次第再翻耕, 中晚稻畝, 已訖初翻耕, 秧板方張注種, 木綿·黍粟, 耕播垂畢, 大麥發穗, 小麥胚胎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6일 진시까지 내린 비의 경위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13일의 비로 해남은 1려가 내렸고, 강진·영암은 2서가 내렸고, 장흥·부안은 1서가 내렸고, 15일·16일의 비로 고산·진산·금산·무주·용담·고부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운봉·창평·옥과·순창·홍덕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수·담양·광주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고창·남원·남평·보성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피·옥구·용안·구례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논은 거의 다 땅을 갈고 벼씨를 뿌렸고, 올벼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초벌 갈아엎기를 이미 마쳤고, 못자리는 한창 물을 대서 벼씨를 뿌리고 있고, 목화와 기장·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보리는 이삭이 패고, 밀은 알을 뻗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2. 1854년(철종 5) 4월 24일(양력 5월 20일)

全羅監司啓錄 5책(31b~32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2b~212c)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二日巳時始雨, 間間霏灑, 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分, 而二十三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五日·六日之雨, 長城, 川渠漲滿, 咸平·務安, 得一犁, 茂長·靈光·羅州·靈巖·綾州·順天·光陽·法聖等八邑·鎭, 得一鋤, 興陽, 浥塵, 二十二日之雨, 井邑, 得一鋤, 鎭安·任實·南原·淳昌·金溝·泰仁·金堤·益山·礪山·咸悅等十邑, 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2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으며 23일 진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16일의 비로 장성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함평·무안은 1려가 내렸고, 무장·영광·나주·영암·능주·순천·광양·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홍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2일의 비로 정읍은 1서가 내렸고, 진안·임실·남원·순창·금구·태인·김제·익산·여산·함열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3. 1854년(철종 5) 4월 29일(양력 5월 25일)

全羅監司啓錄 5책(33b~33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3a~213b)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日之雨, 茂朱·羅州·務安·靈巖·康津·長興等六邑, 得一鋤, 珍山·雲峰·求禮·玉果·昌平·光州·南平·綾州·寶城·海南·咸平·茂長·古阜·法聖等十四邑·鎭, 浥塵, 二十四日五日之雨, 南原·井邑·長城·靈光·務安·咸平·羅州·光州·綾州·南平·和順·同福·光陽·長興等十四邑, 得一鋤, 任實·長水·雲峰·求禮·樂安·順天·寶城·昌平·潭陽·淳昌·泰仁·高敞等十二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已盡耕播, 早稻畚幾訖再翻耕, 中晚稻畚方始再翻耕, 秧板注種垂畢, 木綿·黍粟, 間或立苗, 大麥入實, 小麥發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의 비로 무주·나주·무안·영암·강진·장흥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산·운봉·구례·옥과·창평·광주·남평·능주·보성·해남·함평·무장·고부·범성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4일·25일의 비로 남원·정읍·장성·영광·부안·함평·나주·광주·능주·남평·화순·동복·광양·장흥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실·장수·운봉·구례·낙안·순천·보성·창평·담양·순창·태인·고창 등 1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막 두벌 갈아엎기 시작하였고, 못자리는 물을 대서 벼씨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와 기장·조는 간혹 싹이 돋고, 보리는 알이 들고, 밀은 이삭이 뽕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4. 1854년(철종 5) 5월 9일(양력 6월 4일)

全羅監司啓錄 5책(36a~36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4c~214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及秧板, 方始立苗, 早稻〈畚〉, 尙已訖再翻耕, 中晚稻畚次第再翻耕, 木綿·黍粟方張立苗, 大麥向熟, 小麥入實是如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막 싹이 돋기 시작했고, 올벼 논은 오히려 이미 두벌 갈아엎기를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보리는 익어가고, 밀은 알이 든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65. 1854년(철종 5) 5월 19일(양력 6월 14일)

全羅監司啓錄 5책(37a~37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5a~215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及秧板, 立苗向青, 早稻畚, 間間三翻耕, 中晚稻畚, 幾訖再翻耕, 木綿·黍粟已盡立苗, 和種豆太方始播種, 大麥, 間或刈取, 小麥, 次第向熟. 而近早跨朔, 在在惜乾, 立苗各種, 不得善就是如爲白乎所. 際此一霈, 方切願祝.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싹이 돋아 푸르러지고, 올벼 논은 간간이 세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와 기장·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섞어 짓는 콩·팥은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밀은 차례로 익어갑니다. 요즘 한 달에 걸쳐 가물어 곳곳에서 가뭄을 걱정하며 싹이 터 각종 곡식은 잘 여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즈음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66. 1854년(철종 5) 5월 29일(양력 6월 24일)

全羅監司啓錄 5책(40a~40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6c~216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畚, 間或初除草, 秧苗漸茁, 早稻畚, 有水根處, 方始移秧, 中晚稻畚, 已訖再翻耕, 木綿·黍粟初耘, 和種豆太立苗, 兩麥次第刈取. 臣營下, 今月二十八日丑時始雨, 或霏或灑, 戌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 而姑未開霽是白乎所. 渴望之餘, 甘澍伊始, 繼而優洽, 方切顙祝.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범씨를 뿌린 논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모는 점차 싹이 자라고, 올벼논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은 막 모내기를 시작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이미 마쳤고, 목화와 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 짓는 콩·팥은 싹이 돋고, 보리와 밀은 차례로 베어서 거둡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8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으며 아직 개이지 않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어서 넉넉히 적셔주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7. 1854년(철종 5) 6월 4일(양력 6월 28일)

全羅監司啓錄 5책(44a~44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8c~218d)

臣營下, 去月二十八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九日辰時以後, 間間霏灑, 今月初三日酉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三分, 而陰雲四布, 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錦山·龍潭·南原·淳昌等四邑, 川渠少漲, 長城, 得二犁, 礪山·龍安·咸悅·金溝·泰仁·務安·羅州·玉果·同福·任實·鎭安·長水·茂朱等十三邑, 得一犁, 高山·珍山·益山·金堤·古阜·咸平·潭陽·雲峯等八邑, 得二鋤, 萬頃·興德·靈光·井邑·靈巖·康津·南平·和順·綾州·寶城·順天·光陽等十二邑, 得一鋤, 臨陂·沃溝·扶安·茂長·高敞·光州·昌平·谷城·求禮·樂安·長興·法聖等十二邑·鎭, 浥塵. 前啓中, 祈雨<祭>是白在, 礪山一邑外, 龍安·求禮·雲峯·寶城等四邑, 亦已設行, 而礪山·龍安得雨之後, 姑爲停止是如, 報來是白乎所. 見今夏至已過, 移秧政急, 而連日之雨, 終未周洽, 繼此一霽, 益切顙祝.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지난달 28일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9일 진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초3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3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사방에 퍼져 아직 개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금산·용담·남원·순창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장성은 2려가 내렸고, 여산·용안·함열·금구·태인·무안·나주·옥과·동북·임실·진안·장수·무주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고산·진산·익산·김제·고부·함평·담양·운봉 등 8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만경·홍덕·영광·정읍·영암·강진·남평·화순·능주·보성·순천·광양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피·옥구·부안·무장·고창·광주·창평·곡성·구례·낙안·장흥·법성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여산 한 고을 외에 용안·구례·운봉·보성 등 4개 고을도 이미 기우제를 시행하였고, 여산·용안은 비가 내린 후 일단 중지하였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현재 하지가 이미 지났으니 모내기 정책이 다급한데 연일 비는 끝내 두루 적시지 못하니 계속 이렇게 한차례 퍼붓기를 더욱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8. 1854년(철종 5) 6월 6일(양력 6월 30일)

全羅監司啓錄 5책(44b~45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18d~219a)

臣營下, 今月初三日酉時至, 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五日辰時, 間間霏灑, 戌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一寸八分, 而陰雲四低, 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海南·興陽, 浥塵, 今月初一日二日三日之雨, 雲峯, 得一犁, 珍山·茂朱·谷城·光州·綾州等五邑, 得二鋤, 任實·南原·龍潭·長水·興德·靈巖·光陽等七邑, 得一鋤, 金溝·金堤·井邑·咸平·鎮安等五邑, 浥塵. 前啓中, 祈雨<祭>是白在, 寶城等三邑外, 樂安亦已設行, 而雲峰得雨之後, 姑爲停止是如爲白乎所. 見今小暑在邇, 秧節向晚, 昨日之雨, 遠近諸邑, 果皆均洽是白乎喻, 所得多寡,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3일 유시까지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5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8푼이었으며, 먹구름 사방에 깔려 아직 개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해남·홍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이번 달 초1일·2일·3일의 비로 운봉은 1려가 내렸고, 진산·무주·곡성·광주·능주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임실·남원·용담·장수·홍덕·영암·광양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구·김제·정읍·함평·진안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보성 등 3개 고을 외에 낙안도 기우제를 이미 시행하였고, 운봉은 비가 내린 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소서가 가까우니 모내기철이 늦어가는데 어제 비로 멀고 가까운 여러 고을이 정말로 다 고르게 적셨습니다. 내린 것의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9. 1854년(철종 5) 6월 9일(양력 7월 3일)

全羅監司啓錄 5책(52a~52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2a~222b)

臣營下, 今月初五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六日辰時以後, 載陰載陽, 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日六日之雨, 高山·錦山·茂朱·龍潭·鎭安·雲峯·求禮·同福·淳昌等九邑, 川渠少漲, 井邑·長城·古阜·高敞·綾州·等五邑, 得一犁, 礪山·金溝·泰仁·務安·昌平·和順·長水等七邑, 得二鋤, 珍山·益山·咸悅·臨陂·沃溝·金堤·扶安·興德·茂長·靈光·羅州·長興·潭陽·任實·南原·法聖等十六邑·鎭, 得一鋤, 萬頃·龍安·玉果·樂安等四邑, 浥塵. 前啓中, 祈雨是白在, 寶城等三邑外, 靈光亦已設行, 而求禮得雨停止. 農形段, 付種段, 方張初除草, 早稻畚, 幾訖移插, 中晚稻〈畚〉, 次第移秧, 木綿·黍粟, 初耘垂畢, 豆太和種, 立苗, 根耕和種, 兩麥, 已盡刈取是如爲白乎所. 見今小暑只隔, 秧節已晚, 而山郡峽邑, 幸俱優渥, 沿野諸處, 尙未周洽, 言念民事, 誠甚渴悶. 際此一霽, 益切顯祝.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5일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6일 진시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는데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고산·금산·무주·용담·진안·운봉·구례·동북·순창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정읍·장성·고부·고창·능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여산·금구·태인·무안·장수·창평·화순 등 7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진산·익산·함열·임피·옥구·김제·부안·홍덕·무장·영광·나주·장흥·담양·임실·남원·법성 등 1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만경·용안·옥과·낙안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보성 등 3개 고을 외에 영광도 이미 시행하였으나 구례는 비가 내려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 논은 옮겨 심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모내기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짝이 돌고, 그루같이하거나 섞어 짓는 보리와 밀은 이미 다 베어서 거뭇다고 합니다. 현재 소서가 단지 하루 뒤이니 모내기철이 이미 늦었는데 산골의 고을은 다행히 모두 넉넉히 비가 내렸으나 연안이나 들판의

여러 곳은 아직 두루 적시지 못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매우 간절합니다. 이즈음에 한차례 퍼붓기를 더욱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0. 1854년(철종 5) 6월 13일(양력 7월 7일)

全羅監司啓錄 5책(54b~55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3b~223c)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日之雨, 光州·南平·靈巖·海南·康津·光陽等六邑, 得一鋤, 寶城, 浥塵, 初七日八日九日之雨, 務安·康津·海南等三邑, 得一犁, 長水·寶城·長興等三邑, 得二鋤, 茂朱·沃溝·光州·羅州·靈巖等五邑, 得一鋤, 樂安·綾州·咸平等三邑, 浥塵. 前啓中, 祈雨是白在, 寶城等三邑外, 靈巖·珍島·長興, 亦已設行, 而寶城·長興, 得雨停止是如爲白遣. 臣營下, 今月十二日寅時始雨, 間間霏灑, 戌時至, 測雨器水深, 爲四寸六分, 而陰雲四低, 姑未開霽是白乎所. 渴望之餘, 得此漫渥[優渥], 民事誠爲萬幸, 悶旱諸邑, 亦可均洽是白乎喻,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의 비로 광주·남평·영암·해남·강진·광양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보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초7일·8일·9일의 비로 무안·강진·해남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수·보성·장흥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무주·옥구·광주·나주·영암 등 5개 고을에 1서가 내렸고, 낙안·능주·함평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보성 등 3개 고을 외에 영암·진도·장흥 등 3개 고을도 이미 시행하였고, 보성·장흥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2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6푼이었으며,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서 아직 개이지 않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넉넉하게 적서 백성들의 사정으로는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가뭄을 걱정하던 여러 고을도 고르게 적실만합니다.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1. 1854년(철종 5) 6월 16일(양력 7월 10일)

全羅監司啓錄 5책(55a~5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3c~223d)

臣營下, 今月十二日得雨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十三日以後, 間間霏微, 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八日九日之雨, 和順, 得二鋤, 綾州, 得一鋤, 興陽, 浥塵, 十二日之雨, 益山·礪山·高山·珍山·錦山·茂朱·龍潭·鎭安·長水·雲峯·求禮·谷城·南原·任實·淳昌·玉果·昌平·潭陽·光州·綾州·南平·羅州·務安·咸平·靈光·長城·井邑·泰仁·金溝·古阜·高敞·扶安·金堤·咸悅等三十四邑, 川渠大漲, 原野汎濫, 依山傍洑之地, 沙覆沈墊之患, 間多有之, 沃溝·萬頃·臨陂·法聖等四邑·鎭, 得一犁, 龍安, 得二鋤. 前啓中, 祈雨是白在, 靈巖等四邑外, 興陽亦已設行, 而靈光得雨停止是如爲白乎所. 今以已報之近四十邑·鎭見之, 跨朔渴望之餘, 得此優洽之澤, 言念民事, 誠爲萬幸. 見今小暑已過, 秧節太晚, 移插之節, 另加董飭, 斯速畢移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6월 12일 내린 비의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3일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면서 아직 개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9일의 비로 화순은 2서가 내렸고, 능주는 1서가 내렸고, 홍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12일의 비로 익산·여산·고산·진산·금산·무주·용담·진안·장수·운봉·구례·곡성·남원·임실·순창·옥과·창평·담양·광주·능주·남평·나주·무안·함평·영광·장성·정읍·태인·금구·고부·고창·부안·김제·함열 등 3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별관은 범람하여 산자락이나 보 가의 땅은 모래로 뒤덮이고 물에 잠길 근심이 그사이에 많이 있으며, 옥구·만경·임피·범성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용안은 2서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영암 등 4개 고을 외에 홍양도 이미 시행하였고, 영광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보고한 가까운 40개 고을과 군영으로 보자면 한 달에 걸쳐 애타게 바란 끝에 이렇게 넉넉하게 적셔주는 비가 내렸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현재 소서가 이미 지나 모내기철이 많이 늦었으니 옮겨 심는 사항은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여 어서 빨리 마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2. 1854년(철종 5) 6월 19일(양력 7월 13일)

全羅監司啓錄 5책(55b~56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3d~224b)

道內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六日戌時又雨, 間間霑灑, 十八日酉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而尙此霏微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八日之雨, 興德·同福·和順·長興等四邑, 川渠大漲, 急流所觸, 沙覆汰覆, 間多有之, 靈巖·珍島, 得二犁, 興陽·康津·海南等三邑, 得一犁, 光陽·順天·樂安·寶城等五邑, 得二鋤, 十六日七日八日之雨, 益山·高山, 川渠漲滿, 金溝, 得二犁, 鎭安·古阜, 得一犁, 礪山·扶安·泰仁·井邑等四邑, 得一鋤, 萬頃·任實·南原等三邑, 浥塵. 前啓中, 祈雨是白在, 靈巖等四邑, 竝爲停止. 農形段, 付種畚, 間或再除草, 早稻畚, 已盡移插, 中晚稻畚, 方張移秧, 木綿·黍粟, 間或再耘, 豆太和種, 初耘, 根耕, 立苗是如爲白乎所. 今番雨澤, 節序雖晚, 全省均洽, 雩禮, 各邑亦皆告停, 民事萬幸, 着意董飭, 不日畢移之意, 連加申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6일 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8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으며, 아직 이렇게 약한 부슬비가 내립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8일의 비로 홍덕·동북·화순·장흥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나서 급류에 부딪혀 사태로 뒤덮인 곳이 그사이에 많이 있고, 영암·진도는 2려가 내렸고, 홍양·강진·해남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양·순천·낙안·보성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16일·17일·18일의 비로 익산·고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는 2려가 내렸고, 진안·고부는 1려가 내렸고, 여산·부안·태인·정읍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만경·임실·남원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영암 등 4개 고을은 모두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 논은 이미 다 옮겨 심었고, 중벼·늦벼 논은 한창 모내기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은 초벌 김매기하고, 그루갈이를 한 것은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번 우택의 경우 절기는 비록 늦었지만 전라도 전체를 고르게 적셔 기우제를 각

고을 또한 다 중지한다고 알리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신경을 써서 단단히 지시하여 하루빨리 옮겨심기를 마치라는 뜻으로 연이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3. 1854년(철종 5) 6월 25일(양력 7월 19일)

全羅監司啓錄 5책(56a~57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4b~224c)

臣營下, 去月二十九日午時至, 得雨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酉時, 間間霏灑, 今月初一日午時至, 測雨器水深, 又爲六寸一分, 而載陰載陽, 初二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六日七日之雨, 珍山·錦山·龍潭·長水·龍安·臨陂·沃溝·泰仁·古阜·興德·靈光·咸平·務安·玉果等十四邑, 川渠大漲, 羅州·靈巖, 得一犁, 求禮, 得二鋤, 順天·寶城, 得一鋤, 二十九日三十日, 今月初一日之雨, 錦山·高山·益山·礪山·咸悅·臨陂·沃溝·萬頃·扶安·金溝·泰仁·古阜·井邑·長城·靈光·高敞·淳昌·南原·任實·鎮安·長水等二十一邑, 川渠大漲. 而跨朔長霖, 屢次暴注, 舊漲新潦, 間日相仍, 沙覆沈消之患, 在在皆然是如, 前後被水諸邑, 一辭告悶. 全州段, 去月二十七日之雨, 人命淹死爲一名, 而屍體拯得, 二十九日三十日雨, 府〈西〉四面, 全家漂淹, 爲六十九戶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지난달 29일 오시까지 내린 비의 양을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1푼이었으며,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초2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27일의 비로 진산·금산·용담·장수·용안·임피·옥구·태인·고부·홍덕·영광·함평·무안·옥과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나주·영암은 1려가 내렸고, 구례는 2서가 내렸고, 순천·보성은 1서가 내렸으며, 29일·30일과 이번 달 초1일의 비로 금산·고산·익산·여산·함열·임피·옥구·만경·부안·금구·태인·고부·정읍·장성·영광·고창·순창·남원·임실·진안·장수 등 2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걸친 장마에 여러 차례 갑자기 쏟아지고 이전에 불어난데다 새로 큰비가 하루건너 이어지니 모래에 뒤덮이고 물에 잠기는 근심은 곳곳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해를 입은 여러 고을이 똑같은 말로 걱정을 알립니다. 전주는 지난달 27일의 비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건졌으며, 29일·30일의 비로 전주부 서쪽 4개 면은 온 가족이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 죽은 것이 69가구라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4. 1854년(철종 5) 7월 7일(양력 7월 31일)

全羅監司啓錄 5책(57a~58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4d~225a)

臣營下, 今月初一日午時至, 得雨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初四日申時, 間間霏灑, 初五日酉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三寸四分, 而載陰載陽, 初六日午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三十日今月初一日之雨, 金堤·龍安·珍山·茂朱·龍潭·雲峯·求禮·光陽·順天·樂安·興陽·寶城·康津·海南·靈巖·羅州·務安·咸平·茂長·興德·潭陽·光州·南平·綾州·和順·同福·昌平·玉果·谷城·法聖等三十邑·鎮, 川渠大漲, 初四日五日之雨, 任實·南原·鎭安·高山·益山·金堤·金溝·古阜等八邑, 川渠大漲, 礪山, 得二犁, 萬頃·泰仁·井邑等三邑, 得二鋤. 而今夏雨水, 挽近罕有, 三朔霏霽, 間又急暴, 川沙汰落, 沈墊消融之患, 到處同然, 田種則鋤役久愆, 亦未善就是如, 被水諸邑, 一辭告悶. 去月三十日之雨, 金溝段, 全家漂頽爲十二戶, 井邑段, 全家漂頽爲十六戶, 人命渰死爲一名, 而屍體拯得, 長城段, 全家漂頽爲一百十六戶, 人命渰壓死爲十九名, 而一名屍體未拯, 其餘竝爲搜拯是如爲白乎所.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1일 오시까지 내린 비의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4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5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3치 4푼이었으며,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더니 초6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6월 29일·30일·이번 달 초1일의 비로 김제·용안·진산·무주·용담·운봉·구례·광양·순천·낙안·홍양·보성·강진·해남·영암·나주·무안·함평·무장·홍덕·담양·광주·남평·능주·화순·동북·창평·옥과·곡성·법성 등 30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초4일·5일의 비로 임실·남원·진안·고산·익산·김제·금구·고부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여산은 2려가 내렸고, 만경·태인·정읍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여름 빗물은 최근에 드물게 있는 일인데 3달간 장마에 그사이에 또 갑자기 쏟아지니 시내는 사태로 떨어져 나가고 물에 잠기고 녹는 근심은 이르는 곳마다 같습니다. 밭곡식은 김매기가 오래 늦어지니 또한 잘 여물지 못할 것이라고 수해를 입은 여러 고을이 똑같은 말로 걱정을 알립니다. 지난달 30일의 비로 금구는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2가

구이며, 정읍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6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이며 시체는 건졌고, 장성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16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9명인데 1명은 시체를 건지지 못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뒤져서 건졌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5. 1854년(철종 5) 7월 9일(양력 8월 2일)

全羅監司啓錄 5책(59a~59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5d~226a)

道內水災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之雨, 長興·珍島, 川渠大漲, 今月初四日五日之雨, 珍島·錦山·茂朱·長城·羅州·務安·咸平·南平·綾州·光州·潭陽·昌平·玉果·求禮等十四邑, 川渠大漲, 靈光, 得二犁, 龍潭·茂長·法聖等三邑·鎭, 得一犁, 長水·龍安·興德等三邑, 得二鋤, 扶安·淳昌·順天等三邑, 得一鋤. 而被水諸邑, 浦落沈消之患, 與前報一般是白遣. 農形段, 付種畚, 幾盡再除草, 中<晚>稻畚, 方張初除草, 晚稻畚, 間間初除草, 木綿·黍粟, 幾訖再耘, 和種豆太再耘, 根耕豆太初耘. 嗣後形止, 待列邑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수해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장흥·진도는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이번 달 초4일·5일의 비로 진도·금산·무주·장성·나주·무안·함평·남평·능주·광주·담양·창평·옥과·구례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영광은 2려가 내렸고, 용담·무장·법성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장수·용안·홍덕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부안·순창·순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수해를 입은 여러 고을은 무너져 떨어지고 물에 잠겨 녹는 근심은 앞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 논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섞어 짓는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 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6. 1854년(철종 5) 7월 13일(양력 8월 6일)

全羅監司啓錄 5책(59b~60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6a~226c)

道內水災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四日五日之雨, 寶城·長興·康津·珍島等四邑, 川渠大漲, 光陽·興陽, 得二犁, 樂安, 得一鋤. 去月二十九日三十日之雨, 樂安, 全家漂頽爲十九戶, 渰死爲一名, 羅州, 前報之外, 全家漂頽爲五十四戶, 渰死爲十五名, 全州, 前報之外, 全家漂頽爲二百二十九戶, 光州, 全家漂頽爲四十一戶, 渰壓死爲五名, 潭陽, 全家漂頽爲六十九戶. 而今番屢次大水, 實是挽近罕見, 非但田畝汰落之到處皆然, 往往陵谷變遷, 甚至民戶漂渰之若是數多, 民情穢事, 俱極悶然, 而躬審摘奸之際, 修報自爾遲滯是如爲白乎所.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수해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5일의 비로 보성·장흥·강진·진도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광양·홍양은 2려가 내렸고, 낙안은 1서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30일의 비로 낙안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9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이며, 나주는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54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5명이며, 전주는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229가구이고, 광주는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41가구이고 물에 빠지거나 깔려 죽은 사람이 5명이며, 담양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69가구입니다. 이번에 여러 차례의 큰물은 정말로 최근에 보기 드문 일로 논밭이 사태로 떨어져 나간 것은 이르는 곳마다 다 그럴 뿐만 아니라 종종 언덕이 골짜기로 변하고 심지어 집이 떠내려가고 백성이 물에 빠져 죽은 수효가 이처럼 많습니다.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는 모두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몸소 살피고 캐볼 즈음에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 자연히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7. 1854년(철종 5) 7월 16일(양력 8월 9일)

全羅監司啓錄 5책(61a~61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6d~227a)

道內水災形止, 前已連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之雨, 務安, 全家漂頽爲四十三戶, 光陽, 全家漂頽爲十七戶, 人命淹死爲一名, 而屍體拯得, 今月初五日之雨, 長城, 人命淹死爲二名, 而屍體拯得是如爲白遣. 臣營下, 今月十五日丑時始雨, 一直暴霖, 申時至, 測雨器水深, 爲九寸三分, 而載陰載陽, 十六日巳時, 仍爲開霽是白乎所. 極備之雨, 到處爲災, 田畝受傷之外, 人命淹死, 人民[民戶]漂頽之報, 今又踵至, 尤不勝萬萬驚慘. 嗣後形止, 待列邑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爲先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수해 경위는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무안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43가구이고, 광양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7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건졌으며, 이번 달 초5일의 비로 장성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인데 시체는 건졌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5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쏟아지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치 3푼이었으며,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6일 사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그지없이 많은 비로 곳곳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논밭이 수해를 입은 것 외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민가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보고가 지금 또 뒤따라서 더욱 매우 놀랍고 참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0078. 1854년(철종 5) 7월 19일(양력 8월 12일)

全羅監司啓錄 5책(61b~62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7a~227b)

道內水災形止, 前已連續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七日辰時始雨, 間間霏灑, 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分, 而尙此霏微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五日之雨, 任實·鎮安·長水·雲峯·求禮·谷城·綾州·昌平·玉果·潭陽·靈光·淳昌·南原·高敞·興德·古阜·井邑·泰仁·金堤·扶安·臨陂·沃溝·咸悅·龍安·益山·礪山·金溝·高山·珍山·錦山·茂朱等三十一邑, 川渠大漲, 務安, 得二犁, 同福·光州·咸平·寶城·萬頃等五邑, 得一犁, 而急流之處, 益致汰落, 汗陷之坪, 又值沈墊. 農形段, 付種早稻, 方始胚胎, 移種早稻, 間或再除草, 中晚稻, 方張初除草, 木綿·黍粟, 已訖再耘, 和種豆太興根耕豆太, 次第再耘, 木麥耕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수해 경위는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7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으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립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의 비로 임실·진안·장수·운봉·구례·곡성·능주·창평·옥파·담양·영광·순창·남원·고창·홍덕·고부·정읍·태인·김제·부안·임피·옥구·함열·용안·익산·여산·금구·고산·진산·금산·무주 등 3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무안은 2려가 내렸고, 동북·광주·함평·보성·만경 등 5개 고을에 1려가 내렸습니다. 급류가 흐르는 곳은 더욱 사태로 떨어져 나가고 질펀하고 우묵한 들은 또 물에 잠겼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늦벼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와 기장·조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섞어 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9. 1854년(철종 5) 7월 22일(양력 8월 15일)

全羅監司啓錄 5책(62b~63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27d~228a)

臣營下, 今月十七日得雨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十九日申時, 間間霏灑, 二十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三寸一分, 而陰雲不散, 尙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五日之雨, 龍潭·長城·茂長·興陽·法聖等五邑·鎭, 川渠大漲, 海南·珍島, 得二犁, 光陽, 得一犁, 羅州·南平·順天·樂安等四邑, 得一鋤, 十九日二十日之雨, 鎭安·高山·礪山·萬頃·泰仁·井邑·南原等七邑, 川渠漲溢, 靈光, 得二犁, 益山·金溝·任實等三邑, 得一犁, 錦山·咸悅, 得一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待列邑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7일 내린 비의 경위를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9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3치 1푼이었으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아직 개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의 비로 용담·장성·무장·홍양·법성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해남·진도는 2려가 내렸고, 광양은 1려가 내렸고, 나주·남평·순천·낙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9일·20일의 비로 진안·고산·여산·만경·태인·정읍·남원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영광은 2려가 내렸고, 익산·금구·임실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산·함열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0. 1854년(철종 5) 7월 29일(양력 8월 22일)

全羅監司啓錄 5책(67a~67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0a~230b)

臣營下, 今月二十二日卯時至, 得雨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以後, 載陰載陽, 二十五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自今月十九日, 至二十二日之雨, 淳昌·和順·光州·羅州·古阜·礪山·珍山·錦山等八邑, 川渠漲滿, 龍潭·康津, 得二犁, 光陽·潭陽·南平·綾州·咸平·興德等六邑, 得一犁, 金堤·金溝·高山·長水·樂安等五邑, 得二鋤, 寶城·興陽·順天·谷城·南原·茂朱·鎭安·益山·咸悅·臨陂·茂長·法聖等十二邑·鎭, 得一鋤. 農形段, 付種早稻, 間間發穗, 移種早稻, 間或胚胎, 中晚稻, 方張再除草, 木綿, 開花, 黍粟, 胚胎, 和種豆太與根耕豆太, 幾訖再耘, 木麥, 次第耕播. 而近幸晴曝, 無論田畝各穀, 川沙浦落, 已判全棄者外, 庶有蘇醒之望, 至於木綿, 跨朔長霖, 花顆腐落, 不得善就. 龍安·咸悅·臨陂·興德·靈光·光陽·興陽等七邑, 蟲災間發, 痒稼不少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2일 묘시까지 내린 비의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5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부터 22일까지 비로 순창·화순·광주·나주·고부·여산·진산·금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용담·강진은 2려가 내렸고, 광양·담양·남평·능주·함평·홍덕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제·금구·고산·장수·낙안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보성·홍양·순천·곡성·남원·무주·진안·익산·함열·임피·무장·법성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혹 알을 배고, 중벼·늦벼는 한창 한창 두벌 김매기하고 있고, 목화는 꽃이 피고, 기장·조는 알을 배고, 섞어 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요즘 다행히 날씨가 맑아 벼를 찌니, 논밭의 각종 곡식을 따질 것 없이 시내의 사태로 떨어져 나가 이미 전부 포기하기로 판가를 난 것 외에는 아마도 소생할 가망이 있으며, 목화는 한 달에 걸친 장마로 꽃과 다래가 썩고

떨어져 잘 여물지 못하겠습니다. 용안·함열·임피·홍덕·영광·광양·홍양 등 7개 고을은 벌레 재해가 그사이에 발생하여 손상된 벼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1. 1854년(철종 5) 윤7월 2일(양력 8월 25일)

全羅監司啓錄 5책(68a~68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0b~230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去月二十九日戌時始雨, 間間霏灑, 三十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五分, 而載陰載陽, 今月初一日巳時, 仍爲開霽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三十日之雨, 高山·礪山·咸悅·沃溝·萬頃·金堤·扶安·古阜·金溝等九邑, 川渠漲滿, 任實, 得一鋤是如爲白乎旆. 嗣後形止, 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지난달 29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30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으며,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이번 달 초1일 사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30일의 비로 고산·여산·함열·옥구·만경·김제·무안·고부·금구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임실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2. 1854년(철종 5) 윤7월 6일(양력 8월 29일)

全羅監司啓錄 5책(68b~69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0d~231a)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三十日, 今月初一日之雨, 鎭安·錦山·龍安·臨陂·昌平·光州等六邑, 川渠漲滿, 靈光, 得二犁, 珍山·泰仁·光陽·靈巖等四邑, 得一犁, 綾州·樂安, 得二鋤, 龍潭·南原·求禮·順天·長興·淳昌·茂長·興德·井邑·法聖等十邑·鎭, 得一鋤, 雲峯·興陽, 浥塵. 六月二十九日三十日之雨, 靈光, 全家漂頽爲一百六十九戶, 滄死爲二十二名, 順天, 全家漂頽爲四十四戶, 七月十五日之雨, 南原, 全家漂頽爲五十九戶, 滄死爲九名, 長城, 滄死爲一名, 全州, 全家漂頽爲一百八十八戶, 金溝, 全家漂頽爲十六戶, 井邑, 全家漂頽爲十戶, 滄死爲一名, 任實, 全家漂頽爲二十四戶, 淳昌, 全家漂頽爲二十四戶, 滄壓死爲四名, 高敞, 全家頽壓爲三十二戶, 壓死爲二名. 臣營下, 今月初六日丑時始雨, 間間霏灑, 午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 而尙此霏微是白乎所. 嗣後形止, 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30일·이번 달 초1일의 비로 진안·금산·용안·임피·창평·광주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영광은 2려가 내렸고, 진산·태인·광양·영암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능주·낙안은 2서가 내렸고, 용담·남원·구례·순천·장흥·순창·무장·홍덕·정읍·법성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운봉·홍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6월 29일·30일의 비로 영광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69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2명이며, 순천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44가구이고, 7월 15일의 비로 남원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59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9명이며, 장성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이고, 전주는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88가구이고, 금구는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6가구이고, 정읍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0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이며, 임실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24가구이고, 순창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24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이 4명이며, 고창은 집 전체가

무너지거나 깔린 것이 32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이 2명입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6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으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립니다. 이후 경위는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3. 1854년(철종 5) 윤7월 9일(양력 9월 1일)

全羅監司啓錄 5책(69b~69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1a~231b)

臣營下, 今月初六日午時至, 得雨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間霏灑, 戌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九分, 而乍陰乍陽, 初七日午時, 仍爲開霽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今月初一日之雨, 寶城·羅州·南平·珍島等四邑, 得一犁, 康津, 得二鋤, 初六日之雨, 高山·珍山·錦山·礪山·龍安·咸悅·沃溝·萬頃·金溝·金堤·扶安·古阜·靈光·潭陽·玉果·昌平·南原·雲峯·長水·任實·等二十邑, 川渠漲滿, 茂朱·泰仁·長城·谷城等四邑, 得一犁, 鎭安·益山·井邑·興德·淳昌等五邑, 得二鋤. 農形段, 付種早稻, 幾盡發穗, 移種早稻, 間間發穗, 中晚稻, 方始胚胎, 木綿, 間或結穎, 黍粟發穗, 和種豆太與根耕豆太, 次第開花, 木麥, 已訖耕播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6일 오시까지 내린 비의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때 이후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9푼이었으며,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초7일 오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이번 달 초1일의 비로 보성·나주·남평·진도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진은 2서가 내렸고, 초6일의 비로 고산·진산·금산·여산·용안·함열·옥구·만경·금구·김제·부안·고부·영광·담양·옥과·창평·남원·운봉·장수·임실 등 2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무주·태인·장성·곡성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진안·익산·정읍·홍덕·순창 등 5개 고을에 2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기장·조는 이삭이 패고, 섞어 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고, 메밀은 이미 땅을 깔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뉘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4. 1854년(철종 5) 윤7월 13일(양력 9월 5일)

全羅監司啓錄 5책(70a~70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1c~231d)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日六日之雨, 龍潭·臨陂·高敞·茂長·咸平·羅州·南平·光州·和順·同福·綾州·長興·寶城·興陽·樂安·順天·光陽·求禮·法聖等十九邑·鎮, 連日暴注, 勢如翻盆, 川渠大漲, 原野汎濫, 依山之處, 汚陷之坪, 汰覆沈墊, 在在同然, 無論田畝, 受損不少, 務安·靈巖·海南等三邑, 得二犁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용담·임피·고창·무장·함평·나주·남평·광주·화순·동복·능주·장흥·보성·홍양·낙안·순천·광양·구례·법성 등 19개 고을과 군영은 연일 갑자기 쏟아지는데 형세가 동이를 엮은 것 같고,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나고, 별판이 범람하여 산자락에 있는 곳이나 낮고 우묵한 들은 사태로 뒤덮이고 물에 잠겼는데 곳곳에서 같습니다. 논이나 밭을 따질 것 없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무안·영암·해남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5. 1854년(철종 5) 윤7월 19일(양력 9월 11일)

全羅監司啓錄 5책(71b~73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2b~233a)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十五日戌時始雨, 間間霑灑, 十六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八分, 而載陰載陽, 十七日巳時, 仍爲開霽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高山·珍山·錦山·龍潭·益山·礪山·龍安·咸悅·臨陂·萬頃·金堤·扶安·金溝·泰仁·井邑·長城·古阜·高敞·茂長·靈光·咸平·羅州·光州·昌平·潭陽·玉果·順天·南原·任實·法聖等三十邑·鎭, 川渠又致大漲, 原野舉皆汎濫, 汰覆沈墊, 在在同然, 茂朱·興德, 得二犁, 鎭安, 得一犁, 長水·綾州, 得二鋤. 農形段, 付種早稻, 已皆垂穎, 移種早稻, 幾盡發穗, 中晚稻, 間間發穗, 木綿, 次第結穎, 黍粟, 方張發穗, 豆太根耕與和種, 結穀, 木麥, 立苗. 今月初五日六日之雨, 順天, 全家漂頽爲九百六十八戶, 渰壓死爲五百十二名, 求禮, 全家漂頽爲六百五十三戶, 渰壓死爲二百二十三名, 谷城, 全家漂頽爲五十戶, 渰死爲五十一名, 光陽, 全家漂頽爲五十戶, 壓死爲一名, 南原, 全家漂頽爲十六戶, 羅州, 壓死爲二名.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15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6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으며,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7일 사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고산·진산·금산·용담·익산·여산·용안·함열·임피·만경·김제·부안·금구·태인·정읍·장성·고부·고창·무장·영광·함평·나주·광주·창평·담양·옥과·순천·남원·임실·법성 등 30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또 크게 불어나고 별판은 대부분 범람하였으며 사태로 뒤덮이고 물에 잠겼는데 곳곳이 갈고, 무주·홍덕은 2려가 내렸고, 진안은 1려가 내렸고, 장수·능주는 2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옮겨심은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중벼·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고, 기장·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콩·팥은 그루같이한 것과 섞어 짓는 것이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싹이 돋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순천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968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이 512명이며,

구례는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653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이 223명이며, 곡성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50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51명이며, 광양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50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이 1명이며, 남원은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6가구이고, 나주는 깔려 죽은 사람이 2명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6. 1854년(철종 5) 윤7월 29일(양력 9월 21일)

全羅監司啓錄 5책(76a~76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4d~235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七日午時, 間間霏灑, 戌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載陰載陽, 二十八日巳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早稻, 次第向熟, 移種早稻, 幾皆垂穎, 中晚稻, 已盡垂穗, 木綿, 晚穎零星, 間始吐絮, 黍粟向熟, 豆太根耕與和種入實, 木麥開花. 今月二十七日之雨, 鎮安·任實, 川渠小漲, 礪山·金溝, 得一犁, 龍潭, 得二鋤, 益山, 沍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7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으며,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8일 사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법씨를 뿌린 올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옮겨 심은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중벼·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목화는 늦어서 다래는 드물지만 그사이에 숨이 터져 나오고, 기장·조는 익어가고, 콩·팥은 섞어 짓는 것과 그루같이한 것이 알이 들고, 메밀은 꽃이 필니다. 이번 달 27일의 비로 진안·임실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여산·금구는 1려가 내렸고, 용담은 2서가 내렸고, 익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7. 1854년(철종 5) 8월 5일(양력 9월 26일)

全羅監司啓錄 5책(78b~79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5d~236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七日之雨, 珍山, 川渠漲滿, 高山·錦山·南原·長水·茂朱·咸平·高敞·務安·法聖等九邑·鎭, 得一犁, 臨陂·井邑·茂朱·綾州·光陽等五邑, 得二鋤, 咸悅·興德·古阜·靈巖·康津·寶城·南平·雲峯·淳昌等九邑, 得一犁, 光州, 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7일의 비로 진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금산·남원·장수·무주·함평·고창·무안·법성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임피·정읍·무장·능주·광양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함열·홍덕·고부·영암·강진·보성·남평·운봉·순창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8. 1854년(철종 5) 8월 9일(양력 9월 30일)

全羅監司啓錄 5책(79b~80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6b~236c)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之雨, 南原·綾州·興陽等三邑, 得二鋤, 金溝·長興·海南等三邑, 得一鋤, 順天,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刈取, 移種早稻向熟, 中晚稻垂穎, 木綿間或摘絮, 黍粟, 幾盡向熟, 豆太根耕與和種, 間間向熟, 木麥結殼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남원·능주·홍양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금구·장흥·해남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베어 거두고, 옮겨 심은 올벼는 익어가고, 중벼·늦벼는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목화는 간혹 솜을 따고, 기장·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콩·팥은 그루같이한 것과 섞어 짓는 것이 간간이 익어가고, 메밀은 꼬투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9. 1854년(철종 5) 8월 19일(양력 10월 10일)

全羅監司啓錄 5책(81b~81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5책(237b~237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早稻, 已盡刈取, 移種早稻, 間或刈取, 中晚稻, 次第向熟, 木綿, 晚顆稀疏, 摘絮零星, 黍粟, 刈取, 豆太根耕與和種, 方張向熟, 木麥, 漸次入實. 雲峯·長水·鎭安·扶安等四邑, 今月初九日十日之夜霜降, 晚種各穀之未及成實者, 更無餘望是如爲白乎所. 見今年形已判, 似此之歲, 檢田之節, 尤倍致愼乙仍于, 躬審精核, 期無漏濫之意, 另飭列邑宰守, 待其概狀齊報,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늦어서 다래가 드물어 따는 숨이 적고, 기장·조는 베어 거두고, 콩·팥은 그루같이한 것과 섞어 짓는 것이 한창 익어가고 있고, 메밀은 점차 알이 찹니다. 운봉·장수·진안·부안 등 4개 고을은 이번 달 초9일·10일 밤에 서리가 내려서, 늦되는 각종 곡식은 알이 영글지 못하여 다시는 남은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한해 농사 상황은 이미 관가름 났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해는 논밭의 검사 상황은 더욱 갑절로 신중해야 하므로 몸소 살피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기어이 빠지거나 지나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여러 고을 수령에게 별도로 지시하고 대략 보고를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0. 1876년(고종 13) 2월 28일(양력 3월 23일)

全羅監司啓錄 6책(3a~3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5b~285b)

道內農形, 近接各邑所報, 則早稻畚, 間或初翻耕, 兩麥, 方始敷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요즘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막 푸르름을 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1. 1876년(고종 13) 3월 8일(양력 4월 2일)

全羅監司啓錄 6책(3b~3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5c~285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畚, 間間初鰲耕, 兩麥, 漸次向青是如爲白有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2. 1876년(고종 13) 3월 19일(양력 4월 13일)

全羅監司啓錄 6책(4b~4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6a~286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畚, 次第初鰲耕, 兩麥, 方張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밀과 보리는 한창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3. 1876년(고종 13) 3월 28일(양력 4월 22일)

全羅監司啓錄 6책(5a~5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6b~286c)

臣營下, 今月二十八日, 寅時始雨, 或霏或灑, 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分,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畚, 方張初翻耕, 中晚稻畚, 間間初翻<耕>, 兩麥, 漸次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3월 28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으며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싹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4. 1876년(고종 13) 4월 3일(양력 4월 26일)

全羅監司啓錄 6책(5a~5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6c~286c)

臣營下, 今月初二日午時始雨, 或霏或灑, 初三日卯時至, 側[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茂朱·龍潭·珍山·礪山·益山·龍安·咸悅·沃溝·臨陂·萬頃·金堤·泰仁·古阜·井邑·興德·高敞·長城·光州·靈光·昌平·同福·谷城·淳昌·任實·鎮安·興陽·法聖等二十八邑·鎮, 邑[湍]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2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으며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무주·용담·진산·여산·익산·용안·함열·옥구·임피·만경·김제·태인·고부·정읍·홍덕·고창·장성·광주·영광·창평·동복·곡성·순창·임실·진안·홍양·법성 등 28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5. 1876년(고종 13) 4월 8일(양력 5월 1일)

全羅監司啓錄 6책(5b~5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6c~286d)

道內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羅州, 得一犁, 靈巖, 得二鋤, 綾州·務安·咸平·珍島等四邑, 得二鋤, 求禮·和順·潭陽·寶城·長興·康津等六邑, 浥塵. 今月初二日三日之雨, 雲峯·茂朱·珍山·潭陽·羅州·康津·珍島·同福·法聖等九邑·鎭, 得一鋤, 長水·錦山·高山·礪山·益山·龍安·咸悅·臨陂·萬頃·金堤·金溝·泰仁·扶安·古阜·井邑·長城·靈光·務安·淳昌·玉果·光州·南原·任實·求禮·順天·樂安等二十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耕播, 早稻畚, 幾訖初翻耕, 中晚稻畚, 次第初翻耕, 秧坂[板], 間間注種, 和種豆太, 間或耕〈播〉, 大麥胚胎, 小麥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나주는 1려가 내렸고, 영암은 2서가 내렸고, 능주·함평·무안·진도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화순·담양·보성·구례·장흥·강진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초2일·3일의 비로 운봉·무주·진산·담양·나주·강진·진도·동북·법성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장수·금산·고산·여산·익산·용안·함열·임피·만경·금구·김제·태인·부안·고부·정읍·장성·영광·무안·순창·옥과·광주·남원·임실·구례·순천·낙안 등 2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울벼 논은 초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못자리는 간간이 물을 대서 벼씨를 뿌리고, 섞어 짓는 콩·팥은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싹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6. 1876년(고종 13) 4월 18일(양력 5월 11일)

全羅監司啓錄 6책(6a~6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7a~287a)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畚, 方張耕播, 早稻畚, 次第再翻耕, 中晚稻畚, 已訖初翻耕, 秧坂[板], 有水根處, 方張注種, 和種豆太, 次第耕播, 大麥發穗, 小麥胚胎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논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올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초벌 갈아엎기를 이미 마쳤고, 못자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은 한창 물을 대서 벼씨를 뿌리고,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이삭이 패고, 밀은 알을 밴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7. 1876년(고종 13) 4월 26일(양력 5월 19일)

全羅監司啓錄 6책(6b~6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7b~287c)

臣營下, 今月二十四日申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五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
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4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8. 1876년(고종 13) 4월 28일(양력 5월 21일)

全羅監司啓錄 6책(7a~7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7c~287d)

臣營下, 今月二十五日午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茂朱·錦山·玉果·光州·羅州等五邑, 得一鋤, 寶城·昌平·谷城·淳昌·南原·任實·鎭安·龍潭·珍山·高山·礪山·益山·龍安·臨陂·金溝·泰仁·井邑·高敞·茂長·靈光·法聖等二十一邑·鎭, 泥塵. 農形段, 付種及秧坂[板], 方始立苗, 早稻畚, 幾訖再翻耕, 中晚稻畚, 次第再翻耕, 木綿·黍粟, 方張耕播, 和種豆太, 耕播垂畢, 大麥, 入實, 小麥, 發穗, 而頗久惜乾之餘, 今番雨澤, 無異沃焦, 秧坂[板], 間或龜坼, 麥穗, 率多萎黃是如, 迭相告悶, 言念民事, 誠甚憧憧. 南原·雲峰, 請行雩祭, 以不卜日虔誠設行之意, 另飭題送, 而繼以沛然, 深切顯祝爲白乎旃.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5일 오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무주·금산·옥과·광주·나주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보성·곡성·순창·창평·남원·임실·진안·용담·진산·고산·여산·익산·용안·임피·금구·태인·정읍·고창·무장·영광·법성 등 21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막 싹이 트기 시작했고, 올벼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섞어 짓는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보리는 알이 들고, 밀은 이삭이 뿔니다. 그러나 자못 오랫동안 가뭄을 걱정한 끝에 이번 우택은 뜨거운 술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다름없어 못자리는 간혹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보리는 이삭이 대부분 시들어 마른다고 하며 번갈아 걱정을 알립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남원과 운봉은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는데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을 별도로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세차게 내리기를 매우 간절하게 빕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9. 1876년(고종 13) 5월 8일(양력 5월 30일)

全羅監司啓錄 6책(8a~8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8a~288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八日寅時始雨, 或霏或灑, 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四日五日之雨, 南平·綾州·海南·珍島等四邑, 得一鋤, 興陽·順天·樂安·長興·務安·康津·靈巖·長城·潭陽·興德·長水等十一邑, 〈浥〉塵. 農形段, 付種及秧坂[板], 立苗向青, 早稻畚, 已訖再翻〈耕〉, 中晚稻畚, 幾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間立苗, 大麥, 向熟, 小麥, 入實. 而前啓中祈雨是白在, 南原·雲峯, 連爲設行, 求禮·金溝, 又爲請行. 而嘆乾彌久, 民事憂悶, 雩祭, 不卜日虔誠設行之意, 已爲措辭關飭列邑爲乎所. 甘澍今既伊始, 繼以均霑, 深切顯祝, 所得多少,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8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25일의 비로 남평·능주·해남·진도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홍양·순천·낙안·장흥·무안·강진·영암·장성·담양·홍덕·장수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싹이 돋아 푸르러지고, 올벼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와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간간이 싹이 돋고, 보리는 익어가고, 밀은 알이 듭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남원·운봉은 연이어 시행하고, 구례·금구는 또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가뭄이 오래되어 백성의 사정이 매우 걱정스러워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이미 문안을 만들어 공문으로 여러 고을에 지시하였습니다. 단비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으니 계속해서 고르게 적셔주기를 매우 간절히 바랍니다. 내린 것의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0. 1876년(고종 13) 5월 10일(양력 6월 1일)

全羅監司啓錄 6책(9a~9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8c~288d)

臣營下, 今月初八日申時至雨澤, 纔以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載暘載陰, 初十日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任實, 得二鋤, 鎭安·珍山·高山等三邑, 得一鋤, 礪山·益山·龍安·沃溝·萬頃·金堤·金溝·井邑等八邑, 浥塵. 前啓中祈雨是白在, 南原等四邑, 連爲設行, 珍山·龍潭·井邑·淳昌·樂安·康津等六邑, 亦爲請行. 故以不卜日虔誠設行之意, 措辭題送爲白乎所. 彌久嘆乾之餘, 日前雨澤, 僅爲鋤邑[浥]而止, 言念民事, 轉益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8일 신시까지의 우택을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때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더니 초10일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임실은 2서가 내렸고, 진안·진산·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익산·용안·옥구·만경·김제·금구·정읍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남원 등 4개 고을은 연이어 시행하였고, 진산·용담·정읍·순창·낙안·강진 등 6개 고을도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가문 끝에 며칠 전의 우택은 겨우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1. 1876년(고종 13) 5월 12일(양력 6월 3일)

全羅監司啓錄 6책(9b~10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8d~289a)

臣營下, 今月十二日丑時量, 驟雨暴霏,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八日之雨, 靈光, 得一鋤, 昌平·雲峯·長水·龍潭·錦山·咸悅·臨陂·扶安·古阜·興德·高敞·茂長等十二邑, 浥塵. 前啓中祈雨是白在, 南原等十邑, 連爲設行, 興陽·高敞·萬頃等三邑, 亦爲請行. 故不卜日虔誠設行之意, 措辭題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2일 축시쯤 소나기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렸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의 비로 영광은 1서가 내렸고, ·창평·운봉·장수·용담·금산·함열·임피·부안·고부·홍덕·고창·무장 등 1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남원 등 10개 고을은 연이어 시행하였고, 홍양·고창·만경 등 3개 고을도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2. 1876년(고종 13) 5월 16일(양력 6월 7일)

全羅監司啓錄 6책(10b~11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9c~289c)

臣營下, 今月十二日丑時量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十五日寅時又雨, 或霏或灑, 十六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之雨, 高山·任實, 得一犁, 礪山·益山·珍山等三邑, 得二鋤, 茂朱·龍潭·咸悅·沃溝·金堤·金溝·昌平·光州·羅州·咸平等十邑, 得一鋤, 龍安·臨陂·萬頃·泰仁·扶安·井邑·高敞·茂長·長城·務安·綾州·南平·潭陽·淳昌·南原·雲峯·長水·錦山等十八邑, 浥塵. 前啓中祈雨是白在, 南原等十三邑外, 長水·咸悅·臨陂·長城·羅州·潭陽·順天·錦山·寶城等九邑, 亦爲惜乾, 請行雩祭. 故虔誠設行, 期圖靈應之意, 措辭題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2일 축시쯤 우택을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5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으며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고산·임실은 1려가 내렸고, 여산·익산·진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무주·용담·함열·옥구·김제·금구·창평·광주·함평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안·임피·만경·태인·부안·정읍·고창·무장·장성·무안·능주·남평·담양·순창·남원·운봉·장수·금산 등 1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남원 등 13개 고을 외에 장수·함열·임피·장수·나주·담양·순창·금산·보성 등 9개 고을도 가뭄을 걱정하여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여 기어이 신령의 감응을 도모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3. 1876년(고종 13) 5월 18일(양력 6월 9일)

全羅監司啓錄 6책(11a~11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89d~290a)

臣營下, 今月十六日寅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之雨, 和順·同福·寶城·長興·順天·興陽等六邑, 浥塵. 十五日六日之雨, 珍山, 川渠漲滿, 錦山·礪山·任實等三邑, 得一犁, 益山·高山·龍潭等三邑, 得二鋤, 龍安·臨陂·興德·高敞·光州·綾州·南原·鎮安·茂朱等九邑, 得一鋤, 咸悅·沃溝·萬頃·扶安·金堤·古阜·金溝·泰仁·井邑·淳昌·同福·長水·雲峯等十三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初除草, 早稻畚, 有水根處, 間間移秧, 中晚稻畚, 已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或初耘, 根耕豆太, 方始播種, 大麥刈取, 小麥向熟是如爲白遣. 前啓中祈雨是白在, 南原·珍山·錦山等三邑, 得雨停止, 雲峯等十九邑, 連爲設行, 谷城·同福·和順·靈巖·海南·珍島等六邑, 亦爲惜乾, 請行雩祭. 故不卜日虔誠設行, 期圖靈應之意, 措辭題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6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화순·동북·보성·장흥·순천·홍양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5일·16일의 비로 진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산·연산·임실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익산·고산·용담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용안·임피·홍덕·고창·광주·능주·남원·진안·무주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함열·옥구·만경·부안·김제·고부·금구·태인·정읍·순창·동북·장수·운봉 등 1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벼 논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은 간간이 모내기하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이미 마쳤고, 목화와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보리는 베어 거두고, 밀은 익어간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남원·진산·금산 등 3개 고을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고, 운봉 등 19개 고을은 연이어 시행하였으며, 곡성·동북·화순·영암·해남·진도 등 6개 고을도 가뭄을 걱정하여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여

기어이 신영의 감응을 도모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4. 1876년(고종 13) 5월 28일(양력 6월 19일)

全羅監司啓錄 6책(12a~12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0b~290c)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五日六日之雨, 茂長·咸平·羅州·南平·光州等五邑, 得一鋤, 潭陽·玉果·長城·靈光·寶城·康津·樂安·順天·興陽·法聖等十邑·鎮, 浥塵, 二十一日驟雨, 臣營下, 無所得, 高敞, 得一犁, 興德·井邑·光州·羅州·南平等五邑, 得一鋤, 泰仁·茂長·靈光·長城·和順·同福等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張初除草, 早稻畚, 有水根處, 次第移秧, 堤汙坪中, 晚稻畚, 間或移秧,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間初耘, 根耕豆太, 方張播種, 大麥已盡收穫, 小麥方始刈取. 祈雨諸邑中, 高敞, 得雨停止, 其餘二十四邑, 連爲虔禱, 玉果·昌平·光陽·長興·鎮安·龍安·咸平·靈光·興德·古阜·光州·南平·金堤·扶安等十四邑, 亦行雩祭.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16일의 비로 무장·함평·나주·남평·광주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담양·옥과·장성·영광·보성·강진·낙안·순천·홍양·범성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1일 소나기로 저의 감영은 내린 것이 없고, 고창은 1려가 내렸고, 흥덕·정읍·광주·나주·남평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태인·무장·영광·장성·화순·동복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 논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은 차례로 모내기하고, 방죽과 보가 있는 들 가운데 늦벼 논은 간혹 모내기 하고, 목화화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보리는 이미 다 수확하였고, 밀은 막 베어서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기우제는 여러 고을 가운데 고창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고 그 나머지 24개 고을은 연이어 경건하게 빌고, 옥과·창평·광양·장흥·진안·용안·함평·영광·흥덕·고부·광주·남평·김제·부안 등 14개 고을도 기우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5. 1876년(고종 13) 윤5월 4일(양력 6월 25일)

全羅監司啓錄 6책(13a~13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0c~290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四日未時始雨, 斷續霑灑, 酉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前啓中祈雨是白在, 雲峯等三十八邑外, 全州·綾州·沃溝·泰仁·茂朱·任實·茂長·加里浦等八邑·鎮, 亦爲悶嘆, 方行雩祭, 錦山·珍山·南原等三邑段置, 向日雨澤, 猶未優洽, 一自雩祭停止以後, 仍又惜乾. 已移之秧, 幾皆焦枯, 未移之處, 末由鋤插, 不卜日還復設行是如爲白乎所. 見今夏至已過, 秧役時急, 而際此一霽, 方切顯祝. 列邑所得多少,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4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촉촉이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으며 아직 개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운봉 등 38개 고을 외에 전주·능주·옥구·태인·무주·임실·무장·가리포 등 8개 고을과 군영도 가뭄을 걱정하여 바야흐로 기우제를 시행하고, 금산·진산·남원 등 3개 고을도 이전의 우택이 오히려 흠족하지 않아 일단 기우제를 중지한 이후 이내 또 가뭄을 걱정합니다. 이미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바짝 마르고 모내기하지 못한 곳은 호미를 쫓을 수도 없어 날짜를 가리지 않고 도로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하지가 이미 지났으니 모내기 일이 시급한데 이즈음 한차례 세차게 퍼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6. 1876년(고종 13) 윤5월 8일(양력 6월 29일)

全羅監司啓錄 6책(13a~13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0d~291a)

臣營下, 祈雨祭設行計料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於今月初八日, 差定祭官, 精備奠物, 設行雩祭於全州府社稷壇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驟雨, 加里浦, 得一犁, 咸平·靑山島, 浥塵. 今月初四日之雨, 金溝, 得一鋤, 井邑·泰仁·長城·求禮·雲峯等五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 有水處, 幾盡初除草, 早·中·晚稻畝, 堤汙坪已移處外, 舉皆龜坼, 不得移插,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張初耘, 根耕豆太, 播種垂畢. 祈雨是白在, 雲峯等五十二邑鎮中, 加里浦, 得雨停止, 高敞段, 還復惜乾, 亦行雩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 기우제 시행 계획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초8일 제관을 선정하여 제물을 꼼꼼하게 갖추어 전주부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시행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 소나기로 가리포에 1려가 내렸고, 함평·청산도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금구는 1서가 내렸고, 정읍·태인·장성·구례·운봉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물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중벼·늦벼 논은 방죽과 보가 있는 들에 이미 모내기한 곳 외에는 대부분 거북등처럼 갈라져 옮겨 심을 수 없고, 목화와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운봉 등 52개 고을과 군영 가운데 가리포는 비가 내려 중지하였고, 고창은 도로 다시 가뭄을 걱정하여 또한 새로 기우제를 시행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7. 1876년(고종 13) 윤5월 10일(양력 7월 1일)

全羅監司啓錄 6책(13b~14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1a~291b)

臣營下, 再次祈雨祭設行計料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於今月初十日, 虔禱於全州府城隍祠, 而初九日未時始雨, 間間霏微, 初十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二分, 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驟雨, 珍島, 得一鋤, 今月初四日之雨, 羅州, 務安得一鋤, 光州·咸平·靈巖等三邑, 浥塵是如爲白乎所. 渴悶之餘, 甘澍仍始, 繼而霏然, 保[深]切顯祝爲白乎旆. 臣又於靈異處, 連加虔禱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2차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인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초10일 전주부 성황사에서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초9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10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 소나기로 진도는 1서가 내렸고,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나주·무안은 1서가 내렸고, 광주·함평·영암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애타게 걱정한 끝에 단비가 이내 시작하여 계속해서 세차게 내리기를 매우 간절히 빕니다. 저는 또 신령한 곳에서 연이어 경건하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8. 1876년(고종 13) 윤5월 12일(양력 7월 3일)

全羅監司啓錄 6책(14a~14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1b~291c)

臣營下, 今月初十日卯時至雨澤及三次祈雨祭設行計料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於今月十二日, 虔禱於全州府厲壇, 而初十日卯時以後, 間或霏微, 更無所得, 十一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三日四日之雨, 綾州, 得二犁, 海南, 溫塵. 初九日十日之雨, 高敞, 得一鋤, 珍山·高山·金溝·泰仁·任實等五邑, 溫塵.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10일 묘시까지의 우택 및 3차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인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12일 전주부 여단에서 경건하게 빌었는데, 초10일 묘시 이후 간혹 부슬부슬 내리더니 다시 내린 것이 없이 11일 진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3일·4일의 비로 능주는 2려가 내렸고, 해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9일·10일의 비로 고창은 1서가 내렸고, 진산·고산·금구·태인·임실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9. 1876년(고종 13) 윤5월 14일(양력 7월 5일)

全羅監司啓錄 6책(14b~14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1c~291d)

臣營下，四次祈雨祭設行計料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於今月十四日，虔禱於全州府完山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初九日十日之雨，羅州，得一犁，光州·高敞·咸平等三邑，得一鋤，龍潭·興德·井邑·長城·潭陽·靈光·法聖等七邑·鎭，浥塵是如爲白乎所。圭璧屢薦，靈應尙邈，言念民事，轉益渴悶。臣又於靈異處，連加虔禱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4차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인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14일 전주부 완산에서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10일의 비로 나누는 1려가 내렸고, 광주·고창·함평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담·홍덕·정읍·장성·담양·영광·법성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여러 차례 지냈으나 신령의 감응은 아직 아득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더 애타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또 신령스러운 곳에서 연이어 경건하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0. 1876년(고종 13) 윤5월 16일(양력 7월 7일)

全羅監司啓錄 6책(14b~14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1d~291d)

臣營下, 五次祈雨祭設行計料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於今月十六日, 虔禱於全州府德眞池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十日之雨, 務安·靈巖, 得二鋤, 淳昌·茂長·寶城等三邑, 涸塵是如爲白乎所. 間日薦壁, 誠未孚格, 霈澤尙闕, 烘炎益熾, 言念民事, 萬萬渴悶. 臣又於靈異處, 連加虔禱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5차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인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16일 전주부 덕진지에서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10일의 비로 무안·영암은 2서가 내렸고, 순창·무장·보성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루걸러 기우제를 지내는데 정말로 감화되지 못하고 큰비는 아직도 내리지 않고 불꽃 같은 더위는 더욱 치열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애타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또 신령스러운 곳에서 연이어 경건하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1. 1876년(고종 13) 윤5월 18일(양력 7월 9일)

全羅監司啓錄 6책(15a~15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1d~292b)

臣營下, 六次祈雨祭設行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於今月十八日, 虔禱于全州府母嶽山, 而十七日午時始雨, 或霏或灑, 申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十日之雨, 珍島, 得一犁, 綾州·南平, 得一鋤, 同福·長興·海南等三邑, 浥塵. 十三日四日驟雨, 任實, 得一鋤, 高山·鎮安, 浥塵. 農形段, 付種畚, 已訖初除草, 早稻畚, 已移處, 間間初除草, 中晚稻, 有水根處, 間或移秧, 木錦·黍粟, 間或再耘, 和種豆太, 方張初耘, 根耕豆太, 方始立苗. 前啓中祈雨是白在, 雲峯等五十二邑中, 珍島, 停止霽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6차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18일 전주부 모악산에서 경건하게 빌었는데, 17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10일의 비로 진도는 1려가 내렸고, 능주·남평은 1서가 내렸고, 동북·장흥·해남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3일·14일의 소나기로 임실은 1서가 내렸고, 고산·진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올벼 논은 이미 옮겨 심은 곳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늦벼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은 간혹 모내기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 짓는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운봉 등 52개 고을 가운데 진도는 기우제를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2. 1876년(고종 13) 윤5월 20일(양력 7월 11일)

全羅監司啓錄 6책(15b~1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2b~292b)

臣營下, 七次祈雨祭設行計料,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於今月二十日, 虔禱於全州府黃方山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七日八日驟雨, 錦山·龍潭·臨陂·金堤·古阜·茂長等六邑, 沍塵是如爲白乎所. 薦璧已至七次, 甘澍尙靳一霏, 言念民事, 尤極渴悶. 臣又於靈異處, 更加虔禱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7차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을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20일 전주부 황방산에서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일·18일의 소나기로 금산·용담·임피·김제·고부·무장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가 이미 7차에 이르렀는데 단비는 아직 한차례 퍼붓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지없이 애타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또 신령스러운 곳에서 다시 경건하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3. 1876년(고종 13) 윤5월 22일(양력 7월 13일)

全羅監司啓錄 6책(15b~16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2b~292c)

臣營下，八次祈雨祭設行計料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於今月二十二日，更爲虔禱於全州府社稷壇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十七日八日驟雨，羅州，得二鋤，金溝·潭陽·茂朱等三邑，得一鋤，鎭安·長水·淳昌·同福·長城·靈光·咸平·法聖等八邑·鎭，浥塵。祈雨是白在，雲峯等五十一邑外，務安段置，亦行雩祭。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8차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인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22일 전주부 사직단에서 다시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일·18일 소나기로 나주는 2서가 내렸고, 금구·담양·무장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안·장수·순창·동북·장성·영광·함평·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기우제는 운봉 등 51개 고을 외에 무안의 경우도 또한 기우제를 시행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4. 1876년(고종 13) 윤5월 24일(양력 7월 15일)

全羅監司啓錄 6책(16a~16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2c~292d)

臣營下, 九次祈雨祭設行計料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於今月二十四日, 更爲虔禱於全州府城隍祠, 而二十三日午時始雨, 斷續霏灑, 二十四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 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七日驟雨, 光陽, 得一鋤, 樂安, 浥塵是如爲白乎所.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9차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인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달 24일 전주부 성황사에서 다시 경건하게 빌었는데, 23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4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일 소나기로 광양은 1서가 내렸고, 낙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5. 1876년(고종 13) 윤5월 26일(양력 7월 17일)

全羅監司啓錄 6책(16b~17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2d~293a)

臣營下, 今月二十四日午時至雨澤及十次祈雨祭, 觀勢設行計料,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雨澤, 若將霽然, 暫爲霏微, 仍卽開霽乙仍于, 臣於今月二十六日, 更爲虔禱於全州府厲壇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七日驟雨, 加里浦·靑山島, 得一鋤, 二十三日四日之雨, 礪山·金溝, 川渠小漲, 雩祭停止, 高山, 得二鋤, 益山, 得一鋤是如爲白乎所. 望霓之情, 晷刻是急, 而旣始之雨, 旋又慳閔, 幾邑所得, 亦未均洽, 言念民事, 尤倍渴悶. 謹考臣營上臚錄是白乎則, 道臣之祈雨於光州無等山, 旣有已例是白如乎. 臣不卜日馳往該牧, 虔禱於無等山計料爲白乎旡.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4일 오시까지의 우택 및 10차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시행할 계획인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의 우택은 세차게 내릴 것처럼 하더니 잠깐 부슬부슬 내리다가 곧바로 개었으므로 저는 26일에 전주부 여단에서 다시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일 소나기로 가리포·청산도는 1서가 내렸고, 23일·24일의 비로 여산·금구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서 기우제를 중지하였고, 고산은 2서가 내렸고, 익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비를 바라는 심정은 시시각각 이렇게 다급한데 이미 시작된 비는 곧바로 또 그치니 몇몇 고을에 내린 것도 고르게 흠족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곱절로 더욱 애타게 걱정스럽습니다. 삼가 저의 감영에서 올린 등록을 살펴보면 감사가 광주 무등산에서 비를 빈 예가 이미 있습니다. 저는 날짜를 가리지 않고 해당 목으로 달려가 무등산에서 경건하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6. 1876년(고종 13) 윤5월 28일(양력 7월 19일)

全羅監司啓錄 6책(17a~17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3a~293b)

臣馳往光州牧, 虔禱於無等山計料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七日驟雨, 珍島, 得一鋤, 康津, 浥塵. 二十三日四日之雨, 任實, 得一犁, 珍山·茂長, 得一鋤, 沃溝·雲峰,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再除草, 早稻畚, 已移處, 幾盡初除草, 中晚稻畚, 有水處, 間或移秧, 木綿·黍粟, 次第再耘, 和種豆太, 已訖初耘, 根耕豆太, 立苗向青.

제가 광주목으로 달려가 무등산에서 경건하게 빌 계획인 연유를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일 소나기로 진도는 1서가 내렸고, 강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23일·24일의 비로 임실은 1려가 내렸고, 진산·무장은 1서가 내렸고, 옥구·운봉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벼 논은 이미 모내기한 곳에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물이 있는 곳은 간혹 모내기하고, 목화와 기장·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하고, 섞어 짓는 콩·팥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싹이 돌아 푸르러집니다.

0117. 1876년(고종 13) 6월 3일(양력 7월 23일)

全羅監司啓錄 6책(17b~17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3b~293b)

臣光州無等山祈雨次, 離營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去月二十八日自全州府離發, 今月初一日到光州牧, 差定祭官, 精備奠物, 初三日虔禱于無等山是白遣. 臣於今初三日, 轉向羅州牧, 依已例虔禱於南海堂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제가 광주 무등산에서 비를 빌려고 감영을 떠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달 28일 전주부에서 출발하여 이번 달 초1일 광주목에 도착하여 제관을 선정하고 제물을 꼼꼼하게 갖추어 초3일 무등산에서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달 초3일 다시 나주목으로 향하여 이전 사례대로 남해당에서 경건하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8. 1876년(고종 13) 6월 5일(양력 7월 25일)

全羅監司啓錄 6책(17b~17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3b~293c)

臣南海堂祈雨次, 轉向羅州牧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南海堂在州之南五十里許, 臣於今〈月〉初三日, 到該牧, 差定祭官, 精備奠物, 仍詣堂所, 初五日虔誠祈禱, 行將復路還營, 而止宿於羅州牧是白加尼. 同日酉時, 驟雨霑灑, 所得洽爲二鋤, 姑未開霽是白遣. 卽接光州牧使南鎬元所報, 則初三日驟雨, 得一鋤是如爲白乎所. 渴望之餘, 甘澍乍霑, 雖未優洽, 亦云幸矣. 列邑之所得多少,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남해당에서 비를 빌려고 다시 나주목으로 향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남해당은 전주의 남쪽 50리가량에 있는데 저는 이번 달 초3일 해당 목에 도착하여 제관을 선정하고 제물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이내 남해당으로 가서 초5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빌고, 장차 다시 감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주목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같은 날 유시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더니 내린 것은 흠족하도록 2서가 내렸으며,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광주 목사 남호원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3일 소나기로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타게 바라던 끝에 단비가 잠깐 내려 비록 흠족하지는 않으나 역시 다행이라고 합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9. 1876년(고종 13) 6월 8일(양력 7월 28일)

全羅監司啓錄 6책(23a~23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5c~296a)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二日三日五日六日之雨, 玉果, 得一鋤, 仍停雩祭, 礪山·咸悅·沃溝·臨陂·扶安·金溝·茂長·長城·淳昌·南原等十一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幾訖再除草, 早稻畚, 間或再除草, 中晚稻畚, 已移處, 方始初除草, 木綿·黍粟, 再耘垂畢, 和種豆太, 間間再耘, 根耕豆太, 方始初耘. 而第伏念臣遍禱境內, 至于山海薦璧之舉, 既至十二次. 而誠淺禮薄, 未蒙靈佑, 其間列邑所得, 不過鋤浥, 憂懼惶惶, 罔知所措, 固當連設, 以冀冥應, 而雩祭之只止十二次, 典式攸在乙仍于, 姑爲停止, 第俟幾日, 更爲設行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3일·5일·6일의 비로 옥과는 1서가 내려 이내 기우제를 중지하였고, 여산·함열·옥구·임파·부안·금구·무장·장성·순창·남원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으로 이미 모내기한 곳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목화와 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섞어 짓는 콩·팥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해보면 제가 전라도 내에서 두루 빌면서 산과 바다에서 기우제를 거행한 것이 이미 12차에 이르는데, 정말로 예에 천박하여 신령의 도움을 입지 못하니, 그사이에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근심과 두려움으로 어쩔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연이어 시행하여 신령의 감응을 바라지만 기우제를 단지 12차에 멈추는 것은 규정에 있으므로 일단 중지합니다. 다만 며칠 기다려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0. 1876년(고종 13) 6월 18일(양력 8월 7일)

全羅監司啓錄 6책(24a~24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6a~296c)

臣營下, 雩祭姑爲停止, 第俟幾日, 更爲設行計料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今月十六日申時始雨, 乍霏旋止, 立秋隔日, 民情尤極. 臣於十七日, 差定祭官, 精備奠物, 雩祭更爲設行於全州府德眞池是白加尼, 同日卯時又雨, 間間霏下, 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 而姑未開霽是白乎所. 渴望之餘, 優得甘露, 爲念民事, 誠極萬幸, 祈雨祭仍爲停止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二日三日五日之雨, 淳昌·南原·高敞·錦山·法聖等五邑·鎮, 得一鋤, 初六日之雨, 羅州·光州·長城等三邑, 亦得一鋤, 珍山·龍潭·長水·谷城·潭陽·井邑·泰仁·靈光·務安等九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已訖再除草, 早稻畚, 方張再除草, 中晚稻畚, 已移處, 幾訖初除草, 木綿·黍粟, 方始三耘, 和種豆太, 再耘垂畢, 根耕豆太, 方始初耘.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기우제를 일단 중지하고 다만 며칠 기다려 다시 시행할 계획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16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잠깐 부슬부슬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습니다. 입추가 이틀 뒤이니 백성들의 심정은 더욱 그지없습니다. 저는 17일 제관을 선정하여 제물을 꼼꼼하게 갖추고 전주부 덕진지에서 기우제를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묘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 갈망하던 끝에 단비가 흡족하게 내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다행스럽습니다. 기우제는 이내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2일·3일·5일의 비로 순창·남원·고창·금산·법성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초6일의 비로 나주·광주·장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산·용담·장수·곡성·담양·정읍·태인·영광·무안 등 9개 고을에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올벼 논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이미 옮겨 심은 곳에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와 기장·조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섞어 짓는 콩·팥은 두벌 김매기

를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1. 1876년(고종 13) 6월 28일(양력 8월 17일)

全羅監司啓錄 6책(26a~26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7c~297d)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六日申時量始雨, 戌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載陰載陽, 二十七日酉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七日八日之雨, 鎭安, 川渠小漲, 綾州, 得一犁, 樂安·寶城·康津·茂朱·青山島等五邑·鎭, 得一鋤, 海南·靈巖·咸平·法聖等四邑·鎭, 浥塵. 二十一日驟雨, 昌平·光州·茂長·古阜等四邑, 得二鋤, 錦山·珍山·礪山·靈光·潭陽·南平·務安等七邑, 得一鋤, 羅州·谷城·金堤·咸悅·臨陂等五邑, 浥塵. 前啓中祈雨是白在, 樂安·綾州·南平·昌平·淳昌·谷城·鎭安·高敞·茂長·古阜·扶安·泰仁等十二邑, 得雨停止.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胚胎, 中晚稻畚, 次第再除草, 木綿·黍粟, 方張三耘, 和種豆太開花, 根耕豆太, 已盡初耘, 木麥播種. 而晚移之秧, 旋枯難實是如, 迭相告悶, 民事寒心.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6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으며, 언뜻 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더니 27일 유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일·18일의 비로 진안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능주는 1려가 내렸고, 낙안·보성·강진·무주·청산도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해남·영암·함평·법성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21일 소나기로 창평·광주·무장·고부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금산·진산·여산·영광·담양·남평·무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나주·곡성·김제·함열·임피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낙안·능주·남평·창평·순창·곡성·진안·고창·무장·고부·무안·태인 등 12개 고을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알을 배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과 기장·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 짓는 콩·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메밀은 씨앗을 뿌리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곧바로 말라서 여물기 어렵다고 번갈아 걱정을 알립니다. 백성들의 사정이 가엾고 딱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2. 1876년(고종 13) 7월 8일(양력 8월 26일)

全羅監司啓錄 6책(27b~28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8b~298c)

臣營下, 今月初七日申時始雨, 初八日丑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六日之雨, 高山, 得二鋤, 珍山·礪山·益山·臨陂·金溝·和順·務安·海南等七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發穗, 移種早稻, 方張胚胎, 和種豆太, 間或結殼, 根耕豆太, 次第再耘, 木麥, 今方立苗.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7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8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의 비로 고산은 2서가 내렸고, 진산·여산·익산·임피·금구·화순·무안·해남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옮겨 심은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섞어 짓는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지금 막 싹이 돋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3. 1876년(고종 13) 7월(양력 9월)

全羅監司啓錄 6책(28a~29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8d~299a)

臣營下, 今月十一日申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日八日之雨, 錦山, 川渠漲滿, 高山, 得一犁, 礪山·臨陂·務安等三邑, 得二鋤, 茂朱·咸悅·泰仁·金溝·古阜·羅州·法聖等七邑·鎭, 得一鋤, 益山·沃溝·萬頃·金堤·扶安·井邑·興德·茂長·靈光·長城·靈巖·康津·光州·潭陽·南原·雲峰·求禮等十七邑, 浥塵., 初十日十一日之雨, 龍潭·鎭安·高敞·茂長·靈光·昌平等六邑, 川渠漲滿, 高山·益山·古阜·谷城·珍島等五邑, 得一犁, 珍山·礪山·臨陂·潭陽·光州等五邑, 得二鋤, 茂朱·咸悅·沃溝·金堤·泰仁·井邑·長城·淳昌·玉果·南平·咸平·光陽·南原·長水·雲峰·任實·法聖等十七邑·鎭, 得一鋤, 龍安·金溝·扶安·樂安·寶城等五邑, 浥塵. 前啓中祈雨是白在, 咸悅·沃溝·井邑·靈光·咸平·務安等六邑, 得雨停止. 農形段, 付種早稻, 次第發穗, 移種早稻, 間間發穗, 中晚穗[稻], 早移者, 方張胚胎, 木綿, 結穎, 黍粟, 發穗, 和種豆太, 與根耕豆太, 間或結殼, 木麥, 向茁.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1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7일·8일의 비로 금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은 1려가 내렸고, 여산·임피·무안 등 3개 고을에 2서가 내렸고, 무주·함열·태인·금구·고부·나주·법성 등 7개 고을과 군영 1서가 내렸고, 익산·옥구·만경·김제·부안·정읍·홍덕·무장·영광·장성·영암·강진·광주·담양·남원·운봉·구례 등 1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초10일·11일의 비로 용담·진안·고창·무장·영광·창평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익산·고부·곡성·진도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진산·여산·임피·담양·광주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무주·함열·옥구·김제·태인·정읍·장성·순창·옥과·남평·함평·광양·남원·장수·운봉·임실·법성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용안·금구·부안·낙안·보성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함열·옥구·정읍·영광·함평·무안 등 6개 고을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법씨를 뿌린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로 일찍 옮겨 심은 것은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다래를 맺고, 기장·조는 이삭이 패고, 섞어 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4. 1876년(고종 13) 7월 21일(양력 9월 8일)

全羅監司啓錄 6책(29a~29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9a~299a)

臣營下, 今月二十日口始雨, 或霏或灑, 二十一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0일 □□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으며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5. 1876년(고종 13) 7월 28일(양력 9월 15일)

全羅監司啓錄 6책(29a~29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6책(299b~299c)

臣營下, 今月二十一日辰時至雨澤, 前道臣鄭,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日二十一日之雨, 鎭安·咸悅, 川渠漲滿, 珍山·務安, 得一犁, 龍潭·南原, 得二鋤, 長水·錦山·礪山·龍安·淳昌等五邑, 得一鋤, 泰仁·益山·雲峰·任實·求禮·光州等六邑, 浥塵. 前啓中祈雨是白在, 龍安·萬頃·和順·興德·靈巖·康津·長興·海南等八邑, 雖尙惜乾, 白露已過, 雩祭不得已停止. 農形段, 付種早稻, 已皆發穗, 移種早稻, 次第發穗, 中晚稻, 早移者, 幾盡胚胎, 木錦, 間間摘架, 黍粟, 方張發穗, 和種豆太, 與根耕豆太, 間或入實, 木麥, 方始開花.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1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이전 관찰사 정범조(鄭範朝)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0일과 21일의 비로 진안·함열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산·무안은 1려가 내렸고, 용담·남원은 2서가 내렸고, 장수·금산·여산·용안·순창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태인·익산·운봉·임실·구례·광주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는 용안·만경·화순·홍덕·영암·강진·장흥·해남 등 8개 고을은 비록 아직도 가뭄을 걱정하지만 이미 백로가 지나 기우제는 어쩔 수 없이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삭이 패고, 옮겨 심은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 중 일찍 옮겨 심은 곳은 거의 다 알을 뻗고, 묵화는 간간이 숨을 따서 거두고, 기장·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섞어 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알이 들고, 메밀은 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6. 1885년(고종 22) 2월 19일(양력 4월 4일)

全羅監司啓錄 7책(77a~77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0a~300b)

道內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八日始雨，間或霏灑，十九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七分，而始[姑]未開霽是白遣。農形段，連接各邑所報，則早稻畚，間間初翻耕，兩麥漸次向青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8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19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으며,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뉘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7. 1885년(고종 22) 2월 25일(양력 4월 10일)

全羅監司啓錄 7책(78a~78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0c~300d)

臣營下, 今月十九日寅時至, 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斷續霏灑, 二十三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自十九日至二十一日之雨, 鎭安, 川渠漲滿, 珍山·錦山·南原·任實·龍潭·長水·昌平·光陽·茂長·長城十邑, 得一鋤, 礪山·益山·臨陂·萬頃·沃溝·龍安·金堤·泰仁·扶安·古阜·金溝·興德·潭陽·靈光·樂安等十五邑, 沍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9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때 이후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2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9일부터 21일까지 비로 진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산·금산·남원·임실·용담·장수·청평·광양·무장·장성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익산·임피·만경·옥구·용안·김제·태인·부안·고부·금구·홍덕·담양·영광·낙안 등 1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8. 1885년(고종 22) 2월 28일(양력 4월 13일)

全羅監司啓錄 7책(79a~79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1b~301b)

臣營下, 今月二十三日卯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五日酉時又雨, 或霏或灑, 二十八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二日三日之雨, 玉果, 川渠漲滿, 高敞·務安·咸平·同福等四邑, 得一犁, 羅州·南平·和順·長興·谷城·求禮·茂朱·法聖等八邑·鎭, 得一鋤, 雲峰·淳昌·順天·井邑·咸悅·群山鎭六邑等, 浥塵. 農形段, 早稻畚, 次第初翻耕, 兩麥, 方張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3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5일 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1일·22일·23일의 비로 옥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창·무안·함평·동북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나주·남평·화순·장흥·곡성·구례·무주·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운봉·순창·순천·정읍·함열·군산·진안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한창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9. 1885년(고종 22) 3월 8일(양력 4월 22일)

全羅監司啓錄 7책(79b~80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1c~301d)

臣營下, 去月二十八日卯時至, 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五日, 至二十九日之雨, 高山·珍山·龍潭·鎭安·求禮·綾州·昌平·康津等八邑, 川渠漲滿, 金溝·高敞·南平·海南·南原·雲峰·長水·錦山·礪山等九邑, 得一犁, 泰仁·金堤·臨陂·沃溝·龍安·萬頃·井邑·古阜·長城·羅州·茂長·同福·光州·淳昌·谷城·任實·法聖等十七邑·鎭, 得一鋤, 靈巖·潭陽·樂安·順天·扶安·益山等六邑, 浥塵. 農形段, 早稻畚, 方張初翻耕, 中晚稻畚, 間或初翻耕, 兩麥, 漸次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지난달 28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로 고산·진산·용담·진안·구례·능주·창평·강진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고창·남평·해남·남원·운봉·장수·금산·여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인·김제·임피·옥구·용안·만경·정읍·고부·장성·나주·무장·동복·광주·순창·곡성·임실·법성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영암·담양·낙안·순천·부안·익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싹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0. 1885년(고종 22) 3월 18일(양력 5월 2일)

全羅監司啓錄 7책(81a~81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2b~302c)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四日亥時始雨, 斷續霏灑, 十五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任實·潭陽, 浥塵. 農形段, 付種, 方始耕播, 早稻畝, 間或再翻耕, 中晚稻畝, 次第初翻耕, 秧板間間注種, 大麥胚胎, 小麥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4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5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임실·담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는 것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못자리는 간간이 물을 대서 볍씨를 뿌리고, 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싹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1. 1885년(고종 22) 3월 28일(양력 5월 12일)

全羅監司啓錄 7책(81a~81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2c~302c)

臣營下, 今月二十五日卯時至, 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五日之雨, 金溝, 得二鋤, 任實·淳昌·長城·金堤·沃溝·等五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張耕播, 早稻畚, 次第再翻耕, 中晚稻畚, 間或再翻耕, 秧板方張注〈種〉,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始耕播, 大麥, 發穗, 小麥, 胚胎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5일 묘시까지의 우택을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5일의 비로 금구는 2서가 내렸고, 임실·순창·장성·김제·옥구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는 논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올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못자리는 한창 물을 대서 볍씨를 뿌리고 있고, 목화와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보리는 이삭이 패고, 밀은 알을 밴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2. 1885년(고종 22) 4월 8일(양력 5월 21일)

全羅監司啓錄 7책(82a~82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2d~303a)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五日之雨, 南平, 得二鋤, 光州·海南·龍安·康津等四邑, 得一鋤, 順天·南原·鎭安·臨陂等四邑, 浥塵. 農形段, 付種及秧板, 方始立苗, 早稻, 幾訖再翻耕, 中晚稻畚, 次第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張耕播, 大麥入實, 小麥發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5일의 비로 남평은 2서가 내렸고, 광주·해남·용안·강진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천·남원·진안·임피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막 싹이 트기 시작했고, 올벼는 두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목화와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알이 들고, 밀은 이삭이 팬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3. 1885년(고종 22) 4월 18일(양력 5월 31일)

全羅監司啓錄 7책(1a~1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3c~303d)

臣營下, 今月十一日午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十七日午時又雨, 間間霏灑, 十八日申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一日二日之雨, 高敞, 得二鋤, 珍山·臨陂·高山·扶安·萬頃·沃溝·光州·務安·咸平·昌平·海南等十一邑, 得一鋤, 礪山·錦山·益山·龍安·金堤·古阜·興德·金溝·茂長·靈巖·長城·長水·雲峰·任實·南原·順天·光陽·谷城·綾州·潭陽·同福·求禮等二十二邑, 浥塵. 農形段, 付種及秧板, 立苗向青, 早稻畚, 已訖再翻耕, 中晚稻畚, 幾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耕播垂畢, 大麥, 間間向熟, 小麥, 方始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1일 오시까지의 우택을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7일 오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18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으며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12일의 비로 고창은 2서가 내렸고, 진산·임피·고산·부안·만경·옥구·광주·무안·함평·창평·해남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금산·익산·용안·김제·고부·홍덕·금구·무장·영암·장성·장수·운봉·임실·남원·순천·광양·곡성·능주·담양·동북·구례 등 2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짝이 돌아 푸르러지고, 올벼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와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보리는 간간이 익어가고, 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4. 1885년(고종 22) 4월 28일(양력 6월 10일)

全羅監司啓錄 7책(1b~2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3d~304a)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七日寅時始雨, 或霏或灑, 二十八日申時至, 測雨器水深, 爲二寸二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一日之雨, 珍島, 得一鋤, 玉果·和順, 浥塵, 十八日九日之雨, 鎭安·龍潭, 川渠漲滿, 康津, 得二犁, 錦山·珍山·高山·興德·高敞·綾州·南平·寶城·任實·雲峰·長水·興陽·海南·加里浦等十四邑·鎭, 得一犁, 茂朱·潭陽·光陽·同福·靈巖·茂長·長興·法聖等八邑·鎭, 得二鋤, 南原·淳昌·樂安·長城·靈光·臨陂·沃溝·泰仁等九邑, 得一鋤, 金堤·礪山·益山·古阜·咸悅·井邑·順天·玉果·龍安等九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初除草, 早稻畚, 間或移秧, 中晚稻畚, 已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間立苗, 大麥幾盡向熟, 小麥次第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7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으며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의 비로 진도는 1서가 내렸고, 옥과·화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8일·19일의 비로 진안·용담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진은 2려가 내렸고, 금산·진산·고산·홍덕·고창·능주·남평·보성·임실·운봉·장수·홍양·해남·가리포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무주·담양·광양·동북·영암·무장·장흥·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2서가 내렸고, 남원·순창·낙안·장성·영광·임피·옥구·태인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김제·여산·익산·고부·함열·정읍·순천·옥과·용안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 논은 간혹 모내기하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이미 마쳤고, 목화와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간간이 싹이 돋고, 보리는 거의 다 익어가고, 밀은 차례로 알이 든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5. 1885년(고종 22) 5월 8일(양력 6월 20일)

全羅監司啓錄 7책(3b~4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5a~305b)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七日酉時始雨, 或霏或灑, 初八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九日之雨, 龍潭·珍山·益山·高敞·興德·靈光·咸平等七邑, 川渠漲滿, 萬頃, 得二犁, 錦山·礪山·扶安·古阜·泰仁·光州·興陽·海南·康津等九邑, 得一犁, 羅州·長興·茂朱·長水·金溝·南平·法聖等七邑·鎭, 得二鋤, 高山·井邑·臨陂·沃溝·金堤·長城·茂長·任實·淳昌·南原·雲峰·求禮·綾州·玉果·潭陽·同福·寶城·和順等十八邑, 得一鋤, 咸悅·鎭安·樂安·龍安·谷城·順天·昌平等七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張初除草, 早稻畚, 間間移秧, 中晚稻畚, 有水處, 間或移秧,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始初耘, 大麥, 次第刈取, 小麥, 幾盡向熟是如爲白乎所. 秧節纔屈, 甘澍時若, 助糧董役, 期圖早移之意, 措辭題飭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7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으며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29일의 비로 용담·진산·익산·고창·홍덕·영광·함평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만경은 2려가 내렸고, 금산·여산·부안·고부·태인·광주·홍양·해남·강진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나주·장흥·무주·장수·금구·남평·법성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2서가 내렸고, 고산·정읍·임피·옥구·김제·장성·무장·임실·순창·남원·운봉·구례·능주·옥과·담양·동북·보성·화순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함열·진안·낙안·용안·곡성·순천·창평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논은 간간이 모내기하고, 중벼·늦벼 논은 물이 있는 곳은 간혹 모내기하고, 목화와 기장·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밀은 거의 다 익어간다고 합니다. 모내기철이 막 닳았는데 단비가 때에 맞아서

식량을 돕고 일을 감독하여 기어이 도모하여 일찍 모내기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6. 1885년(고종 22) 5월 18일(양력 6월 30일)

全羅監司啓錄 7책(5b~4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5d~306a)

臣營下及道內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六日酉時始雨，間間霏微，十七日申時至，測雨器水深爲四分，載陰載暘，十八日辰時，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今月十三日四日之雨，綾州·昌平·茂長·靈巖·務安等五邑，川渠漲滿，礪山·扶安·南平·任實·順天·高山·潭陽·長水等八邑，得一鋤，臨陂·金溝·金堤·泰仁·鎮安·益山·雲峰等七邑，浥塵。農形段，付種畚，幾訖初除草，早·中·晚稻畚，有水處，次第移秧，木綿·黍·粟，方張初耘，和種豆·太，間間初耘，根耕豆·太，間或播種，大麥，已盡刈取，小麥，方始刈取，而宿水未退，新潦添漲，汚陷諸坪，沈墊汰覆，纔移之秧，幾至消灑，未收之麥，亦多腐傷是如，沈野諸邑，迭相告悶，言念民事，誠甚憧憧。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 및 전라도 내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17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언뜻언뜻 흐리다가 별이 나다가 18일 진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14일의 비로 능주·창평·무장·영암·무안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여산·부안·남평·임실·순천·고산·담양·장수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피·금구·김제·태인·진안·익산·운봉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거의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올벼·중벼·늦벼는 물이 있는 논부터 차례로 모내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했고 그루갈이하는 콩·팥은 간혹 씨앗을 뿌렸고 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밀도 막 베어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물이 빠지지 않은데다 새로 큰비가 더 불어나서 지대가 낮은 여러 땅들은 물에 잠기고 사태로 뒤덮여 서 방금에 옮긴 모는 거의 다 녹아버렸고 거두지 못한 밀은 또한 썩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들판이 잠긴 여러 고을은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7. 1885년(고종 22) 6월 8일(양력 7월 19일)

全羅監司啓錄 7책(13b~14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09d~310a)

臣營下, 今月初二日辰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六日寅時又雨, 或霏或灑, 初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五寸,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寶城·光州·康津·海南等四邑, 川渠漲滿, 今月初一日初二日之雨, 泰仁·扶安, 川渠漲滿, 臨陂·金溝·任實等三邑, 得一犁, 沃溝·益山·金堤·井邑·古阜·長城·高山·潭陽·雲峰·南平等十邑, 得一鋤, 礪山,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再除草, 早中稻畚, 方張初除草, 晚稻畚, 已移處, 間間初除草, 木綿·黍·粟, 次第再耘, 和種豆·太, 幾盡初耘, 根耕豆·太, 方始立苗. 而人力未及, 秧役尙愆, 積水屢漲, 災損太甚是如, 沿峽諸邑, 迭相告悶, 言念民事, 轉益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2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6일 인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보성·광주·강진·해남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이번 달 초1일·초2의일의 비로 태인·부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임파·금구·임실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옥구·익산·김제·정읍·고부·장성·고산·담양·운봉·남평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두벌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중벼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 논 중 이미 옮겨 심은 곳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쉬어짓는 콩·팥은 거의 다 초벌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해 모내기하는 일이 아직 지체되었는데 물이 쌓이고 여러 번 불어나 재해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물가나 산골 여러 고을에서는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리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8. 1885년(고종 22) 6월 18일(양력 7월 29일)

全羅監司啓錄 7책(14b~15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10a~310c)

臣營下, 今月十三日申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間霑灑, 十七日酉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八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六日七日之雨, 臨陂·益山·萬頃·咸悅·龍安·長水·任實等七邑, 川渠漲滿, 初十日十一日之雨, 金溝·高山·金堤·益山·臨陂·鎮安·扶安·井邑·高敞·樂安·龍潭·南原·求禮·泰仁·務安·萬頃·茂朱·長城·茂長·淳昌·綾州·古阜·興德·寶城·同福·龍安·羅州·和順·潭陽·光陽·光州·南平·咸平·昌平·錦山·珍山·雲峰·沃溝·谷城·靈光·法聖等四十一邑, 川渠漲滿, 康津, 得二犁, 興陽, 得一鋤. 農形段, 付種畚, 幾訖再除草, 早·中晚稻畚, 間或再除草, 晚稻畚, 已移處次第初除草, 木綿·黍·粟, 方張再耘, 和種豆·太, 已盡初耘, 根耕豆·太, 立苗向青. 而依山傍浦之地, 汰覆相續, 汚陷沈墊之坪, 消灑居多, 民家頽頽, 人命淪死, 亦多有之是如爲白乎所. 當此各穀方茁之時, 久雨極備, 受損非細, 各邑告悶, 誠甚憧憧, 頽戶多少, 待水退摘奸馳報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3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에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7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6일·7일의 비로 임피·익산·만경·함열·용안·장수·임실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초10일·11일의 비로 금구·고산·김제·익산·임피·진안·부안·정읍·고창·낙안·용담·남원·구례·태인·무안·만경·무주·장성·무장·순창·능주·고부·홍덕·보성·동복·용안·나주·화순·담양·광양·광주·남평·함평·청평·금산·진산·운봉·옥구·곡성·영광·법성 등 4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진은 2려가 내렸고 홍양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법씨를 뿌린 무논은 거의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올벼·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김매기를 하였고 늦벼 논 중 이미 옮겨 심은 곳은 차례로 초벌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섞여짓는 콩·팥은 이미 다 초벌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짝이 돌아 푸르러졌습니다. 산자락이나 포구 옆 지역은 사태

로 뒤덮여 서로 이어졌고 지대가 낮아 물에 잠긴 땅은 (곡식들이) 대부분은 녹아 없어졌고 무너진 백성 집과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막 싹틀 때인데 오래 비가 갓가지로 그지없이 내려 손해 입은 것이 적지 않아 각 고을에서는 걱정을 아뢰니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너진 가구의 숫자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보고 긴급보고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9. 1885년(고종 22) 7월 8일(양력 8월 17일)

全羅監司啓錄 7책(16b~17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11b~311c)

臣營下及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九日之雨, 珍山, 川渠漲滿, 羅州·寶城, 得一犁, 長城·光州·綾州·潭陽·靈光·茂長等六邑, 得一鋤, 樂安·泰仁·沃溝·金堤·高山·益山等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胚胎, 移種早稻畚, 已訖再除草, 中晚稻畚, 已移處方張再除草, 木綿·黍·粟, 次第三耘, 和種豆·太, 幾訖再耘, 根耕豆·太, 間或再耘, 木麥, 播種垂畢是如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 및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8일·29일의 비로 진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나주·보성은 1려가 내렸고 장성·광주·능주·담양·영광·무장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낙안·태인·옥구·김제·고산·익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알을 배었고 옮겨 심은 올벼 논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중벼·늦벼 논 중 이미 옮겨 심은 곳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메밀은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0. 1885년(고종 22) 7월 18일(양력 8월 27일)

全羅監司啓錄 7책(17a~17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11c~311d)

臣營下, 今月十三日酉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三日之雨, 南原·雲峰·光州·井邑·興德·高山等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發穗, 移種早稻, 方張胚胎, 中晚稻畚, 已移處已訖再除草, 木綿, 間或開花, 黍·粟, 次第胚胎, 和種豆·太, 間間開花, 根耕豆·太, 初耘垂畢, 木麥, 方始立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3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2일·13일의 비로 남원·운봉·광주·정읍·홍덕·고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 논은 간혹 이삭이 났고, 옮겨 심은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늦벼 논 중 이미 옮겨 심은 곳은 두벌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었고, 기장·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꽃이 피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가 거의 마쳤고 메밀은 막 싹이 돋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1. 1885년(고종 22) 7월 28일(양력 9월 6일)

全羅監司啓錄 7책(18b~18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12b~312b)

臣營下, 今月二十二日寅時至, 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六日午時又雨, 斷續霏灑, 二十八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一日二二日之雨, 鎭安·龍潭等三邑, 川渠漲滿, 高山·高敞·法聖等三邑·鎭, 得一犁, 沃溝·興德·金堤·淳昌·任實·泰仁·扶安·南原·羅州·綾州·雲峰·茂朱·寶城·務安·長水·潭陽·金溝·昌平·臨陂·光州等二十邑, 得一鋤, 谷城·長城·古阜·樂安·南平·玉果·井邑·靈光等八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次第發穗, 移種早稻, 間間發穗, 中晚稻, 方張胚胎, 木綿, 間或結顆, 黍·粟, 發穗, 和種豆·太, 結殼, 根耕豆·太, 開花, 木麥, 向茁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2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6일 오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8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22일의 비로 진안·용담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고창·법성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옥구·홍덕·김제·순창·임실·태안·부안·남원·나주·능주·운봉·무주·보성·무안·장수·담양·금구·창평·임피·광주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곡성·장성·고부·낙안·남평·옥과·정읍·영광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묵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기장·조는 이삭이 뻗고, 섞어짓는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고 메밀은 싹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2. 1885년(고종 22) 8월 8일(양력 9월 16일)

全羅監司啓錄 7책(19b~20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12c~313a)

臣營下, 今月初六日酉時至, 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五日酉時又雨, 斷續霑灑, 初七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七日八日之雨, 寶城·同福·興陽·茂長·南平·務安·谷城·樂安·雲峰·綾州·加里浦等十二邑·鎮, 川渠漲滿, 南原·咸平·光陽·長水等四邑, 得一犁, 金堤·潭陽·光州·法聖等四邑·鎮, 得一鋤, 任實·鎮安,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間垂穎, 移種早稻, 次第發穗, 中晚稻, 方張發穗, 木綿, 間或摘絮, 黍·粟, 幾盡發穗, 和種豆·太, 與根耕豆·太, 間或入實, 木麥, 方始開花. 而去二十八日九日, 獐風大作, 早稻, 舉皆披靡, 太半萎黃, 中晚稻, 亦多蹲縮, 木綿, 則花房撲落, 豆·太, 則莖葉蹂躪, 結穎入實, 殆無所望, 一日之頃, 豐歉立判是如, 峽沿諸邑, 式日告悶, 言念民事, 誠甚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6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5일 유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7일·28일의 비로 보성·동북·홍양·무장·남평·무안·곡성·낙안·운봉·능주·가리포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남원·함평·광양·장수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제·담양·광주·법성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임실·진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옮겨 심은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목화는 간혹 따고 있고, 기장·조는 거의 다 이삭이 뻗고, 섞어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것은 간혹 알이 들었고, 메밀은 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29일에 사나운 바람이 크게 불어 올벼는 거의 다 쓸리고 대부분이 누렇게 시들었고 중벼는 막 대부분 벼멸구가 많았고, 목화는 화방이 떨어지고 콩·팥의 줄기와 잎은 짓밟힌듯하여 다래를 맺고 알이 들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정도면 풍년이든 흉년이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가와 산골 여러 고을에서는 매일 걱정을 아뢰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3. 1885년(고종 22) 8월 18일(양력 9월 26일)

全羅監司啓錄 7책(22a~21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13c~313d)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一日二日之雨, 咸悅, 川渠漲滿, 金溝·南原·茂長等三邑, 得一鋤, 龍安·泰仁, 浥塵, 初七日八日之雨, 礪山·南原·茂朱·龍潭·珍山·臨陂·高山·鎭安·古阜·綾州·高敞等十一邑, 川渠漲滿, 金溝·樂安·同福·興陽·靈巖·加里浦等六邑, 得一犁, 任實·潭陽·興德·雲峰·扶安·金堤·靈光·長城·法聖等九邑·鎭, 得一鋤, 谷城,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舉皆垂穎, 移種早稻, 或盡發穗, 中稻畚, 次第發穗, 木綿, 間間摘絮, 黍·粟, 間或入實, 和種豆·太, 與根耕豆·太, 方張入實, 木麥, 方始結穀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일과 2일의 비로 함열 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남원·무장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안·태인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초7일과 초8일의 비로 여산·남원·무주·용담·진산·임피·고산·진안·고부·능주·고창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낙안·동북·홍양·영암·가리포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고, 임실·담양·홍덕·운봉·부안·김제·영광·장성·법성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곡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거의 모두 고개를 숙이고 옮겨 심은 올벼는 더러 이삭이 다 뻗고 중벼 논은 차례로 이삭이 뻗고 목화는 간간이 뻗고 기장·조는 간혹 알이 들었고, 섞어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도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4. 1886년(고종 23) 2월 18일(양력 3월 23일)

全羅監司啓錄 7책(42a~42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3d~324a)

臣營下今月十六日寅時始雨, 間間霏微, 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 而仍爲開齊[霽]是白遣. 農形段, 早稻畚, 間或翻耕, 兩麥, 方始敷青是如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인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히 가랑비가 내리다가 1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간혹 갈아엎었고 보리와 밀은 막 푸르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5. 1886년(고종 23) 2월 28일(양력 4월 2일)

全羅監司啓錄 7책(42b~42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4a~324b)

臣營下, 雨澤及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八日九日之雨, 光州·同福, 得一犁, 長城·金堤·錦山·南原·金溝·和順·南平·玉果·茂長·長興·康津等十一邑, 得一鋤, 益山·泰仁·鎭安·淳昌·臨陂·樂安·昌平·順天等八邑, 溫塵. 農形段, 早稻畚, 間間初翻耕, 兩麥, 漸次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 우택 및 충청도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8일과 19일의 비로 광주·동북은 1려가 내렸고 장성·김제·금산·남원·금구·화순·남평·옥과·무장·장흥·강진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익산·태인·진안·순창·임피·낙안·창평·순천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갈이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뵐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6. 1886년(고종 23) 3월 8일(양력 4월 11일)

全羅監司啓錄 7책(43b~44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4d~324d)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六日亥時始雨, 間間霏微, 初七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置. 初一日二日之雨, 營下無所得, 而連接各邑所報, 則務安, 得一犁, 南原·金堤·茂朱·珍山·高敞·錦山·雲峰·潭陽·求禮·光州等十一邑, 得一鋤, 金溝·順天·泰仁·益山·任實·礪山·龍潭·鎭安·臨陂·谷城·龍安·井邑·光陽·淳昌·靈光·群山·聖堂等十七邑·鎭, 浥塵. 農形段, 早稻畚, 次第初翻耕, 兩麥, 方張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해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가랑비가 내리다가 초7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초1일과 초2일의 비로 감영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무안은 1려가 내렸고 남원·김제·무주·진산·고창·금산·운봉·담양·구례·광주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구·순천·태인·익산·임실·여산·용담·진안·임피·곡성·용안·정읍·광양·순창·영광·군산·범성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차례로 초벌갈이했고 보리와 밀은 한창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7. 1886년(고종 23) 3월 18일(양력 4월 21일)

全羅監司啓錄 7책(44b~44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5b~325b)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七日八日之雨, 泰仁, 川渠漲滿, 珍島·玉果, 得一犁, 金堤·珍山·龍安·康津·高敞·南原·綾州·羅州·錦山·咸平·長水·同福等十二邑, 得一鋤, 金溝·益山·任實·鎭安·扶安·興德·咸悅·求禮·萬頃·礪山·樂安·順天·臨陂·沃溝·潭陽·聖堂等十六邑·鎭, 浥塵. 農形段, 早稻畚, 方張初翻耕, 兩麥, 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7일과 초8일의 비로 태인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도·옥과는 1려가 내렸고 김제·진산·용안·강진·고창·남원·능주·나주·금산·함평·장수·동북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구·익산·임실·진안·부안·홍덕·함열·구례·만경·여산·낙안·순천·임피·옥구·담양·법성 등 16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한창 초벌갈이를 하고 있고 보리와 밀은 싹이 무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8. 1886년(고종 23) 3월 28일(양력 5월 1일)

全羅監司啓錄 7책(45a~45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5d~326a)

臣營下, 今月二十一日酉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七日又雨, 間間微灑, 二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二日之雨, 同福, 川渠漲滿, 高山·興德·務安等三邑, 得一犁, 礪山·扶安·高敞·金溝·任實·龍潭·益山·茂朱·古阜·金堤·珍山·玉果·雲峰·茂長·泰仁·樂安·龍安·南原·淳昌·光陽·法聖·群山等二十三邑·鎭, 得一鋤, 萬頃·井邑·鎭安·沃溝等四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耕播, 早稻畚, 間或再翻耕, 中晚稻畚, 間間初翻耕, 秧坂, 間或注種,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間耕播, 大麥, 胚胎, 小麥, 苗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1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7일에 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미미하게 뿌리다가 2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1일과 22일의 비로 동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홍덕·무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여산·고창·금구·임실·부안·용담·익산·무주·고부·김제·진산·옥과·운봉·무장·태인·낙안·용안·남원·순창·광양·법성·군산 등 23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만경·정읍·진안·옥구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땅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갈이를 하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간간이 초벌갈이를 하고 있고, 모판은 간혹 벼씨를 뿌렸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보리는 이삭이 배었고 밀은 싹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9. 1886년(고종 23) 6월 28일(양력 7월 29일)

全羅監司啓錄 7책(46b~47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6c~326c)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日申時, 驟雨霎時霏灑, 測雨器水深爲三分, 而仍卽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珍山, 得一鋤, 高山·臨陂·龍安·淳昌·群山·聖堂等六邑·鎮,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張再除草, 早中稻畚, 幾盡初除草, 晚稻畚, 早移處間間初除草, 木綿·黍·粟, 再耘垂畢, 和種豆·太, 間或再耘, 根耕豆·太, 方始初耘, 秧不足處外, 今纔畢移. 而彌月惜乾之餘, 向日雨澤, 僅止鋤浥, 田畚舉<皆龜>坼, 堤汎亦致魚喁, 桔槔無功, 隨處樞[枯]涸是如, 迭相告悶, 言念民情, 誠甚憧憧. 泰仁·全州請行雩祭, 以不卜日虔誠設行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신시에 소나기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기도 했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이내 즉시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 비로 진산은 1서가 내렸고 고산·임피·용안·순창·군산·성당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한창 두벌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중벼 논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 논은 일찍 옮겨 심은 것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두벌 김매기가 거의 마쳤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초벌김매기를 시작했고 모가 부족한 것 이외에는 이제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한달 동안 가문 나머지 지난번 우택으로 겨우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여서 논밭 대부분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독과 보 또한 물고기가 입을 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두레박질을 해도 헛수고여서 가는 곳 마다 매우 메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태인·전주에서 요청한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지내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0. 1886년(고종 23) 7월 8일(양력 8월 6일)

全羅監司啓錄 7책(47a~47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6d~327a)

臣營下, 今月初五日辰時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斷續霑灑, 初六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 仍卽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三日四日之雨, 鎭安·高敞, 得一犁, 金溝·泰仁·龍安·聖堂等四邑·鎭, 得一鋤, 臨陂·淳昌, 溫塵. 農形段, 付種畚, 已訖再除草, 早中稻畚, 間間再除草, 晚稻畚, 方張初除草, 木綿·黍·粟, 再耘垂畢, 和種豆·太, 間或再耘, 根耕豆·太, 方張初耘. 而前啓中祈雨是白在, 全州·泰仁, 得雨停止是如爲白乎所. 謁[渴]望之餘, 甘霈周洽, 言念民情, 誠甚萬幸.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끊어졌다 이어졌다하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6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는데 이내 즉시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3일과 초4일의 비로 진안·고창은 1려가 내렸고, 금구·태인·용안·성당법성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으나 임피·순창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이미 두벌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올벼·중벼 논은 간간이 두벌김매기를 하고 늦벼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초벌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한 것 중 기우제를 지낸 전주와 태인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갈망하던 나머지 단비가 두루 적셨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1. 1886년(고종 23) 8월 18일(양력 9월 15일)

全羅監司啓錄 7책(51a~51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8d~329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九日酉時始雨, 斷續霏灑, 十二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同時以後, 載陰載暘, 十八日午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同日之雨, 昌平, 川渠漲滿, 金溝·古阜·寶城等三邑, 得一犁, 任實·礪山·益山等三邑, 得一鋤, 臨陂·鎭安·泰仁·金堤·谷城等五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方張刈取, 中晚稻, 間間垂穎, 木綿, 今方摘絮, 黍·粟, 方始向熟, 豆·太和種與根耕, 次第向熟, 木綿, 已盡結穀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졌다하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2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후 잠깐 흐리기도 하고 잠깐 별이 나기도 하다가 18일 오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같은 날 비로 창평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고부·보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임실·여산·익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파·진안·태인·김제·곡성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한창 베어 거두었고 중벼·늦벼는 간간이 고개를 숙였으며, 목화는 이제 막 솜을 땀고 기장·조는 막 익어가기 시작하고 콩·팥의 경우, 섞어짓는 것과 그루갈이한 것은 차례대로 익어갔고 메밀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2. 1886년(고종 23) 8월 28일(양력 9월 25일)

全羅監司啓錄 7책(52a~52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9b~329c)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早稻, 幾盡刈取, 移種早稻, 方張刈取, 中晚稻, 次第垂穎, 木綿, 方張摘絮, 參粟, 漸次向熟, 豆·太和種與根耕, 間或收穫, 木麥, 方始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모를 옮겨 심은 올벼는 한창 베어 거두었고, 중벼·늦벼는 차례대로 모두 고개를 숙였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고 있고 기장·조는 점차 익어가고 있고, 콩·팥의 경우, 섞어짓는 것과 그루같이한 것은 간혹 수확하였고 메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3. 1887년(고종 24) 3월 18일(양력 4월 11일)

全羅監司啓錄 7책(75a~7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1a~341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七日申時始雨, 或霏或灑, 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初八日之雨, 營下無所得, 而連接各邑所報, 則錦山·茂朱·高敞·金溝·光州·玉果·同福·咸平·寶城·長興·靈巖·康津·海南等十三邑, 得一鋤, 礪山·高山·益山·臨陂·萬頃·金堤·扶安·興德·泰仁·長城·靈光·昌平·樂安·順天·光陽·求禮·谷城·南原·任實·龍潭·鎮安等二十一邑, 浥塵. 農形段, 早稻畚, 間間初翻耕, 兩麥, 漸次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17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더러 뿌리다가 1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초8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것은 없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금산·무주·고창·금구·광주·옥과·동북·함평·보성·장흥·영암·강진·해남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고산·익산·임피·만경·김제·부안·홍덕·태인·장성·영광·창평·낙안·순천·광양·구례·곡성·남원·임실·용담·진안 등 2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갈이를 했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4. 1887년(고종 24) 3월 28일(양력 4월 21일)

全羅監司啓錄 7책(75b~76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1b~341c)

臣營下, 今月十八日至, 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城·咸平·務安等三邑, 川渠漲滿, 高敞·羅州·南平·玉果·同福·康津·珍島等七邑, 得一犁, 茂朱·龍潭·興陽等三邑, 得二鋤, 高山·錦山·長水·茂長·靈巖·寶城·樂安等七邑, 得一鋤, 礪山·益山·龍安·咸悅·臨陂·沃溝·萬頃·金堤·扶安·興德·井邑·泰仁·金溝·任實·南原·谷城·求禮·淳昌·昌平·順天等二十邑, 浥塵. 農形段, 早稻畚, 次第翻耕, 中晚稻畚, 間或初翻耕, 兩麥, 漸次第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8일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 비로 고창·나주·남평·옥과·동북·강진·진도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무주·용담·홍양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고산·금산·장수·무장·영암·보성·낙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나 여산·익산·용안·함평·임피·옥구·만경·김제·부안·홍덕·정읍·태인·금구·임실·남원·곡성·구례·순창·창평·순천 등 2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차례로 땅을 갈아엎었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초벌갈이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싹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뵐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5. 1887년(고종 24) 4월 8일(양력 4월 30일)

全羅監司啓錄 7책(76b~76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1d~342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七日寅時始雨, 或霏或灑, 酉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農形段, 付種畓, 方始耕播, 早稻畓, 間或再翻耕, 中晚稻畓, 次第初翻耕, 秧坂, 間間注種, 大麥, 胚胎, 小麥, 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릴 무논은 막 땅을 갈고 씨를 뿌렸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갈이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초벌갈이를 하고 모내기 모판에는 간간이 벼씨를 뿌렸고 보리는 이삭이 배었고 밀은 싹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6. 1887년(고종 24) 4월 28일(양력 5월 20일)

全羅監司啓錄 7책(83a~83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2c~342d)

道內農形, 前道臣尹榮信,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及秧坂, 方始立苗, 早稻畚, 幾訖再翻耕, 中晚稻畚, 次第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張耕播, 大麥, 入實, 小麥, 發穗是如. 報來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선 관찰사 윤영신이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벼씨를 뿌린 무논과 모내기 모판은 막 싹이 자라기 시작하였고 올벼 논은 두벌갈이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에도 차례로 두벌갈이를 하였고 목화·기장·조, 섞어짓기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보리는 알이 들고 밀은 이삭이 패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7. 1887년(고종 24) 윤4월 8일(양력 5월 30일)

全羅監司啓錄 7책(83b~83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2d~342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及早稻秧坂, 立苗向青, 早稻畚, 已訖再翻耕, 中晚稻畚, 幾訖初<翻>耕, 木綿·黍·粟, 和種 豆·太, 耕播垂畢, 大麥, 方始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범씨를 뿌린 무논 및 올벼 모판은 싹이 자라서 푸르러졌고 올벼 논은 두벌갈이를 이미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초벌갈이를 거의 마쳤고 목화·기장·조, 섞어짓는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는 일이 거의 마쳤고 보리는 막 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8. 1887년(고종 24) 윤4월 18일(양력 6월 9일)

全羅監司啓錄 7책(84b~84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3b~343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七日辰時始雨, 或霏或灑, 戌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仍爲開霽是白遣. 農形段, 連接各邑所報, 則付種畝, 方始初除草, 早稻畝, 有水處, 間或移秧, 中晚稻畝, 已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間立苗, 大麥, 幾訖向熟, 小麥, 次第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진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는데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 논 중 물이 있는 곳은 간혹 모내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갈이를 이미 마쳤고 목화·기장·조,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싹이 자랐고 보리는 거의 익어가고 있고 밀은 차례로 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9. 1887년(고종 24) 윤4월 28일(양력 6월 19일)

全羅監司啓錄 7책(85a~8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3c~343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七日之雨, 羅州·寶城·海南·珍島·加里<浦>等五邑·鎭, 得一犁, 務安, 得二鋤, 長城·光州·南原·昌平·和順·興陽·長興·康津等九邑, 得一鋤, 礪山·高山·益山·咸悅·臨陂·沃溝·泰仁·井邑·高敞·靈光·靈巖·咸平·淳昌·潭陽·玉果·同福·任實·長水·(南原)·求禮·順天·樂安·雲峰·茂朱·錦山·聖堂·群山·法聖等三十四邑·鎭, 涇塵. 農形段, 付種畚, 方張初除草, 早稻畚, 有水處, 次第移秧, 中晚稻畚, 間或移秧,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間初耘, 大麥, 方始刈取, 小麥, 漸次向熟是如爲白乎所. 見今夏至在即, 惜乾轉甚, 沿峽諸邑, 一辭告悶, 言念民事, 誠甚懂懂.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의 비로 나주·보성·해남·진도·가리포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무안은 2서가 내렸고 장성·광주·남원·창평·화순·홍양·장흥·강진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고산·익산·함열·임피·옥구·태인·정읍·고창·영광·함평·순창·담양·옥과·동북·임실·장수·남원·구례·순천·낙안·운봉·무주·금산·군산·법성 등 34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 논 중 물이 있는 곳은 차례로 모내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모내기를 하고 목화·기장·조,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보리는 막 베어서 거두기 시작하고 밀은 점차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지가 바로 닳았는데 가뭄은 도리어 심해져 물가와 산골 여러 고을은 한목소리로 걱정을 아뢰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0. 1887년(고종 24) 5월 8일(양력 6월 28일)

全羅監司啓錄 7책(87a~87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4c~344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畚, 幾訖初除草, 早·中·晚稻畚, 若干有水處, 僅爲移秧, 木綿·黍·粟, 方張初耘, 和種豆·太, 間或播種, 大麥, 幾盡刈取, 小麥, 方始刈取爲白乎所. 自春徂夏, 幾次雨澤, 不過鋤浥而止, 猶未救於秧坂是白在亦中. 見今夏至已過, 一直亢旱, 堤汙皆涸, 溝塍生塵, 略爾已移處, 在在枯黃, 至於未移畚, 一望白壤, 移插無期是如, 山沿各邑, 迭相告悶, 言念民事, 誠甚懂懂. 益山·泰仁·長水·雲峰·南原·鎭安·茂朱·珍山·井邑·古阜·龍潭·錦山·靈光·羅州·潭陽·靈巖·金堤·全州·龍安·谷城·綾州·金溝·咸悅·萬頃·和順等二十五邑, 請行雩祭, 故以不卜日虔誠設行之意, 另飭題送, 而際此甘露, 深切顙祝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벼씨를 뿌린 무논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중벼, 늦벼 논은 약간 물이 있는 곳은 겨우 모내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한창 초벌갈이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혹 씨를 뿌렸고 보리는 거의 다 베어서 거두었고 밀도 막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여러 차례 우택은 불과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으나 오히려 모판을 구하는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름이 이미 지났는데 줄곧 매우 가물어 독과 보는 이미 말랐고 붓도랑과 두둑은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대략 이미 모내기한 곳은 곳곳마다 누렇게 말랐습니다.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논은 한 눈에 하얀 땅만 보이니, 옮겨 심을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의 각 고을에서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익산·태인·장수·운봉·남원·진안·무주·진산·정읍·고부·용담·금산·영광·나주·담양·영암·김제·전주·용안·곡성·능주·금구·함열·만경·화순 등 25개 고을은 기우제 시행을 요청했기 때문에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게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즈음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를 매우 깊이 빕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1. 1887년(고종 24) 5월 17일(양력 7월 7일)

全羅監司啓錄 7책(90a~90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6b~346b)

道內農形及益山等二十五邑祈雨祭設行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秧節已晚, 雨澤尙靳, 言念民事, 萬萬憂悶. 礪山·同福·淳昌·順天·扶安·臨陂·樂安·玉果·沃溝·高敞·高山·咸平·任實·昌平·興陽·求禮·長興·茂長·珍島·務安·光州·海南·南平·康津·光陽等二十五邑, 亦爲請行雩祭, 故以虔誠設行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旅.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 및 익산 등 2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모내기 절기도 이미 늦었는데 우택은 오히려 적어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매우 근심 걱정입니다. 여산·동북·순창·순천·부안·임피·낙안·옥과·옥구·고창·고산·함평·임실·창평·홍양·구례·장흥·무장·진도·무안·광주·해남·남평·강진·광양 등 25개 고을도 또한 기우제 시행을 요청했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2. 1887년(고종 24) 5월 18일(양력 7월 8일)

全羅監司啓錄 7책(90a~90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6b~346c)

道內礪山等二十五邑雩祭設行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七日辰時始雨, 連續霏灑, 十八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 而油雲尙濃, 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畚, 已訖初除草, 早中晚稻畚, 有水處外, 姑未移秧, 木綿·黍·粟, 間或再耘, 和種豆·太, 方張初耘, 根耕豆·太, 播種垂畢, 大麥, 已盡刈取, 小麥, 幾盡刈取是如爲白乎所. 渴望之餘, 甘霈伊始, 言念民事, 誠爲萬幸, 繼以優霽, 益切顯祝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여산 등 2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경위는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기도하면서 18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고 뭉게 구름이 오히려 짙으니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으며 올벼·중벼·늦벼 논은 물이 있는 곳 이외에는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았고 목화·기장·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씨앗 뿌리기가 다 마쳤고 보리는 이미 다 베어서 거두었고 밀은 거의 다 베어서 거두었다고 합니다. 갈망하던 나머지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연이어 넉넉히 주룩주룩 내리기를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3. 1887년(고종 24) 5월 24일(양력 7월 14일)

全羅監司啓錄 7책(91a~91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6d~347a)

臣營下, 今月十八日寅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自伊日以後, 載陰載陽, 間或霏微是白如可, 二十三日午時又雨, 繼續霑下, 二十四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鎭安·錦山·全州·羅州·長城·淳昌·和順·谷城·咸平·茂朱·龍潭·珍山等十二邑, 川渠漲滿, 高山·興德·任實·茂長·高敞·光州·潭陽·綾州·昌平·寶城·長興·珍島·法聖等十三邑·鎭, 得一犁, 金堤·古阜, 得二鋤, 礪山·益山·金溝·泰仁·南原·長水等六邑, 得一鋤, 龍安·咸悅·臨陂·沃溝·萬頃·扶安·井邑·求禮·雲峰·聖堂等十邑·鎭, 浥塵. 前啓中祈雨是白在, 益山·鎭安·茂朱·珍山·古阜·龍潭·錦山·潭陽·全州·綾州·和順·淳昌·高山·咸平·昌平·長興·茂長·光州等十八邑, 得雨停止是如爲白乎所. 雨澤周洽, 各邑雩祭, 次第告停, 民事萬幸, 畢移形止, 斯速馳報之意, 連加題飭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깐 흐리다가 잠깐 별이 나기도 하고 간혹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23일 오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다가 24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8일의 비로 진안·금산·전주·나주·장성·순창·화순·곡성·함평·무주·용담·진산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홍덕·임실·무장·고창·광주·담양·능주·창평·보성·장흥·진도·법성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김제·고부는 2서가 내렸고 여산·익산·금구·태인·남원·장수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안·함열·임피·옥구·만경·부안·정읍·구례·운봉·성당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기우제의 경우, 익산·진안·무주·진산·고부·용담·금산·담양·전주·능주·화순·순창·고산·함평·창평·장흥·무장·광주 등 18개 고을에서는 비가 내리자 중지했다고 합니다. 우택이 두루 넉넉하여 각 고을은 기우제를 차례로 중지를 아뢰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에 매우 다행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경위를 어서 빨리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연달이 결정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4. 1887년(고종 24) 5월 28일(양력 7월 18일)

全羅監司啓錄 7책(92a~92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7c~347d)

臣營下, 今月二十四日寅時至雨澤, 纔以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連接霪下, 二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務安·康津, 川渠漲滿, 順天·同福·海南等三邑, 得一犁, 南平, 得二鋤, 靈巖·靈光·樂安等三邑, 得一鋤, 光陽·興陽·群山等三邑·鎭, 浥塵. 二十四日之雨, 益山·臨陂·萬頃·金溝·泰仁·任實·淳昌·谷城·高敞·興德等十邑, 川渠漲滿, 礪山·金堤, 得一犁, 龍安, 得一鋤. 農形段, 付種畚, 方始再除草, 早·中·晚稻畚, 幾盡移秧, 木綿·黍·粟, 次第再耘, 和種豆·太, 初耘垂畢, 根耕豆·太, 方始立苗. 前啓中祈雨是白在, 務安·康津·同福·順天·任實·臨陂·谷城·金溝·泰仁·萬頃·興德·高敞·金堤·龍安等十四邑, 得雨停止是如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4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연이어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2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 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8일의 비로 무안·강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순천·동북·해남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남평은 2서가 내렸고 영암·영광·낙안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나 광양·홍양·군산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4일의 비로 익산·임피·만경·금구·태인·임실·순창·곡성·고창·홍덕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여산·김제는 1려가 내렸고 용안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두벌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중벼·늦벼 논은 거의 다 모내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초벌 김매기가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싹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기우제의 경우, 무안·강진·동북·순천·임실·임피·곡성·금구·태인·만경·홍덕·고창·김제·용안 등 14개 고을은 비가 내려 정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5. 1887년(고종 24) 6월 1일(양력 7월 21일)

全羅監司啓錄 7책(93a~93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48a~348b)

臣營下, 去月二十八日辰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自伊日以後, 斷續霏灑, 三十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仍爲開霽爲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四日之雨, 咸悅·沃溝·古阜·井邑·長城·玉果·雲峰·長水·鎮安·錦山等十邑, 川渠漲滿, 南原·扶安, 得一鋤, 昌平, 得二鋤, 潭陽·茂長·聖堂等三邑·鎮, 得一鋤, 南平, 浥塵, 二十八日之雨, 礪山·高山·益山·金堤·古阜·泰仁·金溝·茂朱·求禮等九邑, 川渠漲滿, 龍安, 得一鋤. 前啓中祈雨是白在, 沃溝·玉果·長水·雲峰·咸悅·井邑·扶安·南原·求禮等九邑, 得雨停止是如爲白乎旂.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지난달 28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쳤다 이어졌다하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30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함열·옥구·고부·정읍·장성·옥구·운봉·장수·진안·금산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남원·부안은 1서가 내렸고, 창평은 2서가 내렸고, 담양·무장·성당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남평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8일의 비로 여산·고산·익산·김제·고부·태인·금구·무주·구례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용안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한 기우제의 경우, 옥구·옥과·장수·운봉·함열·정읍·부안·남원·구례 등 9개 고을은 비가 내려 정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6. 1887년(고종 24) 6월 8일(양력 7월 28일)

全羅監司啓錄 7책(101b~102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51d~352a)

臣營下, 去月三十日至[卯]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臨陂·萬頃·扶安·長城·任實·龍潭·淳昌·和順·同福·長興·海南·加里浦等十二邑·鎮, 川渠漲滿, 羅州·靈巖·靈光·南平·綾州·寶城等六邑, 得一犁, 順天·長水, 得二鋤, 南原·谷城·興陽等三邑, 得一鋤, 三十日之雨, 礪山·珍山·益山·昌平·玉果·長水·雲峰·咸平等八邑, 川渠漲滿, 金溝·求禮, 得一犁, 光州·高敞, 得二鋤, 南原, 得一鋤. 農形段, 付種畚, 方張再除草, 早中稻畚, 方始初除草, 晚稻畚, 秧不足處外, 今纔畢移, 木綿·黍·粟, 再耘, 根耕豆·太, 方始初耘. 前啓中祈雨是白在, 礪山·羅州·靈巖·靈光·南平·海南·興陽等七邑, 得雨停止是如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지난달 30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임피·만경·부안·장성·임실·용담·순창·화순·동복·장흥·해남·가리포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나주·영암·영광·남평·능주·보성 등 6개 고을에서 1려가 내렸고 순천·장수는 2서가 내렸으나 남원·곡성·홍양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30일의 비로 여산·진산·익산·창평·옥파·장수·운봉·함평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구례는 1려가 내렸고 광주·고창은 2서가 내렸고 남원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한창 두벌김매기를 하였고 올벼·중벼 논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 논은 모가 부족한 곳을 제외하고 이제 겨우 모내기를 마쳤고, 목화·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기우제의 경우, 여산·나주·영암·영광·남평·해남·홍양 등 7개 고을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7. 1887년(고종 24) 6월 18일(양력 8월 7일)

全羅監司啓錄 7책(102b~102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52c~352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四日戌時始雨, 間間霏灑, 十七日卯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農形段, 連接各邑所報, 則付種畚, 幾訖再除草, 早·中稻畚, 間間除草, 晚稻畚, 方張初除草, 木綿·黍·粟, 次第三耘, 和種豆·太, 方張再耘, 根耕豆·太, 幾盡初耘, 木麥, 方始播種是如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14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1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고 이내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벼씨를 뿌린 무논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중벼 논은 간간이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메밀은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8. 1887년(고종 24) 6월 28일(양력 8월 17일)

全羅監司啓錄 7책(104a~104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53a~353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五日午時始雨, 或霏或灑, 二十六日至, 測雨器水深爲六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七日之雨, 錦山·茂朱·雲峰·加里浦等四邑·鎮, 得一犁, 龍潭·長水·康津·珍島等四邑, 得一鋤, 益山·龍安·臨陂·萬頃·金堤·金溝·泰仁·長城·任實·鎮安·谷城·求禮·綾州·寶城·靈巖·長興·法聖等十七邑·鎮,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胚胎, 移種早稻畚, 幾訖再除草, 中晚稻畚, 次第再除草, 木綿·黍·粟, 三耘垂畢, 和種豆·太, 已訖再耘, 根耕豆·太, 間間再耘, 木麥, 方始立苗是如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25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7일의 비로 금산·무주·운봉·가리포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용담·장수·강진·진도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나 익산·용안·임피·만경·김제·금구·태인·장성·임실·진안·곡성·구례·능주·보성·영암·장흥·법성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이삭이 배었고 옮겨 심은 올벼 논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끝냈고 섞어짓는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도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막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9. 1887년(고종 24) 7월 8일(양력 8월 26일)

全羅監司啓錄 7책(105b~105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54a~354b)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六日之雨, 羅州·高敞·長水·谷城等四邑, 得一鋤, 臨陂·金堤·泰仁·茂長·咸平·潭陽·南平·同福·任實·鎭安·求禮·群山等十二邑·鎭,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間發穗, 移種早稻, 方張胚胎, 中晚稻畚, 幾訖再除草, 木綿, 次第開花, 黍·粟, 間或胚胎, 和種豆·太, 方始開花, 根耕豆·太, 再耘垂畢, 木麥, 向茁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6일의 비로 나주·고창·장수·곡성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파·김제·태인·무장·함평·담양·남평·동북·임실·진안·구례·군산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옮겨 심은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었고 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배었고 섞어짓는 콩·팥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두벌 김매기가 거의 마쳤고 메밀은 싹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0. 1887년(고종 24) 8월 14일(양력 9월 30일)

全羅監司啓錄 7책(113a~113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58a~358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珍山, 今月初八日夜, 全州, 十三日夜, 竝只霜降是如.
報來是[爲]白乎所. 年形已判, 檢田伊始, 嗣後形止, 待列邑報概, 分等執摠,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진산은 이번 달 초8일
밤에, 전주는 13일 밤에 모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보고가 왔습니다. 올해 농사 상황은
이미 관가름 했고 밭 검사는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에서 대략적인 보고를
기다려 풍흉 등급을 나누고 총수를 합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1. 1888년(고종 25) 7월 18일(양력 8월 25일)

全羅監司啓錄 7책(150a~150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77a~377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早稻, 間間發穗, 而直立乾白, 如人所握, 早·中·晚稻, 含胎未發, 木綿·豆·太, 連蒂黃落, 黍·粟, 鞅掌不茁, 木麥, 立苗無期是如, 峽沿諸邑, 一辭告悶是白乎所. 夫何亢旱罕古, 川井枯渴, 繼之秋涼早動, 晨夕蕭瑟, 饑饉已辦[判], 此離相續, 言念民事, 去益遑汲.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었는데 곳곳이 서서 마르고 하얗게 된 것이 마치 사람이 뽑은 것 같다. 올벼·중벼, 늦벼는 싹이 오므라들어 패지 못했고 면화·콩·팥은 연이은 폭지가 누렇게 말라 떨어졌고 기장·조는 번거롭고 바빠 싹이 트지 못했고 메밀은 싹이 나올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산골과 물가 여러 고을에서는 한목소리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대체 이런 가뭄을 예전에 드물었습니다. 시내와 우물이 마르고 연이어 서늘한 가을이 빠르게 움직여서 새벽과 저녁은 싸늘합니다. 굶주릴 것임은 이미 판가름났고 뽕뽕이 흩어지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다급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2. 1888년(고종 25) 7월 28일(양력 9월 4일)

全羅監司啓錄 7책(151a~151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77d~377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峽邑有水處, 早稻, 次第發穗, 中晚稻, 幾盡胚胎, 木綿·豆·太·黍·粟, 竝皆枯黃. 沿邑則一望赤地, 川澤亦爲枯渴是如, 迭相告悶是白乎所. 經夏屆秋, 雨無點滴, 晝風夜雲, 露亦不下, 新涼纔動, 草樹已黃, 田野慘景, 有難枚陳是白遣. 目下急務, 卽秋等京司上納, 而何[荷]擔相續, 十室九空, 流民無奠接之望, 戶布無排斂之道, 國計民情, 俱係惶悶.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산골 고을 중 물이 있는 곳은 올해가 차례로 이삭이 났고 중벼·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배었고 목화와 콩·팥과 기장·조는 모두 누렇게 말랐습니다. 물가 고을은 한 눈에 보이는 땅은 온통 붉었습니다. 시내와 연못은 또한 고갈되었다고 번갈아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여름을 겪고 가을이 되었는데 비 한방울 적셔주지 않고 낮에는 바람 불고 밤에는 구름이 끼었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잠시 움직이자 풀과 나무는 이미 누렇게 들판은 참담한 풍경은 하나하나 아뢰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급한 일은 바로 가을 몫을 서울 관아에 상납하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진 것이 서로 이어져 10집에 9집이 비웠으니 떠돌이 백성을 머물러 지내게 할 가망도 없고 호포도 분배해 거들 방법도 없었으니 나라의 형편과 백성의 정황상 모두 두렵고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3. 1888년(고종 25) 8월 18일(양력 9월 23일)

全羅監司啓錄 7책(154b~154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79b~379c)

臣營下, 今月十五日寅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四日之〈雨〉, 纔浥輕塵, 旋爲開霽. 農形段, 峽邑有水處, 早稻, 次第向熟, 中晚稻, 幾盡發穗. 而病旱傷風, 間多乾白, 木綿·豆·太·黍·粟, 已盡黃落, 更無足舉論. 而見今秋分已屆, 雩祭竝皆停止是如, 一辭報來是白乎所. 霜候之前, 年形已判, 災邑之尤甚與否, 不容不詳審乙仍于, 自臣營別定校吏, 分路派遣, 使之從實摘奸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5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4일의 비로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곧바로 개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산골 고을의 물이 있는 곳은 올벼가 차례로 익어가고 중벼·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가뭄에 병들고 바람에 피해입어 간간이 하얗게 마른 것이 많았고 목화·콩·팥과 기장·조는 이미 다 누렇게 변하고 떨어져 다시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분이 이미 되어서 기우제는 모 두다 정지하였다고 한결같은 말로 보고해 왔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절기에 앞서 올해 농사 형편은 이미 판가름 났는데 재해 입은 고을이 매우 심한 지의 여부는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장교와 서리를 선정해 길을 나눠 파견하여 사실대로 캐보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4. 1888년(고종 25) 8월 18일(양력 9월 27일)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鎭安·長水·礪山等三邑, 今十八日夜, 霜降是如. 報來爲白乎所. 旱災孔酷, 霜信又早, 峽邑有水處, 早·中·晚稻, 次第向熟之際, 遭此肅殺之氣, 榆收[收榆]無望, 景色慘沮, 言念民情, 去益擾悶. 年形已判, 檢田在即. 嗣後形止, 待列邑報概, <年>分執摠,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진안·장수·여산 3개 고을은 18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보고해왔습니다.

가뭄 재해가 매우 혹독한데 된서리가 또한 이르게 와서 산골 고을의 물이 있는 곳은 올벼·중벼·늦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있었는데 그즈음 이런 스산한 기운을 만나게 되었으니 늦게나마 거둬 가망이 없게 되었고 풍경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의 정황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걱정입니다. 올해 농사 형편은 이미 관가름 했고 밭 검사가 닥쳐왔습니다. 여러 고을의 대략적인 보고를 기다려 풍흉 등급을 나누고 총수를 합하여 추후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5. 1889년(고종 26) 3월 8일(양력 4월 7일)

全羅監司啓錄 7책(190b~191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98b~398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畚, 間間初翻耕, 兩麥, 漸次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갈이를 하였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6. 1889년(고종 26) 3월 18일(양력 4월 17일)

全羅監司啓錄 7책(192a~192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99b~399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畚, 方張初翻耕, 兩麥, 茁茂是如爲白
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논은 한창 초벌갈이를 하고 있고 보리와 밀은 싹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7. 1889년(고종 26) 3월 20일(양력 4월 19일)

全羅監司啓錄 7책(192b~192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99c~399c)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九日午時始雨，或霏或灑，二十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七分，而仍爲開霽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19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8. 1889년(고종 26) 3월 28일(양력 4월 27일)

全羅監司啓錄 7책(193b~194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400a~400b)

臣營下, 今月二十日辰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龍潭·光州·長城·同福·和順·長興·靈巖·法聖等八邑·鎭, 得一鋤, 礪山·珍山·高山·益山·龍安·臨陂·沃溝·萬頃·金堤·古阜·井邑·金溝·泰仁·玉果·任實·南原·谷城·茂朱·雲峰·昌平·潭陽·南平·興陽·康津等二十四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耕播, 早稻畚, 間或再翻耕, 秧坂, 間或注種, 木綿·黍·粟, 和種 豆·太, 間間耕播, 大麥, 胚胎, 小麥, 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20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 비로 용담·광주·장성·동북·화순·장흥·영암·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여산·진산·고산·익산·용안·임피·옥구·만경·김제·고부·정읍·금구·태인·옥과·임실·남원·곡성·무주·운봉·창평·담양·남평·홍양·강진 등 2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땅을 갈고 씨앗뿌리기를 시작했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갈이를 하고 모판은 벼씨를 뿌렸고 목화·기장·조, 섞어짓는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보리는 이삭이 배었고 밀은 싹이 자라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9. 1889년(고종 26) 4월 2일(양력 5월 1일)

全羅監司啓錄 7책(194a~194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400b~400c)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一日子時始雨，間間霏微，酉時至，側
[測]雨器水深爲四分，而仍爲開霽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
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자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가랑비가 내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0. 1889년(고종 26) 4월 8일(양력 5월 7일)

全羅監司啓錄 7책(196b~196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400c~400d)

臣營下, 今月初五日卯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之雨, 錦山·龍潭, 得一鋤, 礪山·高山·臨陂·沃溝·金溝·井邑等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次第再翻耕, 中晚稻畚, 間或再翻耕, 秧坂, 有水處, 方張注種, 木綿·黍·粟, 和種豆·太, 次第耕播, 大麥, 發穗, 小麥, 胚胎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5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1일의 비로 금산·용담은 1서가 내렸고, 여산·고산·임피·옥구·금구·정읍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차례로 두벌갈이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갈이를 하고 모판에 물이 있는 곳은 한창 벼씨를 뿌리고 있으며 목화·기장·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보리는 이삭이 났고, 밀은 이삭이 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1. 1889년(고종 26) 4월 15일(양력 5월 14일)

全羅監司啓錄 7책(197b~197b)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402b~402b)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四日辰時始雨，或霏或灑，酉時至，側[測]雨器水深爲九分，而仍爲開霽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14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2. 1889년(고종 26) 4월 18일(양력 5월 17일)

全羅監司啓錄 7책(197b~200a)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402b~402c)

臣營下, 今月十四日酉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十六日又雨, 間間霏灑, 戌時至, 側[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四日之雨, 礪山, 得一鋤, 咸悅·萬頃·金溝·泰仁·井邑·長城·任實·昌平·同福等九邑, 浥塵. 農形段, 付種及有水處秧坂, 方始立苗, 早稻畚, 幾訖再翻耕, 中晚稻畚, 次第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耕播垂畢, 大麥, 入實, 小麥, 發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4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6일에 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4일의 비로 여산은 1서가 내렸고, 함열·만경·금구·태인·정읍·장성·임실·창평·동복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과 물이 있는 곳의 모판은 막 싹이 나기 시작했고 올벼 논은 두벌갈이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갈이를 하였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보리는 알이 들었고 밀은 이삭이 패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3. 1889년(고종 26) 4월 30일(양력 5월 29일)

全羅監司啓錄 7책(199a~199a) /各司謄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403d~403d)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四日六日之雨, 法聖·加里浦, 得一犁, 珍山·錦山·龍潭·雲峰·南平·光州·金堤·高敞·咸平·長興·靈巖·康津·海南·珍島·三島·聖堂等十六邑·鎮, 得一鋤, 高山·益山·龍安·臨陂·沃溝·古阜·茂長·興德·靈光·務安·潭陽·寶城·綾州·和順·玉果·淳昌·南原·谷城·求禮·光陽·樂安等二十一邑, 浥塵. 農形段, 付種及有水處秧坂, 立苗向青, 早稻畚, 已訖再翻耕, 中晚稻畚, 幾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間立苗, 大麥, 漸次向熟, 小麥, 方始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4일과 16일의 비로 법성·가리포는 1려가 내렸고, 진산·금산·용담·운봉·남평·광주·김제·고창·함평·장흥·영암·강진·해남·진도·삼도, 성당 등 1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고산·익산·용안·임피·옥구·고부·무장·홍덕·영광·무안·담양·보성·능주·화순·옥과·순창·남원·곡성·구례·광양·낙안 등 2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과 물이 있는 곳의 모판은 짝이 자라서 푸르러졌고 올벼논은 두벌갈이를 이미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거의 두벌갈이를 마쳤고 목화·기장·조와 섞여짓는 콩·팥은 간간이 짝이 자라고 있으며 보리는 점차 익어가고 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4. 1889년(고종 26) 5월 3일(양력 6월 3일)

全羅監司啓錄 7책(199a~199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403d~404a)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二日申時始雨, 或霏或灑, 初三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仍爲開霽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2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5. 1878년(고종 15) 8월 28일(양력 9월 24일)

湖南啓錄 1책(3a~3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229a~229b)

承政院開拆

臣於到界以後，連接各邑所報，則自今月二十二日，至二十六日之雨，茂朱川渠漲滿，雲峯得一犁，南原長水靈巖等三邑，得一鋤，萬頃·龍潭·任實·淳昌等三邑浥塵。農形段，付稻早稻，舉皆垂穎[穎]，移種早稻，已盡發穗，中晚稻次第發穗，木綿間間摘絮，黍粟間或入實，和種根耕豆太，方張入實。木麥方始結穀是如爲白乎脉，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제가 부임한 이후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비로 무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운봉은 1려가 내렸고 남원·장수·영암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만경·용담·임실·순창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올벼 논은 거의 모두 고개를 숙였고 모내기한 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목화는 간간이 솜을 땀고 기장·조는 간혹 알이 들었고 섞어짓거나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메밀은 이제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6. 1878년(고종 15) 9월 8일(양력 10월 3일)

湖南啓錄 1책(4b~5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1책(229d~230a)

承政院開坼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二日, 至二十六日之雨. 綾州·同福·寶城·求禮·長興·興陽·康津·加里浦等八邑鎮, 川渠漲溢. 樂安·靈巖·珍島等三邑得二鋤, 茂長·長城·咸平·羅州·谷城·法聖等六邑鎮得一鋤. 扶安·古阜·潭陽等三邑, 沍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刈取, 移種早稻, 間間垂穎, 中晚稻已盡發穗, 木綿方張摘絮, 黍粟次第入實, 和種與根耕豆太, 方始向熟, 木麥幾盡結殼. 而珍島·興陽·長興·寶城·光州·同福·康津·加里浦等八邑鎮去月二十五日六日, 寧風大作, 冷雨暴霏, 田畝各穀, 酷被傷損, 披靡摧折, 如經鞭打, 堤堰溝塍, 亦多潰缺. 扶安一邑, 蟲災大熾, 受損非細是如爲白乎所, 際此各穀成熟之時, 風損蟲患, 若是遍酷, 言念民事, 誠甚憧憧. 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비로 능주·동북·보성·구례·장흥·홍양·강진·가리포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낙안·영암·진도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무장·장성·함평·나주·곡성·법성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부안·고부·담양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고개를 숙였고, 중벼·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꿇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고 있으며 기장·조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섞어짓거나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익기 시작하고 메밀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진도·홍양·장흥·보성·광주·동북·강진·가리포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지난달 25일과 26일에 매서운 바람이 크게 일어났고 찬비가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서 논밭의 각종 곡식에 혹독하게 피해를 입혔고 .쓰러지거나 꺾어진 것이 채찍질 당한 것과 같았고, 독과 도랑, 두둑은 또한 대부분 터졌습니다. 부안 한 고을은 벌레

재앙이 크게 일어나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즈은 각종 곡식이 익어가는 때인데 바람 피해와 벌레 근심이 걱정이 이렇게 두루 흑독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87. 1878년(고종 15) 9월 11일(양력 10월 6일)

湖南啓錄 1책(9b~9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232a~232b)

承政院〈開圻〉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九日午時始雨, 或霏或灑, 初十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 而仍爲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뿌리기도 하다가 초10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주십시오.

0188. 1878년(고종 15) 9월 18일(양력 10월 13일)

湖南啓錄 1책(11b~1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233a~233b)

承政院開坼

臣營下今月初十日申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月十日之雨, 珍山得一犁, 金溝得二鋤, 益山·礪山·龍安·扶安·古阜·雲峯等六邑得一鋤·咸悅·任實·鎮安·淳昌·南原等五邑, 溫塵. 農形段, 付種早稻, 已盡刈取, 中晚稻次第垂穎, 木綿方張摘絮, 黍粟漸次向熟, 和種與根耕豆太, 間或收穫, 木麥方始入實是如爲白乎所. 見今年形已判, 檢田伊始, 嗣後形止, 待列邑報概分等執摠,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초10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9일, 초10일의 비로 진산은 1려가 내렸고 금구는 2서가 내렸고 익산·여산·용안·부안·고부·운봉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나 함열·임실·진안·순창·남원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고개를 숙였고 목화는 한창 숨을 따고 기장·조는 점차 익어갔고 섞어짓거나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수확했고 메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올해 농사 상황은 이미 관가를 했고 밭 검사는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풍흉 등급을 나누고 총수를 합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89. 1878년(고종 15) 9월 27일(양력 10월 22일)

湖南啓錄 1책(26a~26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1책(239d~239d)

承政院開坼

連接各邑所報, 則鎮安今月二十日夜, 雲峯二十三日夜, 金堤二十四日夜, 竝只霜降是如報來
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안은 이번 달 20일 밤에, 운봉은 23일 밤에,
김제는 24일 밤에 모두 서리가 내렸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
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90. 1879년(고종 16) 3월 8일(양력 3월 30일)

湖南啓錄 3책(8b~8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03d~303d)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七日辰時始雨, 或霏或灑, 同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 而仍爲開霽是白遣. 農形段, 近接各邑所報, 則早稻畝間或初翻耕, 兩麥方始敷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초7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고 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최근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 논은 간혹 초벌갈이를 했고 보리와 밀은 막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81. 1879년(고종 16) 3월 18일(양력 4월 9일)

湖南啓錄 3책(35b~36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16d~317a)

承政院開拆

營下雨澤, 道內農形, 觀察使臣沈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七日之雨, 珍山得二鋤, 雲峰·益山·金溝·興德·靈光·務安·羅州·光州·寶城等九邑, 得一鋤, 茂朱·錦山·礪山·龍安·咸悅·臨陂·沃溝·萬頃·金堤·古阜·井邑·高敞·茂長·咸平·長城·任實·淳昌·潭陽·和順·綾州·同福·昌平·玉果·谷城·南原·求禮·光陽·樂安等二十八邑浥塵, 十一日二日之雨, 營下無所得, 務安得一犁, 南平得二鋤·礪山·羅州·靈光·咸平·和順·靈巖·光陽等七邑, 得一鋤, 益山·咸悅·臨陂·沃溝·扶安·金堤·金溝·泰仁·淳昌·潭陽·長城·茂長·南原·谷城·順天·樂安·興陽等十七邑浥塵, 農形段, 早稻畚間初翻耕, 兩麥漸次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우택과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관찰사 심이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7일의 비로 진산은 2서가 내렸고 운봉·익산·금구·홍덕·영광·무안·나주·광주·보성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무주·금산·여산·용안·함열·임피·옥구·만경·김제·고부·정읍·고창·무장·함평·장성·임실·순창·담양·화순·능주·동북·창평·옥과·곡성·남원·구례·광양·낙안 등 2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1일과 12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것은 없었고, 무안은 1려가 내렸고, 남평은 2서가 내렸고, 여산·나주·영광·함평·화순·영암·광양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익산·함열·임피·옥구·부안·김제·금구·태인·순창·담양·장성·무장·남원·곡성·순천·낙안·홍양 등 1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갈이를 하였고 밀과 보리는 점차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92. 1879년(고종 16) 3월 29일(양력 4월 20일)

湖南啓錄 3책(40b~41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19c~319d)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二十八日寅時始雨, 或霏或灑, 未時至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遣, 十八日之雨, 營下無所得, 而連接各邑所報, 則務安珍島得一犁, 康津·海南得二鋤, 綾州·和順·羅州·南平·咸平·靈巖·寶城·長興·法聖等九邑鎭得一鋤, 臨陂·礪山·益山·金溝·金堤·泰仁·淳昌·井邑·高敞·靈光·長城·光州·順天等十三邑浥塵. 農形段早稻畚次第初翻耕, 中晚稻畚, 間或初翻耕, 兩麥漸次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은 28일 인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18일의 비로 감영에 내린 것은 없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무안·진도는 1려가 내렸고 강진·해남 등 두 고을에서 2서가 내렸고 능주·화순·나주·남평·함평·영암·보성·장흥·법성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임피·여산·익산·금구·김제·태인·순창·정읍·고창·영광·장성·광주·순천 등 1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차례로 초벌갈이를 했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초벌 갈이를 했고, 밀과 보리는 싹이 자라 무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93. 1879년(고종 16) 윤3월 5일(양력 4월 25일)

湖南啓錄 3책(41a~41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19d~319d)

承政院開拆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四日辰時始雨, 或霏或灑, 申時至測雨器水深爲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珍山得二鋤, 龍潭·茂長·靈光·長城·羅州·長興等六邑得一鋤, 益山·礪山·龍安·咸悅·沃溝·萬頃·扶安·金堤·金溝·任實·淳昌·潭陽·井邑·興德·高敞·綾州·光州·昌平·玉果·南原·谷城·求禮·雲峰等二十三邑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진산은 2서가 내렸고 용담·무장·영광·장성·나주·장흥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나 익산·여산·용안·함열·옥구·만경·부안·김제·금구·임실·순창·담양·정읍·홍덕·고창·능주·광주·창평·옥과·남원·곡성·구례·운봉 등 2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94. 1879년(고종 16) 윤3월 8일(양력 4월 28일)

湖南啓錄 3책(54a~54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27b~327c)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四日申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錦山·龍潭·金溝·興德·高敞·茂長·玉果·同福等八邑, 得一鋤, 咸悅·沃溝·萬頃·扶安·金堤·泰仁·古阜·淳昌·任實·南原·法聖等十一邑鎮沍塵. 農形段付種畚方始耕播, 早稻畚間或再翻耕, 中晚稻畚, 次第初翻耕, 秧坂間間注種, 大麥胚胎, 小麥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 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 비로 금산·용담·금구·흥덕·고창·무장·옥과·동복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함열·옥구·만경·부안·김제·태인·고부·순창·임실·남원·범성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올벼논은 간혹 두벌갈이를 했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초벌갈이를 했고 모판은 간간이 벼씨를 뿌렸고 보리는 이삭이 배었고 밀은 싹이 자라 무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95. 1879년(고종 16) 윤3월 12일(양력 5월 2일)

湖南啓錄 3책(54b~5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27c~327d)

承政院開拆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十一日酉時始雨, 或霪或灑, 十二日辰時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四日之雨·雲峰·綾州·靈巖·康津·珍島·加里浦等六邑鎮得一犁, 南平·和順得二鋤, 潭陽·昌平·長城·咸平·務安·寶城·樂安·求禮·光陽·長興·興陽等十一邑得一鋤, 茂朱·龍安·井邑·順天等四邑涸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1일 유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4일의 비로 운봉·능주·영암·강진·진도·가리포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에서 1려가 내렸고, 남평·화순 등은 2서가 내렸고 담양·창평·장성·함평·무안·보성·낙안·구례·광양·장흥·홍덕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무주·용안·정읍·순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96. 1879년(고종 16) 윤3월 18일(양력 5월 8일)

湖南啓錄 3책(66a~66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32c~332d)

承政院開圻

臣營下今月十二日辰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十四日辰時又雨, 間間霏灑, 十七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一日二日之雨, 珍山得二鋤, 茂朱·龍潭·錦山·益山·臨陂·扶安·金溝·興德·高敞·長城·靈光·務安·昌平·和順·綾州·長興·樂安·南原·雲峰等十九邑得一鋤, 礪山·咸悅·沃溝·萬頃·金堤·古阜·茂長·咸平·鎭安·淳昌·潭陽·谷城·光陽·順天·寶城·靈巖等十六邑浥塵. 農形段, 付種畚方張耕播, 早稻畚次第再翻耕, 中晚稻畚, 間或再翻耕, 秧坂方張注種,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始耕播, 大麥發穗, 小麥胚胎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2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4일 진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7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1일과 12일의 비로 진산은 2서가 내렸고 무주·용담·금산·익산·임피·부안·금구·홍덕·고창·장성·영광·무안·창평·화순·능주·장흥·낙안·남원·운봉 등 1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함열·옥구·만경·김제·고부·무장·함평·진안·순창·담양·곡성·광양·순천·보성·영암 등 1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 논은 차례로 두벌갈이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갈이를 하였고 모판에 한창 벼씨를 뿌렸고 목화·기장·조, 섞어짓는 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보리는 이삭이 났고 밀은 이삭이 배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97. 1879년(고종 16) 윤3월 28일(양력 5월 18일)

湖南啓錄 3책(74a~7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36a~336b)

承政院開坼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六日辰時始雨, 斷續霏灑, 二十八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自十四日, 至十七日之雨, 金溝·長水·潭陽·寶城·求禮·光陽等六邑, 得一鋤, 沃溝·萬頃·益山·高山·淳昌·谷城·同福·綾州·長興等九邑浥塵. 農形段, 付種及秧坂, 方始立苗, 早稻畚幾訖再翻耕, 中晚稻畚, 次第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張耕播, 大麥入實, 小麥發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6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8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4일부터 17일까지의 비로 금구·장수·담양·보성·구례·광양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옥구·만경·익산·고산·순창·곡성·동북·능주·장흥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 및 모판은 막 싹이 나왔고 올벼 논은 두벌갈이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갈이를 하였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으며 보리는 알이 들었고 밀은 이삭이 패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98. 1879년(고종 16) 4월 2일(양력 5월 22일)

湖南啓錄 3책(76a~76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37a~337a)

承政院開坼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一〉日辰時始雨, 或霏或灑, 酉時至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六日七日八日之雨, 玉果得一犁, 求禮得二鋤, 珍山·龍潭·益山·咸悅·臨陂·扶安·金溝·茂長·高敞·靈光·咸平·羅州·南平·光州·長城·淳昌·南原·雲峰等十八邑得一鋤, 錦山·長水·任實·礪山·沃溝·萬頃·金堤·泰仁·古阜·興德·順天等十一邑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6일, 28일, 28일의 비로 옥과는 1려가 내렸고 구례는 2서가 내렸고, 진산·용담·익산·함열·임피·부안·금구·무장·고창·영광·함평·나주·남평·광주·장성·순창·남원·운봉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산·장수·임실·여산·옥구·만경·김제·태인·고부·홍덕·순천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99. 1879년(고종 16) 4월 5일(양력 5월 25일)

湖南啓錄 3책(80b~81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38d~339a)

承政院開坼

臣營下今月初一日酉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四日酉時又雨, 或霏或灑, 初五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六日七日八日之雨, 寶城得二鋤, 潭陽·昌平·同福·興陽等四邑得一鋤, 茂朱·龍安·井邑·谷城·樂安等五邑浥塵, 今月初一日之雨, 羅州·務安·同福·求禮等四邑得一犁, 光州·長城·茂長·法聖等四邑得二鋤, 錦山·龍潭·高山·礪山·沃溝·臨陂·扶安·古阜·興德·高敞·靈光·咸平·淳昌·潭陽·谷城·南原·雲峰等十七邑, 得一鋤, 益山·咸悅·龍安·萬頃·金堤·金溝·泰仁·任實·鎭安等十九邑, 浥塵是如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4일 유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6일, 27일, 28일의 비로 보성은 2서가 내렸고 담양·창평·동북·홍양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무주·용안·정읍·곡성·낙안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초1일의 비로 나주·무안·동북·구례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주·장성·무장·법성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금산·용담·고산·여산·옥구·임피·부안·고부·홍덕·고창·영광·함평·순창·담양·곡성·남원·운봉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익산·함열·용안·만경·김제·진안·금구·태인·임실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0. 1879년(고종 16) 4월 8일(양력 5월 28일)

湖南啓錄 3책(81a~81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339a~339b)

承政院開圻

臣營下今月初五日辰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間或霏微,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之雨, 南平得一犁, 光陽得二鋤, 茂朱·綾州·靈巖等三邑得一鋤, 初四日五日之雨, 高山·珍山·龍潭·任實·雲峰·求禮·長淵[興]等七邑, 川渠小漲, 礪山·興德·靈光·谷城等四邑得一犁, 益山·金溝得二鋤, 金堤·泰仁·扶安·沃溝等四邑得一鋤, 古阜·萬頃·咸悅·錦山等四邑浥塵, 農形段, 付種及秧坂, 立苗向青, 早稻畚已訖再翻耕, 中晚稻畚, 幾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耕播垂畢, 大麥間間向熟, 小麥方始入實是如爲白乎, 所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5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혹 가랑비가 내리다가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1일의 비로 남평은 1려가 내렸고 광양은 2서가 내렸고, 무주·능주·영암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4일, 초5일의 비로 고산·진산·용담·임실·운봉·구례·장흥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여산·홍덕·영광·곡성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익산·금구는 2서가 내렸고 김제·태인·부안·옥구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부·만경·함열·금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과 모판은 싹이 나와 푸르러졌고 올벼 논은 두벌갈이를 이미 마쳤고 중벼·늦벼 논에도 두벌갈이를 거의 마쳤고 목화·기장·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거의 마쳤고 보리는 간간이 익어가고 있고 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1. 1879년(고종 16) 5월 18일(양력 7월 7일)

湖南啓錄 5책(4a~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42d~343a)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十四日申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十六日午時又雨, 間間霑灑, 十八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四日五日六日之雨, 珍島川渠漲溢, 康津得二犁, 青山島得一犁, 靈光得二鋤, 十三日四日之雨, 益山得二犁, 珍山·興德得一犁, 咸悅·法聖得二鋤, 龍安·沃溝·臨陂·萬頃·金堤·古阜·金溝·井邑·長城·靈光等十邑得一鋤, 泰仁·高山·茂朱等三邑浥塵. 農形段, 付種畚已訖初除草, 早中晚稻畚, 次第移秧, 木綿黍粟, 間或再耘, 和種豆太, 方張初耘, 根耕豆太, 播種垂畢, 大麥已盡刈取, 小麥幾盡刈取是如爲白乎所, 間日之雨, 次第均洽, 秧役無愆, 民事甚幸. 畢移形止,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4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6일 오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8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고 일단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4일, 초5일, 초6일의 비로 진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강진은 2려가 내렸고 청산도(靑山島)는 1려가 내렸고 영광은 2서가 내렸습니다. 13일, 14일의 비로 익산에서 2려가 내렸고 진산·홍덕은 1려가 내렸고 함열·범성은 2서가 내렸고 용안·옥구·임피·만경·김제·고부·금구·정읍·장성·영광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태인·고산·무주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초벌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올벼·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모내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밀은 거의 다 베어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루길러 비로 차례로 골고루 적시었고 모내기 일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서 백성들의

사정에 매우 다행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경위는 일제히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2. 1879년(고종 16) 5월 20일(양력 7월 9일)

湖南啓錄 5책(4b~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43a~343b)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十八日申時至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同時以後，或霪或灑，十九日午時至，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而仍爲開霽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송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8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3. 1879년(고종 16) 5월 26일(양력 7월 15일)

湖南啓錄 5책(4b~5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43b~343c)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十九日午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一日丑時又雨, 間間霏灑, 二十五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七日八日九日之雨·茂朱·龍潭·鎮安·長水·任實·金溝·高山·益山·礪山·咸悅·臨陂·金堤·泰仁·古阜·井邑·興德·高敞·茂長·靈光·咸平·長城·淳昌·潭陽·光州·和順·昌平·玉果·谷城·南原·雲峰·求禮·法聖等三十二邑鎮川渠漲溢, 務安得一犁, 而田畝間多汰落, 民家亦有漂頽是如, 沿峽諸邑, 次第告悶, 言念民事, 誠甚憧憧. 待水退摘奸馳報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19일 오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1일 축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25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 17일, 18일, 19일의 비로 무주·용담·진안·장수·임실·금구·고산·익산·여산·함열·임피·김제·태인·고부·정읍·홍덕·고창·무장·영광·함평·장성·순창·담양·광주·화순·창평·옥과·곡성·남원·운봉·구례·법성 등 32개 고을과 군영의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넘쳤고 무안은 1려가 내렸고 논밭은 그사이 대부분 사태가 일어났고 백성 집 역시 떠내려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물가나 산골의 여러 고을은 차례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보고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문구를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4. 1879년(고종 16) 5월 28일(양력 7월 17일)

湖南啓錄 5책(8a~8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45a~345b)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二十五日申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或霏微,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七日八日九日之雨·錦山·珍山·龍安·扶安等四邑川渠漲溢, 羅州得二犁, 光陽得一犁, 樂安得二鋤·沃溝·萬頃·寶城等三邑得一鋤. 自二十一日至二十五日之雨, 高山·益山·礪山·龍安·萬頃·扶安·井邑·淳昌·南原·任實·鎮安·龍潭等十二邑, 川渠漲溢, 臨陂得二犁, 金堤得一犁, 金溝得二鋤. 農形段, 付種畚方始再除草, 早中稻畚, 間間初除草, 晚稻畚幾盡移秧, 木綿黍粟次第再耘, 和種豆太, 初耘垂畢, 根耕豆太, 方始立苗, 而宿水未退, 新潦添漲, 依山之地, 汰覆相續, 汚陷之坪, 沈墊居多, 弱苗穉莖, 受損非細. 人家漂頽亦爲不少是如, 川漲諸邑, 迭相告悶, 言念民事, 轉益憧憧, 頽戶多少, 待摘奸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25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혹 가랑비가 내리다가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6일, 17일, 18일, 19일의 비로 금산·진산·용안·부안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나누는 2려가 내렸고, 광양은 1려가 내렸고 낙안은 2서가 내렸고 옥구·만경·보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의 비로 고산·익산·여산·용안·만경·부안·정읍·순창·남원·임실·진안·용담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임피는 2려가 내렸고 김제는 1려가 내렸고 금구는 2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두벌 김매기가 시작되었고 올벼·중벼 논은 간간이 초벌김매기를 하였고 늦벼 논은 거의 다 모내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짓는 콩·팥은 초벌 김매기가 거의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막 싹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인 물이 빠지지 않고 새로 큰비가 더해져 불어나서 산을 의지한 지역은 사태로 뒤덮히는 것이 계속 이어졌고 지대가 낮은 땅은 물에 잠긴

것이 대부분이어서 연약한 싹과 어린 줄기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떠내려가고 무너진 집도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시내가 불어나 여러 고을은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리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무너진 가구가 얼마인지는 캐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5. 1879년(고종 16) 6월 2일(양력 7월 20일)

湖南啓錄 5책(15b~16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49b~349b)

承政院開拆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去月二十八日申時始雨, 間間霑灑, 今月初一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六日七日八日九日之雨, 同福川渠漲滿, 加里浦得一犁, 綾州·長興·順天·康津等四邑得一鋤, 靈巖浥塵. 自二十一日至二十五日之雨, 茂朱·錦山·金溝·泰仁·古阜·高敞·靈光·昌平·玉果·求禮等十邑川渠漲滿, 羅州得二犁, 興德得一犁, 沃溝得一鋤是如爲白乎旃,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지난달 28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16일, 17일, 18일 19일의 비로 동북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가득 찼고 가리포는 1려가 내렸고 능주·장흥·순천·강진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암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의 비로 무주·금산·금구·태인·고부·고창·영광·창평·옥과·구례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가득 찼고 나주는 2려가 내렸고 흥덕은 1려가 내렸고, 옥구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6. 1879년(고종 16) 6월 8일(양력 7월 26일)

湖南啓錄 5책(17b~18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0a~350b)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一日申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四日午時又雨, 間間霏灑, 初七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一日, 至二十五日之雨, 潭陽·同福·綾州·珍山等四邑川渠漲滿, 光陽得二犁, 光州·和順得一犁, 康津得二鋤, 茂長·寶城得一鋤. 二十八日九日今一日之雨, 金堤·扶安·萬頃·臨陂·龍安·益山·光州等七邑川渠漲滿, 羅州·長興·靈光等三邑得一犁, 南原得二鋤, 寶城·長城得一鋤, 金溝·湍塵. 農形段, 付種畝方張再除草早中稻畝, 幾盡初除草, 晚稻畝早移, 間間初除草, 木綿黍粟, 再耘垂畢, 和種豆太, 間或再耘, 根耕豆太, 方始初耘, 秧不足處外, 今纔畢移, 而跨朔長潦, 間日暴雨, 汚畝之秧苗, 率多消融, 旱田之鋤役, 一直久愆是如. 水漲諸邑, 迭相告悶, 言念民事, 轉益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4일 오시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7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의 비로 담양·동북·능주·진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광양은 2려가 내렸고 광주·화순은 1려가 내렸고 강진은 2서가 내렸고 무장·보성은 1서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29일, 이번 달 초1일의 비로 김제·부안·만경·임피·용안·익산·광주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나주·장흥·영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남원은 2서가 내렸고 보성·장성은 1서가 내렸고 금구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중벼 논은 초벌김매기를 거의 끝냈고 늦벼 논 중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간이 초벌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두벌갈이가 모두 마쳤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모가 부족한 곳 이외에는 이제 막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장마에 하루 걸러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낮은 곳의 논이 어린 모는 대부분 녹아 없어졌고 밭의 김매기 일도 줄곧 오래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불어난 여러 고을은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리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7. 1879년(고종 16) 6월 10일(양력 7월 28일)

湖南啓錄 5책(18a~18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0b~350c)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七日申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間霏灑, 初十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九日, 今月初一日之雨, 光陽得一犁, 海南得一鋤. 自初四日至初七日之雨·龍潭·任實·古阜·高敞等四邑川渠漲滿, 礪山·金溝·潭陽等三等得一犁, 長水得二鋤, 臨陂得一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7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10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초1일까지의 비로 광양은 1려가 내렸고, 해남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4일부터 초7일까지의 비로 용담·임실·고부·고창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여산·금구·담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수는 2서가 내렸고 임피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뒀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8. 1879년(고종 16) 6월 12일(양력 7월 30일)

湖南啓錄 5책(19a~19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0d~350d)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十日辰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或霏或灑, 十一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 而載陰載陽[陽], 十二日午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自初四日至初七日之雨, 益山·咸悅·井邑·泰仁·淳昌·玉果·昌平·南原·雲峯等九邑川渠漲滿, 光陽得二犁, 法聖得一犁, 金堤得二鋤, 長城得一鋤, 而無論山沿川沙汰覆, 沈墊消瀝, 在在相續, 所損非細. 列邑告悶, 式日逕至, 言念民事, 益切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초10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잠깐 흐리다가 잠깐 별이 났기도 하면서 12일 오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4일부터 초7일까지 비로, 익산·함열·정읍·태인·순창·옥과·창평·남원·운봉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광양은 2려가 내렸고 법성은 1려가 내렸고 김제는 2서가 내렸고 장성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산골이나 물가를 막론하고 시내의 모래로 뒤덮였고 침수되어 녹아 없어진 것이 곳곳마다 이어져서 피해가 적지 않아서 여러 고을에서 걱정을 아뢰는 것이 매일 몰려들고 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09. 1879년(고종 16) 6월 18일(양력 8월 5일)

湖南啓錄 5책(29a~29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5c~355d)

承政院開圻

臣營下今月十一日申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初四日, 至初七日之雨, 羅州·務安·茂長·龍安·順天·樂安·求禮·寶城·長興·南平·和順·同福·綾州·茂朱等十四邑川渠漲滿, 靈巖·興德·加里浦等三邑鎭得二犁, 珍島·海南·康津·青山島等四邑鎭得一犁, 萬頃·興陽得一鋤, 自初八日至十一日之雨·長城·潭陽·南原·龍潭·古阜·金堤·金溝·礪山·珍山·高山等十邑川渠漲滿. 農形段, 付種畚幾訖再除草, 早中稻畚, 間間再除草, 木綿黍粟, 次第三耘, 和種豆太, 方張再耘, 根耕豆太, 幾盡初耘, 木麥方始播種, 而川漲諸邑田畚各穀, 間多全棄, 古阜沃溝蟲災大熾, 所損非細是如爲白乎所, 水患未蘇, 蟲損繼熾. 言念民事, 尤切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11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4일부터 초7일의 비로 나주·무안·무장·용안·순천·낙안·구례·보성·장흥·남평·화순·동복·능주·무주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영암·홍덕·가리포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진도·해남·강진·청산도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만경·홍양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8일부터 11일까지의 비로 장성·담양·남원·용담·고부·김제·금구·여산·진산·고산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중벼 논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였으며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메밀은 막 씨앗 뿌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내가 불어난 여러 고을의 논밭 곡식은 그사이 대부분 전부 폐기하였고, 고부와 옥구는 벌레 재해가 크게 발생하여 손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로 인한 고통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벌레로 인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

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0. 1879년(고종 16) 6월 21일(양력 8월 8일)

湖南啓錄 5책(29b~29b)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4책(355d~355d)

承政院開坼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一日寅時始雨, 午時至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遣, 十五日六日之雨, 營下無得, 而連接各邑所報, 則古阜川渠漲滿, 興德得二犁, 海南·羅州·靈光·金溝等四邑得一犁, 靈巖·長城得二鋤, 咸平得一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인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고 이내 개었습니다. 15일, 16일의 비는 저의 감영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고부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덕은 2려가 내렸고, 해남·나주·영광·금구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암·장성은 2서가 내렸고, 함평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1. 1879년(고종 16) 6월 21일(양력 8월 8일)

湖南啓錄 5책(29b~230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5d~356b)

承政院開坼

各邑漂頽戶, 待摘奸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節到付錦山郡守金世基牒呈內, 五十[月]十七日八日九日之雨, 全家漂頽, 爲七十一戶, 人命渰死, 爲一名, 屍體拯得, 而逐戶摘奸之際, 自爾遲滯是如爲白有旆. 全州判官朴齊近牒呈內, 五月十九<日>之雨, 民家全頽, 爲五十三戶是如爲白有旆, 茂朱府使洪鼎裕牒呈內, 五月十九日之雨, 全家漂頽, 爲六十四戶是如爲白有旆. 珍山郡守權在禹牒呈內, 五月十九日之雨, 民家全頽, 爲三十九戶, 人命渰死, 爲一名, 屍體拯得是如爲白乎所, 上項錦山等四邑之多戶漂頽, 二名渰死, 俱極矜惻, 元恤典, 依列題給, 亦自臣營, 別加顧助, 渰屍着意厚埋, 頽戶不日改構, 俾各慰撫安接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각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이고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도착한 금산 군수 김세기가 바친 문서에, “5월 17일, 18일 19일의 비로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전체 가구는 71가구이고 빠져 죽은 사람은 1명이고 시체는 건졌고, 가구 마다 캐보았는데 그 즈음 자연 지체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주 관관 박제근이 바친 문서에, “5월 19일의 비로 완전히 무너진 백성 가구는 53가구입니다.”라고 하였고 무주부사 홍정유가 바친 문서에 “5월 19일의 비로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전체 가구는 64가구입니다.”라고 하였고, 진산 군수 권재우가 바친 문서에 “5월 19일의 비로 완전히 무너진 백성 가구는 39가구 이고, 빠져죽은 사람은 1명이고 시체는 건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향의 금산 등 4개 고을의 많은 가구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고 2명이 빠져죽었다니 모두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본 구호품은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었습니다. 또한 저의 감영에서는 별도로 돌보아 주는데 빠져죽은 시체는 정성껏 넉넉하게 매장하였고 무너진 가구는 하루빨리 고쳐지어 각각 위로하여 안심하고 살게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2. 1879년(고종 16) 6월 27일(양력 8월 14일)

湖南啓錄 5책(33a~33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7c~357c)

承政院開坼

臣營下今月二十一日寅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二日申時又雨, 間間霏灑, 二十六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 而載陰載陽, 二十七日卯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五日六日之雨, 任實川渠漲滿, 綾州·康津得一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1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2일 신시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26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이었고 잠깐 흐리다가 잠깐 별이 나기도 하다가 27일 묘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5일, 16일의 비로 임실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능주·강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3. 1879년(고종 16) 6월 28일(양력 8월 15일)

湖南啓錄 5책(33b~34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7d~357d)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二十六日辰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二十二日, 至二十六日之雨·古阜·高敞·任實·鎭安·潭陽·龍潭·等六邑, 川渠漲滿, 茂長·務安·淳昌等三邑, 得一犁, 珍島·金溝·南原等三邑, 得二鋤·益山·長城·礪山·金堤·茂朱·南平等六邑得一鋤.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胚胎, 移種早稻畚, 幾訖再除草, 中晚稻畚, 次第再除草, 木綿黍粟, 三耘垂畢, 和種豆太, 已訖再耘, 根耕豆太, 間間再耘, 木麥方始立苗, 而前啓中告悶是白在古阜·沃溝兩邑外扶安段置, 蟲災間熾, 痒稼非細是如, 亦爲告悶. 言念民事, 益切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26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계속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2일부터 26일까지의 비로 고부·고창·임실·진안·담양·용담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무장·무안·순창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진도·금구·남원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익산·장성·여산·김제·무주·남평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이삭이 배었고 옮겨 심은 올벼 논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섞어짓는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메밀은 막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아뢴 것 중 걱정을 아뢴 고부·옥구 2개 고을 이외에 부안의 경우 벌레 재해가 그 사이 발생하여 곡식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며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4. 1879년(고종 16) 7월 1일(양력 8월 18일)

湖南啓錄 5책(34a~3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8a~358a)

承政院開坼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去月三十日辰時始雨, 或霏或灑, 申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 而載陰載暘, 今月初一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二日, 至二十六日之雨, 萬頃·咸悅川渠漲滿, 龍安得二犁, 羅州·康津得二鋤, 扶安得一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지난달 30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입이었고 잠깐 흐리다가 잠깐 별이 나다가 하면서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의 비로 만경·함열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가득찼고 용안은 2려가 내렸고 나주·강진은 2서가 내렸고 부안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5. 1879년(고종 16) 7월 6일(양력 8월 23일)

湖南啓錄 5책(35a~35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4책(358c~358c)

承政院開拆

臣營下去月三十日申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今月初三日午時始雨, 或霏或灑, 初五
十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 而載陰載陽, 初六日午時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
報, 則去月三十日之雨, 興德得一犁, 金溝得二鋤, 泰仁·南原得一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지난달 30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3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다가 초5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습니다. 잠깐 흐리거나 잠깐 별이 나기도
하다가 초6일 오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홍덕은 1려가 내렸고 금구는 2서가 내렸고 태인·남원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6. 1879년(고종 16) 7월 8일(양력 8월 25일)

湖南啓錄 5책(35b~36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8d~359a)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五日午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之雨, 高山得一犁, 扶安·咸平得一鋤, 今月初三日四日五日之雨·礪山·益山·金堤·金溝·臨陂·高敞等六邑川渠漲滿, 南原得一犁. 農形段, 付種早稻, 間間發穗, 移種早稻, 方張胚胎, 中晚稻畚, 幾訖再除草, 木綿次第開花, 黍粟間或胚胎, 和種豆太, 方始開花, 根耕豆太, 再耘垂畢, 木麥向苗, 而前啓中告悶是白在古阜等三邑外, 臨陂段置, 蟲災大熾, 受損不少是如, 亦爲告悶. 言念民事, 轉益懂懂,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5일 오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고산은 1려가 내렸고 부안·함평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초3일, 4일, 5일의 비로 여산·익산·김제·금구·임피·고창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남원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옮겨 심은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기장·조는 간혹 이삭이 배었고 섞어짓는 콩·팥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 한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메밀은 싹이 나왔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걱정을 아뢰고부 등 3개 고을 이외에 임피의 경우 벌레 재해가 크게 발생하여 받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며 또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리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7. 1879년(고종 16) 7월 11일(양력 8월 28일)

湖南啓錄 5책(36b~37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9a~359b)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十日寅時始雨, 間間霏灑, 申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 而載陰載陽, 十一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三日四日五日之雨, 泰仁·井邑·茂長·興德·古阜·扶安·萬頃·龍安·咸悅·珍山·錦山·鎭安·龍潭·茂朱·雲峯·任實·淳昌·谷城等十八邑川渠漲滿, 長水得二犁, 長城·靈光·務安等三邑得一犁, 長興·昌平·同福等三邑得一鋤, 順天·求禮·湍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0일 인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잠깐 흐리다가 잠깐 별이 나다가 11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3일, 4일, 5일의 비로 태인·정읍·무장·홍덕·고부·부안·만경·용안·함열·진산·금산·진안·용담·무주·운봉·임실·순창·곡성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수는 2려가 내렸고 장성·영광·무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흥·창평·동복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천·구례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8. 1879년(고종 16) 7월 18일(양력 9월 4일)

湖南啓錄 5책(38b~39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59c~359d)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十日申時至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十日之雨, 羅州·長城·高敞·泰仁·金堤·萬頃·礪山·茂朱·龍潭·谷城·淳昌·昌平·潭陽等十三邑, 川渠漲溢, 龍安得二犁, 南原·光陽·和順等三邑得一犁, 金溝·益山·臨陂·扶安·靈巖等五邑得二鋤, 咸平·長興·順天等三邑得一鋤, 興陽浥塵. 農形段付種早稻, 次第發穗, 移種早稻, 間間發穗, 中晚稻方張胚胎, 木綿間或結穎, 黍粟方始發穗, 和種豆太結殼, 根耕豆太開花, 而川漲諸邑段, 田畝各穀之偏被水損者, 已判全棄, 民家之依山傍浦者, 亦多漂頽, 珍島·海南·萬頃·龍安等四邑段, 蟬蟲熾盛. 益山段, 坐損間多, 痒家非細是如, 迭相告悶, 言念民事, 轉益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0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10일의 비로 나주·장성·고창·태인·김제·만경·여산·무주·용담·곡성·순창·창평·담양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용안은 2려가 내렸고 남원·광양·화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구·익산·임피·부안·영암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함평·장흥·순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홍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중벼·늦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간혹 다래가 맺혔고 기장·조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습니다. 시내가 불어난 여러 고을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은 물로 입은 피해가 심해 이미 판가름해 전부 폐기하였습니다. 산에 의지하거나 포구 옆에 있던 백성 가구는 또한 떠내려가거나 무너졌습니다. 진도·해남·만경·용안 등 4개 고을의 경우, 매미가 맹렬하게 발생하였고 익산의 경우 손해를 당한 것이 그사이 많아서 곡식의 피해가 적지 않다

고 하며 번갈아 서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리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19. 1879년(고종 16) 7월 28일(양력 9월 14일)

湖南啓錄 5책(44a~4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62c~362d)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十日之雨, 古阜靈光, 川渠漲滿, 茂長得二犁·綾州·珍島·寶城·同福·南平·加里浦等六邑鎮, 得一犁, 康津得二鋤, 海南得一鋤. 農形段, 付種早稻, 間間垂穎, 移種早稻, 次第發穗, 和耕與根耕豆太, 間或入實, 木麥方張開花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0일의 비로 고부·영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무장은 2려가 내렸고 능주·진도·보성·동북·남평·가리포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강진은 2서가 내렸고 해남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고개를 숙였고 옮겨 심은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섞어짓거나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알이 들었고 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0. 1879년(고종 16) 8월 8일(양력 9월 23일)

湖南啓錄 5책(50b~51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66b~366c)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去月二十二日之雨, 臣營下無所得, 而連接各邑所報則·金溝·南原·海南·長興·康津·同福等六邑得一鋤, 古阜·興陽·溫塵·農形段, 付種早稻, 舉皆垂穎, 移種早稻, 已盡發穗, 中晚稻次第發穗, 木綿間摘絮, 黍粟間或入實, 和種與豆太, 方張入實, 木麥方始結穀, 而沃溝·咸悅·龍安·古阜·臨陂·靈光·寶城·茂長·萬頃等九邑, 青蟲熾盛, 豆太木綿受損甚多是如, 迭相告悶, 言念民情, 轉益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달 22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것은 없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금구·남원·해남·장흥·강진·동북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부·홍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거의 모두 고개를 숙였고 옮겨 심은 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목화는 간간이 솜을 뺐고 기장·조는 간혹 알이 들었고 섞어짓거나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메밀은 한창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옥구·함열·용안·고부·임피·영광·보성·무장·만경 등 9개 고을은 푸른 벌레가 크게 일어났고 콩·팥과 목화가 받은 피해가 매우 많다고 번갈아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리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221. 1879년(고종 16) 8월 18일(양력 10월 3일)

湖南啓錄 5책(54b~54b)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4책(368a~368b)

承政院開圻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早稻, 間或刈取, 移種早稻, 間間垂穎, 中晚稻已盡發穗, 木綿方張摘絮, 黍粟次第入實, 和種與根耕豆太, 方始向熟, 木麥幾盡結穀. 而蟲災告悶是白在沃溝等九邑外, 龍潭·鎮安·樂安等三邑段置, 青蟲大熾, 豆太木綿, 受損不少是如, 亦爲告悶, 言念民情, 誠甚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고개를 숙였고 중벼·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고 있으며 기장·조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섞어짓거나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메밀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벌레 재해로 걱정을 아뢴 옥구 등 9개 고을 이외에 용담·진안·낙안 등 3개 고을의 경우, 푸른 벌레가 크게 일어나 콩·팥, 목화가 받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고 또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2. 1879년(고종 16) 8월 21일(양력 10월 6일)

湖南啓錄 5책(54b~55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68b~368b)

承政院開拆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日辰時始雨, 間間霏灑, 二十一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3. 1879년(고종 16) 8월 28일(양력 10월 13일)

湖南啓錄 5책(61b~6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372a~372b)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二十一日辰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則二十日之雨, 長興得二鋤, 南原同福得一鋤, 高山·金溝·龍澤·淳昌·玉果·靈巖·靈光等七邑浥塵. 農形段付種早稻, 已盡刈取, 移種早稻間或刈取, 中晚稻次第垂穎, 木綿方張摘絮, 黍粟漸次向熟, 和種與根耕豆太, 間或收穫, 木麥方始入實, 而珍山今月二十二日夜霜降是如爲白乎所, 晚漑纔收, 驟霜繼至, 被損之穀, 難望榆收, 言念民事, 誠甚悶. 然年形已判, 檢田在即, 嗣後形止, 待列邑報概, 分等報摠,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1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0일의 비로 장흥은 2서가 내렸고 남원·동복은 1서가 내렸고 고산·금구·용담·순창·옥과·영광·영암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고개를 숙였고 목화는 한창 솜을 뺐고 기장·조는 점차 익어갔고 섞어짓거나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수확을 하였고 메밀은 바하으로 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산은 이번 달 2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곡식은 늦게나마 거둘 가망이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농사 상황은 이미 관가름이 났고 밭검사도 다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의 대략적인 보고를 기다려 풍흉 등급을 나누고 총수를 합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4. 1880년(고종 17) 5월 18일(양력 6월 25일)

湖南啓錄 6책(3a~3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05b~405c)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九日午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寶城得一犁, 珍山·龍潭得二鋤, 茂朱·錦山·光陽·長興·興陽·靈光等六邑得一鋤, 任實·雲峰·南原·谷城·求禮·同福·康津·靈巖·高敞·扶安·萬頃·金堤·金溝·礪山·咸悅·龍安·臨陂·益山·群山等十九邑鎮浥塵, 十一日二日之雨, 臣營下無所得·而雲峰·南原·任實·珍山·井邑等五邑得一鋤·鎮安·金溝·沃溝·臨陂·泰仁·高敞·萬頃·長城·玉果等九邑浥塵. 農形段付種畚方張初除草, 早稻畚次第移秧, 中晚稻畚間間移秧, 木綿黍粟和種, 豆太次第初耘, 根耕豆太幾盡播種是如爲白乎所, 夏至已過, 霈澤未洽, 高燥之地, 秧役稍愆. 言念民情, 誠爲悶然,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초9일 오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 비로 보성은 1려가 내렸고 진산·용담 등 두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무주·금산·광양·장흥·홍양·영광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실·운봉·남원·곡성·구례·동북·강진·영암·고창·부안·만경·김제·금구·여산·함열·용안·임피·익산·군산 등 1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1일, 12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는 내린 것이 없습니다. 운봉·남원·임실·진산·정읍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안·금구·옥구·임피·태인·고창·만경·장성·옥과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으며 올벼 논은 차례로 모내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간간이 모내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 섞어짓는 콩·팥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으나 아직 넉넉하게 주룩주룩 내리지 않았고 높고 건조한 땅은 모내기 일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5. 1880년(고종 17) 5월 22일(양력 6월 29일)

湖南啓錄 6책(9b~9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08b~408c)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二十日申時始雨，斷續霏灑，二十一日酉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而仍爲開霽是白乎所，秧節向晚，得此甘澍，峽沿諸邑，舉皆均洽是白乎喻，罔夜董勸，斯速畢移之意，連加申飭爲白乎旆，所得多寡，待其齊報，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모내기 절기가 늦었는데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산골과 물가 여러 고을은 모두 다 골고루 넉넉하였습니다. 밤을 잊고 독려하고 권유하며 어서 빨리 모내기를 마치라는 뜻으로 연달아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6. 1880년(고종 17) 5월 25일(양력 7월 2일)

湖南啓錄 6책(9b~10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08c~408c)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二十一日酉時至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二十二日午時又雨，或霏或灑，二十四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而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二十一日之雨，長水淳昌川渠漲滿，潭陽得二鋤，南原·光州·綾州等三邑得一鋤，礪山·益山·臨陂·萬頃·古阜·金堤·金溝·鎭安等八邑涸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1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2일 오시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1일의 비로 장수·순창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담양은 2서가 내렸고 남원·광주·능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익산·임피·만경·고부·김제·금구·진안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7. 1880년(고종 17) 5월 28일(양력 7월 5일)

湖南啓錄 6책(11b~1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09b~409c)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二十四日辰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二日之雨, 羅州和順得二鋤, 樂安·長城·南平·光陽·靈巖·扶安·茂長·靈光·法聖等九邑鎮得一鋤·咸平·井邑·沃溝·順天·泰仁·群山等六邑鎮浥塵. 二十四日之雨, 鎮安·龍潭·雲峰·南原·谷城·玉果·咸悅等七邑川渠漲滿, 龍安·求禮·寶城·臨陂等四邑得一犁·益山·萬頃·金溝·群山等四邑鎮得一鋤, 古阜浥塵. 農形段, 付種畚幾盡初除草, 早中晚稻畚, 次第移秧, 木綿黍粟方張初耘, 和種豆太間或初耘, 根耕豆太播種垂畢, 而秧節漸晚, 甘藷既洽, 加倍董勸, 使之次第引溉, 期於斯速畢移之意, 另加申飭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4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1일, 22일의 비로 나주·화순은 2서가 내렸고 낙안·장성·남평·광양·영암·부안·무장·영광·법성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함평·정읍·옥구·순천·태인·군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4일의 비로 진안·용담·운봉·남원·곡성·옥과·함열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용안·구례·보성·임피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익산·만경·금구·군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부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거의 다 초벌김매기를 하였으며 올벼·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모내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씨앗 뿌리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내기 절기가 점차 늦었는데 단비가 이미 넉넉하게 내렸으니 배로 독려하고 권유하여 차례대로 물을 끌어다가 기어이 어서 빨리 모내기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8. 1880년(고종 17) 6월 8일(양력 7월 14일)

湖南啓錄 6책(29b~30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17a~417b)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六日午時始雨, 間間霑灑, 初七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四日之雨, 茂朱·錦山·高山·珍山·礪山·和順·綾州·光州·長興等九邑川渠漲滿, 珍島·興陽得二鋤, 同福·光陽·羅州·靈巖·務安·海南等六邑得一犁, 昌平·任實·康津等三邑得二鋤, 茂長·高敞·興德·沃溝·長水等五邑得一鋤, 泰仁浥塵. 農形段, 付種畚已訖初除草, 早中稻畚, 間間初除草, 晚稻畚, 方張移秧, 木綿黍粟間或再耘, 和種豆太方張初耘, 根耕豆太方始立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7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무주·금산·고산·진산·여산·화순·능주·광주·장흥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도·홍양은 2서가 내렸고 동북·광양·나주·영암·무안·해남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창평·임실·강진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무장·고창·홍덕·옥구·장수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태인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초벌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올벼·중벼 논은 간간이 초벌김매기를 하였고, 늦벼 논은 한창 모내기를 하고 있으며 목화·기장·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싹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29. 1880년(고종 17) 6월 11일(양력 7월 17일)

湖南啓錄 6책(30a~30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17b~417c)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九日午時始雨, 或霏或灑, 初十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載陰載陽, 十一日寅時量, 仍爲開霽是白遣, 初四日之雨, 臣營下無所得, 而連接各邑所報, 則鎮安·錦山川渠漲滿, 加里浦得二犁, 珍山得一犁, 礪山·龍潭得一鋤, 益山·咸悅·臨陂·龍安·萬頃·金堤·金溝·南原·光州·靈光等十邑浥塵. 初六日七日之雨, 礪山川渠漲滿, 金溝得二鋤, 長水·雲峰·南原·泰仁·萬頃·益山等六邑得一鋤·任實·谷城·淳昌·潭陽·金堤·臨陂等六邑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잠깐 흐렸다가 잠깐 별이 나기도 하면서 11일 인시 썸에 이내 개었습니다. 초4일의 비로 저의 감영은 내린 것이 없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진안·금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가리포는 2려가 내렸고 진산은 1려가 내렸고 여산·용담은 1서가 내렸고 익산·함열·임피·용안·만경·김제·금구·남원·광주·영광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초6일, 초7일의 비로 여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는 2서가 내렸고, 장수·운봉·남원·태인·만경·익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실·곡성·순창·담양·김제·임피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0. 1880년(고종 17) 6월 14일(양력 7월 20일)

湖南啓錄 6책(30b~31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18d~419a)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十日辰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十二日申時又雨, 間間霏灑, 十三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六日七日之雨, 群山得二鋤, 順天·光州·長城等三邑浥塵. 初九日十日之雨, 沃溝·谷城得一鋤, 古阜·扶安·萬頃·金溝·任實等五邑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0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2일 신시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3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6일, 7일의 비로 군산은 2서가 내렸고 순천·광주·장성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초9일, 10일의 비로 옥구·곡성은 1서가 내렸고 고부·부안·만경·금구·임실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1. 1880년(고종 17) 6월 28일(양력 8월 3일)

湖南啓錄 6책(37a~38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20b~420d)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十八日午時至雨澤及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三日之雨, 鎮安川渠漲滿, 羅州得二鋤, 務安·康津·南平等三邑得一鋤, 南原·光州·長興·咸平·萬頃等五邑浥塵, 十八日之雨, 龍潭·長水川渠漲滿, 任實得一犁, 南原·羅州·茂朱等三邑得二鋤, 錦山·雲峰·玉果·光州·綾州·南平·長興·高敞·礪山·咸悅·高山等十一邑得一鋤, 谷城·淳昌·和順·井邑·長城·泰仁·興德·茂長·金溝·臨陂·益山·寶城·順天等十三邑浥塵. 農形段, 付種畚已訖再除草, 早中稻畚間再除草, 晚稻畚已移處方張初除草, 木綿黍粟再耘垂畢, 和種豆太方始再耘, 根耕豆太方張初耘. 前啓中告悶是白在靈光段, 今月二十日得雨停止, 而或因秧苗之不足, 或因雨澤之未洽, 峽沿諸邑, 尙多未移, 秋序不遠, 畢秧無期. 至於已移處, 旱炎比酷, 淒風間吹, 秧色萎黃, 昂莊不茁. 康津段, 十六日海水汎濫, 鹹損非細是如, 迭相告悶, 言念民事, 誠甚懂懂. 未移處以相當穀, 量宜代播之意, 連加題飭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8일 오시까지의 우택 및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2일, 13일의 비로 진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나주는 2서가 내렸고 무안·강진·남평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남원·광주·장흥·함평·만경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8일의 비로 용담·장수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임실은 1려가 내렸고 남원·나주·무주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금산·운봉·옥과·광주·능주·남평·장흥·고창·여산·함평·고산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곡성·순창·화순·정읍·장성·태인·홍덕·무장·금구·임피·익산·보성·순천 등 1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올벼·중벼 논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 논 중 이미 옮겨 심은 곳은 한창 초벌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

장·조는 두벌 김매기가 모두 끝나고 쉬어짓는 콩·팥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그루
같이한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걱정을 아뢰었던
영광의 경우, 이번 달 20일에 비가 내려 중지하였고 더러 모가 부족하거나 더러 우택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산골과 물가 여러 고을은 아직도 모내기 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가을철이 멀지 않았고 모내기를 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이미 모내기 한 곳의 경우, 가물
때 더위가 다른 것에 비해 혹독하고 서늘한 바람이 그사이 불었는데 모의 색깔은 누렇게
시들었고 앙상하게 싹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강진의 경우, 16일 바닷물이 범람하여 소금
기 피해가 적지 않다고 번갈아가며 서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내기 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곡식으로 적절하게 대신 씨를
뿌리라는 뜻으로 연달아 제음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2. 1880년(고종 17) 7월 2일(양력 8월 7일)

湖南啓錄 6책(38b~39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20d~421a)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一日辰時始雨, 間間霏灑, 初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姑未開霽是白遣, 前啓中告悶是白在康津一邑外, 珍島·靈光·群山等三邑鎮段置, 去月十七日八日之間, 海水汎濫, 堰畚潰缺, 被損非細是如, 亦爲告悶. 言念民事, 轉益憧憧是白乎旆, 多日悶旱之餘, 得此甘澍, 列邑多少,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2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입니다.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걱정을 아뢰었던 강진 1개 고을 이외에 진도·영광·군산 등 3개 고을과 군영의 경우, 지난달 17일, 18일 사이에 바닷물이 범람하여 독과 논이 터져서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며 또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리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여러 날 가뭄을 걱정한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는데 여러 고을은 얼마인지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3. 1880년(고종 17) 7월 8일(양력 8월 13일)

湖南啓錄 6책(40a~40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23b~423c)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二日卯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載陰載陽[陽], 初三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二日之雨, 茂朱·雲峰·南原·求禮·谷城·同福·興陽·靈巖·寶城·咸平·務安·古阜·沃溝·高敞·茂長·咸悅·礪山·法聖等十八邑鎮, 川渠漲滿. 羅州·玉果得二犁, 任實·長城·靈光等三邑得一犁, 錦山·珍山·金溝·興德等四邑得二鋤, 淳昌·潭陽·井邑·扶安·金堤·萬頃·龍潭·長水·群山等九邑鎮得一鋤, 益山·龍安·臨陂·泰仁·順天等五邑浥塵. 農形段, 付種早稻間或胚胎, 移種早稻畚幾訖再除草, 中晚稻畚已移處, 次第再除草, 木綿黍粟方張三耘, 和種豆太再耘垂畢, 根耕豆太已盡初耘, 木麥播種, 而前啓中告悶是白在珍島·靈光·群山等三邑鎮外, 興陽段置, 去月十六日海溢被損非細. 寶城段, 田畚之潰缺, 民家之漂頽, 亦爲不少, 去月三十日, 今月初一日之間, 獐風大作, 田畚各穀, 無不摧靡, 間多全棄是如, 峽沿諸邑, 迭相告悶. 言念民事, 益切憧憧是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2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잠깐 흐렸다가 잠깐 별이 났기도 하면서 초3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1일, 초2일의 비로 무주·운봉·남원·구례·곡성·동북·홍양·영암·보성·함평·무안·고부·옥구·고창·무장·함열·여산·법성 등 18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나주·옥과는 2려가 내렸고 임실·장성·영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산·진산·금구·흥덕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순창·담양·정읍·부안·김제·만경·용담·장수·군산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익산·용안·임피·태인·순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이삭이 배었고 옮겨 심은 올벼 논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 중 이미 옮겨 심은 곳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메밀은 씨앗 뿌리기를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걱정을 아뢰진 진도·영광·군산 등 3개 고을과 군영 이외에 홍양의 경우, 지난달 16일 해일로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성의 경우, 논밭이 터지고 백성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지는 것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초1일 사이에 맹렬한 바람이 크게 일어나 논밭의 각종 곡식은 꺾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그 사이 대부분 전부 포기했다고 하며 산골과 물가 여러 고을에서 번갈아 서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4. 1880년(고종 17) 7월 9일(양력 8월 14일)

湖南啓錄 6책(42b~43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24a~424b)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九日丑時始雨, 或霏或灑, 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二日之雨, 珍島·海南·光州·和順·康津·樂安·加里浦等七邑鎮川渠漲滿, 光陽得一犁, 珍山得二鋤, 長水得一鋤, 而前啓中告悶是白在興陽外加里浦設置, 去月十六日海溢, 鹹損非細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고 아직 개이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1일, 2일의 비로 진도·해남·광주·화순·강진·낙안·가리포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광양은 1려가 내렸고 진산은 2서가 내렸고 장수는 1서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걱정을 아뢰었던 홍양 이외의 가리포의 경우, 지난 달 16일 해일이 일어나 소금기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5. 1880년(고종 17) 7월 11일(양력 8월 16일)

湖南啓錄 6책(44a~44b)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6책(425a~425b)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初九日卯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間霏灑, 十一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十日之雨, 順天川渠漲滿, 任實得一犁, 金溝得二鋤, 高山·益山·泰仁等三邑得一鋤, 金堤沍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9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1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9일, 10일의 비로 순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임실은 1려가 내렸고 금구는 2서가 내렸고 고산·익산·태인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김제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6. 1880년(고종 17) 7월 18일(양력 8월 23일)

湖南啓錄 6책(59a~59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29a~429c)

承政院開拆

臣營下今月十一日午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十日十一日之雨, 礪山·茂朱·樂安·谷城·長興等五邑川渠漲滿, 長水·雲峰·玉果·和順·綾州·南平·沃溝等七邑得一犁, 羅州·光州·務安·南原·龍潭·珍山·臨陂·咸悅等八邑得二鋤, 萬頃·井邑·潭陽·加里浦等四邑得一鋤, 扶安·群山·浥塵·農形段, 付種早稻, 間間發穗, 移種早稻, 方張胚胎, 中晚稻畚, 幾訖再除草, 木綿間或開花, 黍粟胚胎, 和種豆太, 開花根畹, 豆太次第再耘, 木麥方始立苗, 而自經風災之後, 早稻間多萎枯, 晚稻亦皆蹲縮. 至於田穀, 被災尤甚, 木綿則花房撲落, 豆太則莖葉披靡, 結穎入實, 殆無所望是如, 各邑同然, 式日告悶, 言念民事, 益切憂悶.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1일 오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9일, 10일 11일의 비로 여산·무주·낙안·곡성·장흥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수·운봉·옥과·화순·능주·남평·옥구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나주·광주·무안·남원·용담·진산·임피·함열 등 8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만경·정읍·담양·가리포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부안·군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옮겨 심은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었고 기장·조는 이삭이 배었고 섞어짓는 콩·팥은 꽃이 피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메밀은 막 싹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람 재해를 겪은 이후로 올벼는 그사이 많이 시들어 말랐고 늦벼는 또한 모두 벼멸구가 있었습니다. 밭곡식의 경우 입은 재해가 더욱 심했습니다. 목화는 화방이 벗겨지고 떨어졌고, 콩·팥은 줄기와 잎사귀가 벗겨지고 쓰러져 다래가 맺히거나 알이 들 가망은 거의 없다고 하며 각 고을도

똑같이 매일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매우 근심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7. 1880년(고종 17) 7월 28일(양력 9월 2일)

湖南啓錄 6책(67a~67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6책(433a~433a)

承政院開拆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早稻次第發穗, 移種早稻間發穗, 中晚稻方張胚胎. 木綿或結穎, 黍粟發穗, 和種豆太結殼, 根畊豆太開花, 木麥向茁, 而海南·咸平·靈巖等三邑, 去月二十八日海溢, 披損非細是如, 亦爲告悶. 言念民情, 誠甚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승정원 열람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중벼·늦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다래를 맺고 기장·조도 이삭이 났고 섞어짓는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고 메밀은 싹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해남·함평·영광 등 3개 고을은 지난달 28일 해일로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며 또한 걱정을 아뢰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8. 1880년(고종 17) 8월 2일(양력 9월 6일)

湖南啓錄 6책(69a~69b) /各司臚錄 19책, 湖南啓錄 6책(433b~433c)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一日卯時始雨, 間間霏灑, 初二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 而仍爲開霽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2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39. 1880년(고종 17) 8월 5일(양력 9월 9일)

湖南啓錄 6책(81a~81b) /各司臚錄 19책, 湖南啓錄 6책(439c~439d)

臣營下今月初二日卯時至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初四日午時始雨，或霏或灑，初五日申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而姑未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初一日二日之雨，茂朱·鎮安·任實·金堤·古阜等五邑川渠漲滿。高山得一犁，金溝·興德·泰仁·錦山等四邑得一鋤，益山·長城·淳昌等三邑沍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2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4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1일·2일의 비로 무주·진안·임실·김제·고부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은 1려가 내렸고, 금구·홍덕·태인·금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익산·장성·순창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0. 1880년(고종 17) 8월 8일(양력 9월 12일)

湖南啓錄 6책(81b~82a) /各司臚錄 19책, 湖南啓錄 6책(439d~440a)

臣營下今月初五日申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載陰載陽,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金溝·泰仁川渠漲滿, 咸悅·任實得一犁, 谷城沍塵. 農形段, 付種早稻間間垂穎, 移種早稻次第發穗, 中晚稻間間發稻[穗], 木綿間或摘絮, 黍粟幾盡發穗, 和種豆太與根畊, 豆太間或入實, 木麥方始開花,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5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금구·태인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함열·임실은 1려가 내렸고, 곡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옮겨 심은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목화는 간혹 솜을 따고 기장과 조는 거의 다 이삭이 패었고 섞어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알이 들고 메밀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1. 1880년(고종 17) 8월 11일(양력 9월 15일)

湖南啓錄 6책(86a~86b) /各司臚錄 19책, 湖南啓錄 6책(442a~442b)

道內雨澤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九日亥時始雨, 或霏或灑, 十一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五日之雨, 金堤·古阜·興德·茂長·咸平·高山·錦山·鎮安·南原等九邑川渠漲滿, 潭陽·羅州·和順·務安·臨陂等五邑得一犁, 光州·井邑得二鋤, 淳昌·長水·萬頃等三邑得一鋤, 長城·龍安沍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초5일의 비로 김제·고부·남원·홍덕·무장·함평·고산·금산·진안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담양·나주·화순·무안·임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광주·정읍은 2서가 내렸고, 순창·장수·만경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장성·용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2. 1885년(고종 22) 2월 19일(양력 4월 4일)

湖南啓錄 1책(4b~5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5c~45c)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今月十八日始雨, 間或霏灑, 十九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姑未開霽是白遣. 農形段, 連接各邑所報, 則早稻畚間間初翻耕, 兩麥漸次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9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갈아엮기를 하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졌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3. 1885년(고종 22) 2월 25일(양력 4월 10일)

湖南啓錄 1책(11b~1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8d~49a)

臣營下今月十九日寅時至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同時以後，斷續霏灑，二十三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而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自十九日，至二十一日之雨，鎮安川渠漲滿，珍山·錦山·南原·任實·龍潭·長水·昌平·光陽·茂長·長城等十邑得一鋤，礪山·益山·臨陂·萬頃·沃溝·龍安·金堤·泰仁·扶安·古阜·金溝·興德·潭陽·靈光·樂安等十五邑浥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9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끊어졌다 이어지며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9일부터 21일까지의 비로 진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산·금산·남원·임실·용담·장수·창평·광양·무장·장성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익산·임피·만경·옥구·용안·김제·태인·부안·고부·금구·홍덕·담양·영광·낙안 등 1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4. 1885년(고종 22) 2월 28일(양력 4월 13일)

湖南啓錄 1책(13b~13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9c~49d)

臣營下, 今月二十三日卯時至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五日酉時, 又雨, 或霏或灑, 二十八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 二日三日之雨, 玉果川渠漲滿, 高敞·務安·咸平·同福等四邑, 得一犁, 羅州·南平·和順·長興·谷城·求禮·茂朱·法聖等八邑鎮, 得一鋤, 雲峯·淳昌·順天·井邑·咸悅·群山鎮六邑等, 浥塵. 農形段, 早稻畚次第初翻耕, 兩麥方張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3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5일 유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1일·22일·23일의 비로 옥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창·무안·함평·동북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나주·남평·화순·장흥·곡성·구례·무주·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운봉·순창·순천·정읍·함열·군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보리와 밀은 한창 푸르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5. 1885년(고종 22) 3월 8일(양력 4월 22일)

湖南啓錄 1책(15a~15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10c~410d)

臣營下, 去月二十八日卯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五日, 至二十九日之雨. 高山·珍山·龍潭·鎮安·求禮·綾州·昌平·康津等八邑, 川渠漲滿, 金溝·高敞·南平·海南·南原·雲峯·長水·錦山·礪山等九邑, 得一犁, 泰仁·金堤·臨陂·沃溝·龍安·萬頃·井邑·古阜·長城·羅州·茂長·同福·光州·淳昌·谷城·任實·法聖等十七邑鎮, 得一鋤, 靈巖·潭陽·樂安·順天·扶安·益山等六邑, 浥塵. 農形段, 早稻畚方張初翻耕, 中晚稻畚間或初翻耕, 兩麥漸次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지난달 28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의 비로 고산·진산·용담·진안·구례·능주·창평·강진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고창·남평·해남·남원·운봉·장수·금산·여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인·김제·임피·옥구·용안·만경·정읍·고부·장성·나주·무장·동복·광주·순창·곡성·임실·법성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영암·담양·낙안·순천·부안·익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보리와 밀은 점차 싹이 무성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6. 1885년(고종 22) 3월 18일(양력 5월 2일)

湖南啓錄 1책(27a~27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14a~414b)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十四日亥時始雨, 斷續霏灑, 十五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任實·潭陽, 浥塵. 農形段, 付種方始耕播, 早稻畚間或再翻耕, 中晚稻畚次第初翻耕, 秧坂間注種, 大麥胚胎, 小麥苗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5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임실·담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는 것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 올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못자리에 간간이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싹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7. 1885년(고종 22) 3월 21일(양력 5월 5일)

湖南啓錄 1책(28a~28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1책(414d~415a)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九日戌時始雨，間間霏灑，二十一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而仍爲開霽是白乎旆，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8. 1885년(고종 22) 3월 26일(양력 5월 10일)

湖南啓錄 1책(30a~30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16a~416b)

臣營下, 今月二十一日卯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四日午時, 又雨, 或霏或灑, 二十五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一日之雨, 金溝高山川渠漲滿, 珍山·礪山·長水·興陽等四邑, 得一犁, 羅州·南平, 得二鋤, 錦山·龍潭·任實·雲峯·同福·光州·茂長·綾州·玉果·靈光·扶安·龍安·萬頃·古阜·沃溝·高敞·金堤·臨陂·群山·法聖等二十邑鎮, 得一鋤, 益山·或[咸]悅·泰仁·鎮安·南元[原]·谷城·順天等七邑, 浥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1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4일 오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1일의 비로 금구·고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산·여산·장수·홍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나주·남평은 2서가 내렸고, 금산·용담·임실·운봉·동북·광주·무장·능주·옥과·영광·부안·용안·만경·고부·옥구·고창·김제·임피·군산·법성 등 20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익산·함열·태인·진안·남원·곡성·순천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49. 1885년(고종 22) 3월 28일(양력 5월 12일)

全羅監司啓錄 7책(81a~81b) /各司臚錄 18책, 全羅監司啓錄 7책(32c~32c)

臣營下, 今月二十五日卯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五日之雨, 金溝, 得二鋤, 任實·淳昌·長城·金堤·沃溝·等五邑, 沍塵. 農形段, 付種畚, 方張耕播, 早稻畚, 次第再翻耕, 中晚稻畚, 間或再翻耕, 秧坂, 方張注〈種〉,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始耕播, 大麥, 發穗, 小麥, 胚胎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5일 묘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5일의 비로 금구는 2서가 내렸고, 임실·순창·장성·김제·옥구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리는 무논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올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못자리에는 한창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보리는 이삭이 패고 밀은 알을 배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0. 1885년(고종 22) 4월 8일(양력 5월 21일)

湖南啓錄 1책(56a~56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27b~427c)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五日之雨, 南平, 得二鋤, 光州·海南·龍安·康津等四邑, 得一鋤, 順天·南原·鎭安·臨陂等四邑, 浥塵. 農形段, 付種及秧坂方始立苗, 早稻幾訖再翻耕, 中晚稻畝次第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張耕播, 大麥入實, 小麥發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5일의 비로 남평은 2서가 내렸고, 광주·해남·용안·강진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천·남원·진안·임피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막 싹이 돋기 시작하고 올벼는 두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보리는 알이 들고 밀은 이삭이 패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1. 1885년(고종 22) 4월 12일(양력 5월 25일)

湖南啓錄 1책(66b~66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31d~431d)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十日酉時始雨，或霏或灑，十一日午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而載陰載陽，十二日辰時，仍爲開霽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0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고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2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2. 1885년(고종 22) 4월 18일(양력 5월 31일)

湖南啓錄 1책(68b~69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32d~433a)

臣營下今月十一日午時至, 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十七日午時又雨, 間間霏灑, 十八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一日二日之雨, 高敞, 得二鋤, 珍山·臨陂·高山·扶安·萬頃·沃溝·光州·務安·咸平·昌平·海南等十一邑, 得一鋤, 礪山·錦山·益山·龍安·金堤·古阜·興德·金溝·茂長·靈巖·長城·長水·雲峯·任實·南原·順天·光陽·谷城·綾州·潭陽·同福·求禮等二十二邑, 浥塵. 農形段, 付種及秧坂立苗向青, 早稻畚已訖再翻耕, 中晚稻畚幾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耕播垂畢, 大麥間間向熟, 小麥方始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1일 오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7일 오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8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1일·12일의 비로 고창은 2서가 내렸고, 진산·임피·고산·부안·만경·옥구·광주·무안·함평·창평·해남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금산·익산·용안·김제·고부·홍덕·금구·무장·영암·장성·장수·운봉·임실·남원·순천·광양·곡성·능주·담양·동북·구례 등 2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 및 못자리는 싹이 돌아 푸르러지고 올벼 논은 이미 두벌 갈아엎기를 마쳤고 중벼·늦벼 논은 거의 두벌 갈아엎기를 마쳤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보리는 간간이 익어가고 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3. 1885년(고종 22) 4월 28일(양력 6월 10일)

湖南啓錄 1책(69b~70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33b~433c)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七日寅時始雨, 或霏或灑, 二十八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一日之雨, 珍島, 得一鋤, 玉果·和順, 浥塵, 十八日九日之雨, 鎮安·龍潭, 川渠漲滿, 康津, 得二犁, 錦山·珍山·高山·興德·高敞·綾州·南平·寶城·任實·雲峯·長水·興陽·海南·加里浦等十四邑鎮, 得一犁, 茂朱·潭陽·光陽·同福·靈巖·茂長·長興·法聖等八邑鎮, 得二鋤, 南原·淳昌·樂安·長城·靈光·臨陂·沃溝·泰仁·金溝等九邑, 得一鋤, 金堤·礪山·益山·古阜·咸悅·井邑·順天·玉果·龍安等九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方始初除草, 早稻畝間或移秧, 中晚稻畝已訖再翻耕, 木綿·黍粟, 和種豆·太, 間間立苗, 大麥幾盡向熟, 小麥次第入結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7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1일의 비로 진도는 1서가 내렸고, 옥과·화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8·19일의 비로 진안·용담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진은 2려가 내렸고, 금산·진산·고산·홍덕·고창·능주·남평·보성·임실·운봉·장수·홍양·해남·가리포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무주·담양·광양·동북·영암·무장·장흥·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2서가 내렸고, 남원·순창·낙안·장성·영광·임피·옥구·태인·금구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김제·여산·익산·고부·함열·정읍·순천·옥과·용안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올벼 논은 간혹 모내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이미 두벌 갈아엎기를 마쳤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싹이 돋고 보리는 거의 다 익어가고 밀은 차례로 알이 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4. 1885년(고종 22) 5월 8일(양력 6월 20일)

湖南啓錄 1책(78b~79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37c~437d)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七日酉時始雨, 或霏或灑, 初八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龍潭·珍山·益山·高敞·興德·靈光·咸平等七邑, 川渠漲滿, 萬頃, 得二犁, 錦山·礪山·扶安·古阜·秦仁·光州·興陽·海南·康津等九邑, 得一犁, 羅州·長興·茂朱·長水·金溝·南平·法聖等七邑鎮, 得二鋤, 高山·井邑·臨陂·沃溝·金堤·長城·茂長·任實·淳昌·南原·雲峯·求禮·綾州·玉果·潭陽·同福·寶城·和順等十八邑, 得一鋤, 咸悅·鎭安·樂安·龍安·谷城·順天·昌平等七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方張初除草, 早稻畚間間移秧, 中晚稻畚有水處, 間或移秧, 木綿·黍·粟, 和種豆·太, 方始初耘, 大麥次第刈取, 小麥幾盡向熟是如爲白乎所. 秧節纔屆, 甘澍時若, 助糧董役, 期圖早移之意, 措辭題飭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7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8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용담·진산·익산·고창·홍덕·영광·함평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만경은 2려가 내렸고, 금산·여산·부안·고부·태인·광주·홍양·해남·강진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나주·장흥·무주·장수·금구·남평·법성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2서가 내렸고, 고산·정읍·임피·옥구·김제·장성·무장·임실·순창·남원·운봉·구례·능주·옥과·담양·동북·보성·화순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함열·진안·낙안·용안·곡성·순천·창평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 논은 간간이 모내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물이 있는 곳에 간혹 모내기를 하고, 목화·기장·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있고 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밀은 거의 다 익어간다고 합니다. 모내기철이 좀 전에 닳았는데 단비가 때맞춰 내리니 식량을 돕고

일을 독려하여 기어이 일찍 보내기를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5. 1885년(고종 22) 5월 10일(양력 6월 22일)

湖南啓錄 1책(82b~82b)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1책(439b~439c)

臣營下今月初八日午時至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同時以後，間間霏微，初九日申時至，測雨器水深爲三分，而載陰載陽，初十日午時，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八日之雨，珍島，得一犁，靈巖，浥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8일 오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9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초10일 오시에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진도는 1려가 내렸고, 영암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6. 1885년(고종 22) 5월 15일(양력 6월 23일)

湖南啓錄 1책(87b~88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42a~442b)

臣營下今月初九日申時至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十三日卯時又雨，間間霏微，十五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六分，而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今月初八日·九日·十日之雨，茂朱·龍潭·鎮安·長水·雲峯·南原·任實·錦山·珍山·高山·礪山·沃溝·扶安·泰仁·興德·高敞·長城·咸平·靈光·光州·南平·玉果·長興·金溝·加里浦等二十五邑鎮，川渠漲滿，萬頃·務安，得二犁，羅州·潭陽·寶城·龍安·求禮·興陽·同福·法聖等八邑鎮，得一犁，臨陂·古阜·靈巖·光陽等四邑，得二鋤，益山·咸悅·金堤·井邑·綾州·淳昌·樂安等七邑，得一鋤，和順·谷城，泥塵是如爲白乎所。霽澤既洽，秧節向晚，罔夜董勸，斯速畢移之意，連加申飭爲白乎旆。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9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3일 묘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1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8일·9일·10일의 비로 무주·용담·진안·장수·운봉·남원·임실·금산·진산·고산·여산·옥구·부안·태인·홍덕·고창·장성·함평·영광·광주·남평·옥과·장흥·금구·가리포 등 25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만경·무안은 2려가 내렸고, 나주·담양·보성·용안·구례·홍양·동복·법성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임피·고부·영암·광양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익산·함열·김제·정읍·능주·순창·낙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화순·곡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우택으로 이미 흡족하니 밤새워 독려하고 권하여 어서 빨리 모내기를 마치라는 뜻으로 연이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7. 1885년(고종 22) 5월 18일(양력 6월 30일)

湖南啓錄 1책(90a~90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42b~442c)

臣營下及道內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六日酉時始雨, 間間霏微, 十七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載陰載陽, 十八日辰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三日四日之雨, 綾州·昌平·茂長·靈巖·務安等五邑, 川渠漲滿, 礪山·扶安·南平·任實·順天·高山·潭陽·長水等八邑, 得一鋤, 臨陂·金溝·金堤·泰仁·鎮安·益山·雲峰等七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 幾訖初除草, 早·中·晚稻畝, 有水處, 次第移秧, 木綿·黍·粟, 方張初耘, 和種豆·太, 間間初耘, 根耕豆·太, 間或播種, 大麥, 已盡刈取, 小麥, 方始刈取, 而宿水未退, 新潦添漲, 汚陷諸坪, 沈墊汰覆, 纔移之秧, 幾至消灑, 未收之麥, 亦多腐傷是如, 沈野諸邑, 迭相告悶, 言念民事, 誠甚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 및 전라도 내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6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17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8일 진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14일의 비로 능주·창평·무장·영암·무안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여산·부안·남평·임실·순천·고산·담양·장수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파·금구·김제·태인·진안·익산·운봉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중벼·늦벼 논은 물이 있는 곳에 차례로 모내기를 하고, 목화·기장·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밀은 막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인 물이 빠지지 않고 새로 큰 비가 내려 더 불어나서 우묵한 여러 들은 잠기고 사태로 뒤덮여서 겨우 움긴 모는 거의 다 녹아버렸고 거두지 못한 밀은 또한 썩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들판이 잠긴 여러 고을은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8. 1885년(고종 22) 5월 22일(양력 7월 4일)

湖南啓錄 1책(1000b~101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1책(446d~447a)

臣營下及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二十一日寅時始雨，或霏或灑，二十二日午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而姑未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今月十三日四日之雨，珍島，得一犁，羅州，得二鋤，海南·康津·同福·井邑·高敞·興德·法聖等七邑鎮，得一鋤，靈光·古阜，沍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1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3일·14일의 비로 진도는 1려가 내렸고, 나주는 2서가 내렸고, 해남·강진·동북·정읍·고창·홍덕·범성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영광·고부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59. 1885년(고종 22) 5월 28일(양력 7월 10일)

湖南啓錄 1책(15a~15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49b~449c)

臣營下, 今月二十二日午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間霏微, 二十六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七日之雨, 羅州·光州·綾州·寶城·興陽·康津·雲峯·加里浦等八邑鎮, 川渠漲滿, 珍島, 得二犁, 求禮, 得一犁, 金溝·咸平·扶安·茂長·珍山·長城·淳昌·南原等八邑, 得一鋤, 金堤·泰仁, 浥塵. 農形段, 付種畝已訖初除草, 早稻畝已移處, 間間初除草, 中晚稻畝有水處, 已盡移秧, 木綿·黍粟, 間或再耘, 和種豆·太, 方張初耘, 根耕豆·太, 播種垂畢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2일 오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26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16일·17일의 비로 나주·광주·능주·보성·홍양·강진·운봉·가리포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도는 2려가 내렸고, 구례는 1려가 내렸고, 금구·함평·부안·무장·진산·장성·순창·남원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김제·태인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올벼 논에 이미 옮겨심은 것은 간간이 초벌김매기를 하고 중벼·늦벼 논은 물이 있는 곳은 이미 다 모내기를 하고 목화·기장·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짓는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씨앗 뿌리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0. 1885년(고종 22) 6월 2일(양력 7월 13일)

湖南啓錄 1책(18b~19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51a~451b)

臣營下, 去月二十六日申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或陰翳, 又或霏微, 六月初二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二日三日之雨, 金溝·鎮安·興德·和順·古阜·任實·潭陽·錦山·龍潭·雲峯·南原·沃溝·珍山·靈巖·綾州·咸平·高山·高敞·茂朱·務安·淳昌·長興·羅州等二十三邑, 川渠漲滿, 長城·珍島, 得二犁, 扶安·龍安·求禮·同福·法聖等五邑鎮, 得一犁, 礪山·萬頃·光陽·臨陂等四邑, 得二鋤, 益山·谷城·泰仁·咸悅·靈光·金堤等六邑, 得一鋤, 而跨朔長潦, 間日暴霍, 田畝各穀, 舉皆受損是如. 川漲諸邑, 迭相告悶, 言念民事, 轉益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지난달 26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혹 짙은 구름이 끼다가 또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번 달 초2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2일·23일의 비로 금구·진안·홍덕·화순·고부·임실·담양·금산·용담·운봉·남원·옥구·진산·영암·능주·함평·고산·고창·무주·무안·순창·장흥·나주 등 2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성·진도는 2려가 내렸고, 부안·용안·구례·동북·범성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여산·만경·광양·임피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익산·곡성·태인·함열·영광·김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는 긴 장마에 하루걸러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시내가 불어난 여러 고을은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1. 1885년(고종 22) 6월 8일(양력 7월 19일)

湖南啓錄 1책(117b~118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1책(454d~455a)

臣營下, 今月初二日辰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六日寅時又雨, 或霏或灑, 初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五寸,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二日三日之雨, 寶城·光州·康津·海南等四邑, 川渠漲滿, 今月初一日初二日之雨, 秦仁·扶安, 川渠漲滿, 臨陂·金溝·任實等三邑, 得一犁, 沃溝·益山·金堤·井邑·古阜·長城·高山·潭陽·雲峰·南平等十邑, 得一鋤, 礪山,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再除草, 早中稻畚, 方張初除草, 晚稻畚, 已移處, 間間初除草, 木綿·黍·粟, 次第再耘, 和種豆·太, 幾盡初耘, 根耕豆·太, 方始立苗. 而人力未及, 秧役尙愆, 積水屢漲, 災損太甚是如, 沿峽諸邑, 迭相告悶, 言念民事, 轉益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2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6일 인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 뿌리면서 초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였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2일·23일의 비로 보성·광주·강진·해남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이번 달 초1일·초2일의 비로 태인·부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임피·금구·임실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옥구·익산·김제·정읍·고부·장성·고산·담양·운봉·남평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중벼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 논 중 이미 옮겨 심은 곳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짓는 콩·팥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모내기 일이 아직 지체되었는데 물이 쌓이고 여러 번 불어나 손해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바닷가나 산골짜기 여러 고을은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2. 1885년(고종 22) 6월 13일(양력 7월 24일)

湖南啓錄 1책(120b~121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1책(456a~456b)

臣營下, 今月初八日辰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間霏灑, 十三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七寸六分, 而姑未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六日七日之雨, 礪山·高山·金溝·泰仁·高敞·井邑·金堤·潭陽·淳昌·鎭安·群山·等十一邑鎭, 川渠漲滿, 長城, 得二鋤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8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3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6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6일·7일의 비로 여산·고산·금구·태인·고창·정읍·김제·담양·순창·진안·군산 등 11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성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3. 1885년(고종 22) 6월 18일(양력 7월 29일)

湖南啓錄 2책(1b~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56d~457a)

□□□□(臣營下今)月十三日申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間間霏灑, 十七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六日七日之雨, 臨陂·益山·萬頃·咸悅·龍安·長水·任實等七邑, 川渠漲滿, 初十日十一日之雨, 金溝·高山·金堤·益山·臨陂·鎮安·扶安·井邑·高敞·樂安·龍潭·□□·求禮·泰仁·務安·萬頃·茂朱·長城·茂長·淳昌·綾州·古阜·興德·寶城·同福·龍安·羅州·和順·潭陽·光陽·光州·南平·咸平·昌平·錦山·珍山·雲峰·□□·谷城·靈光·法聖等四十一邑段, 川渠漲滿, 康津, 得二犁. □□□□農形段, 付種畚幾訖再除草, 早中稻畚間或再除草, 晚稻畚已移處, 次第初除草, 木綿·黍粟, 方張再耘, 和種豆·太, 已盡初耘, 根耕豆·太, 立苗向青, 而依山傍浦之地, 汰覆相續□□沈墊之坪, 消灑居多, 民家漂頽, 人命□□□之是如爲去乎所. 屆此各穀方茁之時, 久雨極備, 受損非細, 各邑告悶, 誠甚憧憧. 頽戶多少, 待水退摘奸馳報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13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7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6일·7일의 비로 임피·익산·만경·함열·용안·장수·임실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초10일·11일의 비로 금구·고산·김제·익산·임피·진안·부안·정읍·고창·낙안·용담·□□·구례·태인·무안·만경·무주·장성·무장·순창·능주·고부·홍덕·보성·동북·용안·나주·화순·담양·광양·광주·남평·함평·창평·금산·진산·운봉·□□·곡성·영광·법성 등 41개 고을의 경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진은 2려가 내렸고, □□□□ 농사 상황의 경우, 법씨를 뿌린 무논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 논 중 옮겨 심은 곳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섞어짓는 콩·팥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짝이 돌아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산자락이거나 포구 옆 땅은

사태로 뒤덮여 서로 이어졌고 □□잠긴 들에서는 곡식이 대부분 녹아 없어졌고 백성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고 사람은 □□□(빠져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막 싹이 나는 때에 오래도록 비가 갓가지로 그지없이 내려 손해를 입은 것이 적지 않아 각 고을은 걱정을 아뢰니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너진 가구가 많은지 적은지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4. 1885년(고종 22) 6월 23일(양력 8월 3일)

湖南啓錄 2책(8a~8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2책(460b~460b)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二十一日午時始雨，間間霏灑，二十二日未時至，測雨器水深爲八分，而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十五日六日之雨，臨陂·任實·泰仁·高敞·金堤·高山·玉果·寶城·康津·谷城·羅州·扶安·靈光·益山等十四邑，川渠漲滿，萬頃·靈巖，得二犁，咸平得一犁，金溝·長城，得二鋤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21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2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16일의 비로 임피·임실·태인·고창·김제·고산·옥과·보성·강진·곡성·나주·부안·영광·익산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만경·영암은 2려가 내렸고, 함평은 1려가 내렸고, 금구·장성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5. 1885년(고종 22) 7월 8일(양력 8월 17일)

湖南啓錄 2책(13a~13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63a~463a)

臣營下及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九日之雨, 珍山, 川渠漲滿, 羅州·寶城, 得一犁, 長城·光州·綾州·潭陽·靈光·茂長等六邑, 得一鋤, 樂安·泰仁·沃溝·金堤·高山·益山等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間或胚胎, 移種早稻畚已訖再除草, 中晚稻畚已移處, 方張再除草, 木棉·黍粟, 次第三耘, 和種豆·太, 幾訖再耘, 根耕豆·太, 間或再耘, 木麥播種垂畢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 및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8·29일의 비로 진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나주·보성은 1려가 내렸고, 장성·광주·능주·담양·영광·무장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낙안·태인·옥구·김제·고산·익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알을 배고 옮겨 심은 올벼 논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중벼·늦벼 논 중 이미 모내기를 한 곳은 한창 재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섞어짓는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메밀은 씨앗뿌리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6. 1885년(고종 22) 7월 12일(양력 8월 21일)

湖南啓錄 2책(14a~1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63b~463c)

各邑漂頽戶, 待摘奸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六月初八日九日十一日之雨, 南原段, 全家漂頽爲一百三十一戶, 人命壓死爲一名, 淹死爲十二名, 而俱爲拯屍. 光陽段, 全家漂頽爲一百八十戶, 人命壓死爲八名, 淹死爲一名, 而姑未拯屍. 金溝段, 〈民〉家全頽爲五十六戶. 玉果段, 全家漂頽爲十二戶. 金堤段, 民家全頽爲二百六十三戶. 光州段, 民家全頽爲九百三十二戶. 求禮段, 全家漂頽爲一百七十九戶是如. 竝只牒呈是白置有亦. 上項南原等七邑, 民家漂頽, 人命淹壓, 若是夥多, 言念民情, 萬萬矜惻. 自臣營別遣耳目, 到底摘奸, 逐戶慰諭後, 原恤典依例題給, 營恤典亦爲助給. 頽戶結構, 拯屍厚埋, 未拯屍體, 連加搜覓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旆. 餘外諸邑,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旆, 摘奸之際, 自爾遲滯, 不勝惶恐.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각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에 대해서는 캐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초8일·9일·11일의 비로 남원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131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은 1명이고, 빠져 죽은 사람은 12명인데 모두 시체를 건졌습니다. 광양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180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 8명, 빠져 죽은 사람은 1명인데 아직 시체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금구의 경우, 집 전체가 무너진 것은 56가구이고, 옥과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12가구이고, 김제의 경우, 완전 무너진 백성 집은 263가구이고, 광주의 경우, 완전 무너진 백성 집은 932가구이고, 구례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179가구라고 모두 공문을 바쳤습니다. 위 향의 남원 등 7개 고을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졌고 사람은 빠져죽거나 깔려 죽은 것이 이처럼 매우 많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매우 가엾고 측은합니다.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비서]를 파견하여 철저히 캐내고 가구마다 위로한 기본 구호품을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었고 감영 구호품 또한 도와주었고 무너진 가구는 집을 짓고 건진 시체는 넉넉하게 매장하고 건지지 못한 시체는 연이어 수색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밖에 여러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캐널 즈음에 자연히 지체되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7. 1885년(고종 22) 7월 14일(양력 8월 23일)

湖南啓錄 2책(14b~1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63c~463d)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二日巳時始雨，或霏或灑，十三日酉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而仍爲開霽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2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8. 1885년(고종 22) 7월 18일(양력 8월 27일)

湖南啓錄 2책(15a~15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63d~464a)

臣營下, 今月十三日酉時至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三日之雨, 南原·雲峰·光州·井邑·興德·高山等六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發穗, 移種早稻, 方張胚胎, 中晚稻畚已移處, 已訖再除草, 木綿間或開花, 黍粟次第胚胎, 和種·豆太, 間間開花, 根耕豆太, 再耘垂畢, 木麥方始立苗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3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2일·13일의 비로 남원·운봉·광주·정읍·홍덕·고산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옮겨 심은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늦벼 논 중 옮겨 심은 곳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기장과 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꽃이 피고 그루갈 이한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메밀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69. 1885년(고종 22) 7월 22일(양력 8월 31일)

湖南啓錄 2책(17b~17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64d~465a)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二十日寅時始雨，或霏或灑，二十二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而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礪山，川渠漲滿，錦山，得一犁，咸悅·益山，浥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0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여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산은 1려가 내렸고, 함열·익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0. 1885년(고종 22) 7월 28일(양력 9월 6일)

湖南啓錄 2책(17b~18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65a~465b)

臣營下, 今月二十二日寅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六日午時又雨, 斷續霏灑, 二十八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一日二日之雨, 鎮安·龍潭·龍安等三邑, 川渠漲滿, 高山·高敞·法聖等三邑鎮, 得一犁, 沃溝·興德·金堤·淳昌·任實·泰仁·扶安·南原·羅州·綾州·雲峰·茂朱·寶城·務安·長水·潭陽·金溝·昌平·臨陂·光州等二十邑, 得一鋤, 谷城·長城·古阜·樂安·南平·玉果·井邑·靈光等八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次第發穗, 移種早稻, 間間發穗, 中晚稻, 方張胚胎, 木綿間或結穎, 黍·粟發穗, 和種豆·太, 結穀, 根耕豆·太, 開花, 木麥向茁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2일 인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6일 오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8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21일·22일의 비로 진안·용담·용안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고창·법성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옥구·홍덕·김제·순창·임실·태인·부안·남원·나주·능주·운봉·무주·보성·무안·장수·담양·금구·창평·임피·광주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곡성·장성·고부·낙안·남평·옥과·정읍·영광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옮겨 심은 올벼도 간간이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기장과 조는 이삭이 패고 섞어짓는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고 메밀은 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1. 1885년(고종 22) 8월 2일(양력 9월 10일)

湖南啓錄 2책(24b~25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68d~469a)

臣營下及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月初一日午時始雨，間間霏灑，酉時至，測雨器水深爲四分，而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一日二日之雨，茂長·萬頃·康津·同福·靈巖·咸平·長興·海南等八邑，得一鋤，順天，浥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 및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1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1일·22일의 비로 무장·만경·강진·동북·영암·함평·장흥·해남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2. 1885년(고종 22) 8월 8일(양력 9월 16일)

湖南啓錄 2책(26b~27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69c~469d)

臣營下, 今月初六日酉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五日酉時又雨, 斷續霑灑, 初七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七日八日之雨, 寶城·同福·興陽·長興·茂長·南平·務安·谷城·樂安·雲峰·綾州·加里浦等十二邑鎮, 川渠漲滿, 南原·咸平·光陽·長水等四邑, 得一犁, 金堤·潭陽·光州·法聖等四邑鎮, 得一鋤, 任實·鎮安, 溫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間垂穎, 移種早稻, 次第發穗, 中晚稻, 方張發穗, 木綿間或摘絮, 黍·粟幾盡發穗, 和種豆·太, 與根耕豆·太, 間或入實, 木麥方始開花, 而去二十八日九日, 獐風大作, 早稻舉皆披靡, 太半萎黃, 中晚稻亦多蹲縮, 木綿則花房撲落, 豆·太則莖葉蹂躪, 結穎入實, 殆無所望, 一日之頃, 豐歉立判是如. 峽沿諸邑, 式日告悶, 言念民事, 誠甚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6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5일 유시에 비가 내렸는데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달 27일·28일의 비로 보성·동북·홍양·장흥·무장·남평·무안·곡성·낙안·운봉·능주·가리포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남원·함평·광양·장수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제·담양·광주·법성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임실·진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간이 고개를 숙였고 옮겨 심은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묵화는 간혹 숨을 따고 기장과 조는 거의 다 이삭이 패었고 섞어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알이 들고 메밀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과 29일에 매서운 바람이 크게 불어 올벼는 대부분 쓰러져 절반이 누렇게 시들었고 올벼·중벼·늦벼도 또한 오그라든 것이 많았고 묵화는 화방이 떨어졌고 콩·팥은 줄기와 잎사귀가 썩대밭이 되어 다래를 맺거나 알이 들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흉년이 든 길로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산골짜기나 물가 여러 고을은 매일 걱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3. 1885년(고종 22) 8월 18일(양력 9월 26일)

湖南啓錄 2책(35b~36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73a~473b)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一日二日之雨, 咸悅, 川渠漲滿, 金溝·南原·茂長等三邑, 得一鋤, 龍安·泰仁, 浥塵. 初七日八日之雨, 礪山·南原·茂朱·龍潭·珍山·臨陂·高山·鎮安·古阜·綾州·高敞等十一邑, 川渠漲滿, 金溝·樂安·同福·興陽·靈巖·加里浦等六邑鎮, 得一犁, 任實·潭陽·興德·雲峰·扶安·金堤·靈光·長城·法聖等九邑鎮, 得一鋤, 谷城,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舉皆垂穎, 移種早稻, 或盡發穗, 中晚稻, 次第發穗, 木綿間間摘絮, 黍·粟間或入實, 和種豆·太, 與根耕豆·太, 方張入實, 木麥方始結殼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일·초2일의 비로 함열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남원·무장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용안·태인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초7일·8일의 비로 여산·남원·무주·용담·진산·임피·고산·진안·고부·능주·고창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낙안·동북·홍양·영암·가리포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임실·담양·홍덕·운봉·부안·김제·영광·장성·법성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곡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대부분 고개를 숙였고 옮겨 심은 올벼는 더러 다 이삭이 패었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목화는 간간이 솜을 따고 기장과 조는 간혹 알이 들고 섞어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알이 들고 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4. 1885년(고종 22) 8월 22일(양력 9월 30일)

湖南啓錄 2책(38a~38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74a~474b)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鎮安·長水，今月十九日夜霜降是如。竝只報來爲白乎所。既澇且風，驟霜早至，言念民情，誠甚悶然。年形已判，檢田在即。嗣後形止，待列邑報概分等執摠，〈追〉送于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진안·장수는 이번 달 19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모두 보고해 왔습니다. 이미 장마지고 또 바람불었는데 된서리가 일찍 이르렀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농사 상황은 이미 판가름 났지만 밭조시는 닳쳤으니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의 개략적인 보고를 기다려 등급을 나누고 총수를 합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5. 1885년(고종 22) 8월 29일(양력 10월 7일)

湖南啓錄 2책(55a~55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2책(482b~482c)

南原等七邑, 賴戶結構, 渰壓拯埋, 餘外諸邑,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六月十二日之雨, 任實段, 民家全賴, 爲三十八戶. 益山段, 全家漂賴, 爲一百七十一戶. 鎮安段, 人命渰死, 爲三名, 而俱爲拯屍. 羅州段, 全家漂賴, 爲一百七十二戶. 長城段, 民家全賴, 爲八十三戶. 靈巖段, 全家漂賴, 爲二百五十八戶. 南平段, 全家漂賴, 爲一百二十二戶. 臨陂段, 全家漂賴, 爲一百二十四戶. 康津段, 民家全賴, 爲三十二戶. 法聖段, 全家漂賴, 爲十四戶. 靑山鎮段, 民家全賴, 爲三十六戶是如. 竝只牒呈是白置有亦. 戶賴人渰, 若是夥多, 言念民情, 萬萬矜閔. 原恤典, 依例題給, 亦自臣營, 別加顧助. 賴戶隨即結構, 拯屍亦爲厚埋, 俾各慰撫安接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旃. 各邑鎮摘奸報來之際, 登聞自爾遲滯, 不勝惶恐.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남원 등 7개 고을은 무너진 가구는 집을 짓고 빠져 죽거나 깔려 죽거나 건져 매장했고 그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6월 12일의 비로 임실의 경우, 완전 무너진 백성 집이 38가구이고, 익산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71가구이고, 진안의 경우, 빠져 죽은 사람이 3명인데 모두 시체를 건졌습니다. 나주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72가구이고, 장성의 경우, 완전 무너진 백성 집이 83가구이고, 영암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24가구이고, 남평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22가구이고, 임피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24가구이고, 강진의 경우, 완전 무너진 백성 집이 32가구이고, 법성의 경우, 집 전체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4가구이고, 청산진의 경우, 완전 무너진 백성 집이 36가구라고 모두 공문을 바쳤습니다. 무너진 가구나 빠져 죽은 사람이 이같이 매우 많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매우 가엾고 걱정입니다. 기본 구호는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었습니다. 또한 저의 감영에서는 별도로 돌보아 주었는데 무너진 가구는 곧바로 집을 짓고 건진 시체도 또한 넉넉하게 매장하였고 각각 위로하

여 안심하고 살게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 고을과 군영은 적간하여 보고해 올 즈음에 자연히 지체되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6. 1886년(고종 23) 2월 18일(양력 3월 23일)

湖南啓錄 3책(99b~1000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575c~575c)

臣營下, 今月十六日寅時始雨, 間間霏微, 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 而仍爲開霽是白遣. 農形段, 早稻畚間或翻耕, 兩麥方始敷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6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1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간혹 갈아엎기를 하였고, 밀과 보리는 막 질푸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7. 1886년(고종 23) 3월 8일(양력 4월 11일)

湖南啓錄 3책(111b~11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580c~580d)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六日亥時始雨, 間間霏微, 初七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四分, 而仍爲開霽是白置. 初一日二日之雨, 營下無所得, 而連接各邑所報, 則務安, 得一犁, 南原·金堤·茂朱·珍山·高敞·錦山·雲峯·潭陽·求禮·光州等十一邑, 得一鋤, 金溝·順天·泰仁·益山·任實·礪山·龍潭·鎭安·臨陂·谷城·龍安·井邑·光陽·淳昌·靈光·群山·聖堂等十七邑鎭, 浥塵. 農形段, 早稻畚次第初翻耕, 兩麥方張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7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초1일·2일의 비로 감영에 내린 것이 없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무안은 1려가 내렸고, 남원·김제·무주·진산·고창·금산·운봉·담양·구례·광주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구·순천·태인·익산·임실·여산·용담·진안·임피·곡성·용안·정읍·광양·순창·영광·군산·성당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밀과 보리는 한창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8. 1886년(고종 23) 4월 18일(양력 4월 21일)

湖南7錄 3책(120a~120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583c~583c)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七日八日之雨, 泰仁, 川渠漲滿, 珍島·玉果, 得一犁, 金堤·珍山·龍安·康津·高敞·南原·綾州·羅州·錦山·咸平·長水·同福等十二邑, 得一鋤, 金溝·益山·任實·鎮安·扶安·興德·咸悅·求禮·萬頃·礪山·樂安·順天·臨陂·沃溝·潭陽·聖堂等十六邑鎮, 浥塵. 農形段, 早稻畚方張初翻耕, 兩麥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7일·8일의 비로 태인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도·옥과는 1려가 내렸고, 김제·진산·용안·강진·고창·남원·능주·나주·금산·함평·장수·동북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금구·익산·임실·진안·부안·홍덕·함열·구례·만경·여산·낙안·순천·임피·옥구·담양·성당 등 16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밀과 보리는 싹이 자라 무성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79. 1886년(고종 23) 3월 23일(양력 4월 26일)

湖南啓錄 3책(121b~12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584a~584a)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今月二十一日寅時始雨，或霏或灑，酉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而仍爲開霽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0. 1886년(고종 23) 3월 28일(양력 5월 1일)

湖南啓錄 3책(132b~133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589b~589c)

臣營下, 今月二十一日酉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七日又雨, 間間微灑, 二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二日之雨, 同福, 川渠漲滿, 高山·興德·務安等三邑, 得一犁, 礪山·扶安·高敞·金溝·任實·龍潭·益山·茂朱·古阜·金堤·珍山·玉果·雲峯·茂長·泰仁·樂安·龍安·南原·淳昌·光陽·聖堂·法堂·群山等二十三邑鎮, 得一鋤, 萬頃·井邑·鎮安·沃溝等四邑, 浥塵. 農形段, 付種畝方始耕播, 早稻畝間或再翻耕, 中晚稻畝間間初翻耕, 秧坂間或注種, 木綿·黍·粟, 和種豆·太間間耕播, 大麥胚胎, 小麥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1일 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7일 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1·22일의 비로 동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산·흥덕·무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여산·부안·고창·금구·임실·용담·익산·무주·고부·김제·진산·옥과·운봉·무장·태인·낙안·용안·남원·순창·광양·성당·범당·군산 등 2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만경·정읍·진안·옥구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 있고 올벼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못자리는 간혹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리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싹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1. 1886년(고종 23) 4월 3일(양력 5월 6일)

湖南啓錄 3책(134a~13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590a~590a)

臣營下, 去月二十八日辰時至, 雨澤及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今月初一日寅時又雨, 間間微灑, 初二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七日八日之雨, 益山·龍安·南原·和順·礪山·綾州·金溝·群山等八邑鎮, 得一鋤, 萬頃·扶安·咸悅·任實·聖堂等五邑鎮, 沕塵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지난달 28일 진시까지의 우택 및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일 인시에 비가 내렸는데 간간이 조금 뿌리다가 초2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7·28일의 비로 익산·용안·남원·화순·여산·능주·금구·군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만경·부안·함열·임실·성당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2. 1886년(고종 23) 4월 8일(양력 5월 11일)

湖南啓錄 3책(136a~136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590c~590d)

臣營下, 今月初二日申時至, 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初二日之雨, 任實·泰仁·雲峯·綾州·興德·玉果·咸平·高敞·同福·羅州等十邑, 川渠漲滿, 珍山·高山·金溝·靈光·益山·南原·光州·務安·昌平·南原[南平]等十邑, 得一犁, 咸悅·臨陂·淳昌·金堤·龍安·古阜·谷城·樂安·潭陽·光陽等十邑, 得一鋤, 井邑·鎭安·礪山·萬頃·沃溝等五邑, 浥塵. 農形段, □耕畝方張耕播, 早稻畝次第再翻耕, 中晚稻畝間或再翻耕, 秧坂方張注種, 木綿·黍·粟, 和種豆·太, 次第耕播, 大麥發穗, 小麥胚胎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2일 신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일·초2일의 비로 임실·태안·운봉·능주·홍덕·옥과·함평·고창·동북·나주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산·고산·금구·영광·익산·남원·광주·무안·창평·남평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함열·임피·순창·김제·용안·고부·곡성·낙안·담양·광양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정읍·진안·여산·만경·옥구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릴 논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올벼 논은 차례로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못자리는 한창 물을 대고 씨뿌리고 있고, 목화·기장·조와 섞어짓는 콩·팥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이삭이 패고 밀은 알을 배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오.

0283. 1886년(고종 23) 4월 □일)

湖南啓錄 3책(137b~999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3책(591b~591c)

道內雨澤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營下，今月初□時始雨，或霏或灑，初十日申時至，測雨器水深爲□寸□□而仍爲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初一日二日之雨，和順，川渠漲滿，康津·長興·興陽·長水等四邑，得一犁，寶城·扶安·茂長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 □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치 □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1, 2일의 비로 화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진·장흥·홍양·장수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보성·부안·무장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4. 1886년(고종 23) 6월 19일(양력 7월 20일)

湖南啓錄 4책(1b~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592a~592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日六日之雨, 綾州, 川渠漲滿, 昌平·求禮·咸平·長興·法聖等五邑鎮, 得一犁, 長城·茂長·興德等三邑, 得二鋤, 錦山·珍山·南原·潭陽·順天·寶城·靈光·靈巖等八邑, 得一鋤, 斫[礪]山·鎮安·古阜·樂安等四邑,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始再除草, 早中稻畚, 間間初除草, 晚稻畚, 幾盡移秧, 木綿·黍·粟, 次第再耘, 和種豆·太, 初耘垂畢, 根耕豆·太, 方始立苗是如爲白乎所. 際此各穀向茁之時, 一直亢旱, 萎黃受損, 在在皆然, 言念民事, 誠甚悶然.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형편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5·초6일의 비로 능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창평·구례·함평·장흥·법성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장성·무장·홍덕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금산·진산·남원·담양·순천·보성·영광·영암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진안·고부·낙안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중벼 논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 논은 거의 다 모내기를 하였고, 목화·기장·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섞어짓는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마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싹이 나는 때에 줄곧 가뭄이 들어 누렇게 말라 버리는 피해를 입었는데 곳곳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5. 1886년(고종 23) 6월 28일(양력 7월 29일)

湖南啓錄 4책(3a~4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4책(592d~593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日申時, 驟雨霎時霏灑, 測雨器水深爲三分, 而仍卽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珍山, 得一鋤, 高山·臨陂·龍安·淳昌·群山·聖堂等六邑鎮, 浥塵. 農形段, 付種畚, 方張再除草, 早中稻畚, 幾盡初除草, 晚稻畚早移處, 間間初除草, 木綿·粟·黍, 再耘垂畢, 和種豆·太, 間或再耘, 根耕豆·太, 方始初耘, 秧不足處外, 今纔畢移, 而彌月惜乾之餘, 向日雨澤僅止, 鋤浥田畚舉圻, 堤汙亦致魚喁, 桔槔無功, 隨處欄涸是如. 迭相告悶, 言念民情, 誠甚憧憧. 泰仁·全州請行雩祭, 以不卜日虔誠設行之意, 另飭題送爲白乎旂.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0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소나기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렸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진산은 1서가 내렸고, 고산·임피·용안·순창·군산·성당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릴 무논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중벼 논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 논은 일찍 옮겨 심은 곳에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마치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모가 부족한 곳 이외는 지금 겨우 옮겨심기를 마쳤는데 한달 동안 가뭄 끝에 지난번 우택은 겨우 1서나 먼지만 적실 정도여서 논밭은 대부분 갈라졌고 제방과 보 또한 물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두레박질을 해도 헛수고여서 가는 곳 마다 매우 메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갈아 걱정을 아뢰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태인·전주는 요청한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여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6. 1886년(고종 23) 7월 5일(양력 8월 4일)

湖南啓錄 4책(5a~5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593c~593d)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四日辰時始雨，連續霏灑，初五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而雨意尙濃，姑未開霽是白乎所，旱餘甘霈，猶未周洽，繼此優霑，益切願祝爲白乎旆。各邑所得多少，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4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계속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의 여파가 남아있어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으나 오히려 흠족하지 않으니 이렇게 계속 넉넉히 주룩주룩 내리기를 더욱 간절히 빕니다. 각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7. 1886년(고종 23) 7월 8일(양력 8월 7일)

湖南啓錄 4책(5b~6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593d~594a)

臣營下, 今月初五日辰時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時以後, 斷續霑灑, 初六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 以仍卽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初三日四日之雨, 鎮安·高敞, 得一犁, 金溝·泰仁·龍安·聖堂等四邑鎮, 得一鋤, 臨陂·淳昌, 浥塵. 農形段, 付種畚, 已訖再除草, 早中稻畚, 間間再除草, 晚稻畚, 方張初除草, 木綿·黍·粟, 再耘垂畢, 和種豆·太, 間或再耘, 根耕豆·太, 方張初耘, 而前啓中祈雨是白在, 全州·泰仁得雨停止是如爲白乎所. 謁望之餘, 甘霈周洽, 言念民情, 誠甚萬幸.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5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후로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6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3일·초4일의 비로 진안·고창은 1려가 내렸고, 금구·태인·용안·성당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피·순창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벼씨를 뿌린 무논은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올벼·중벼 논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 논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목화·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마치고 섞어짓는 콩·팥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기우제를 지낸 전주와 태인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갈망하던 끝에 단비가 내려 두루 흡족하니 백성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8. 1886년(고종 23) 7월 21일(양력 8월 20일)

湖南啓錄 4책(11a~1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596a~596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六日申時始雨, 斷續霏灑, 十七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日之雨, 茂朱·錦山·珍山·高山·同福·南原·昌平·光州·長城·玉果·長興·興德·古阜·群山等十四邑鎮, 川渠漲滿, 雲峯·求禮·綾州·南平·興陽·康津等六邑, 得一犁, 礪山·益山·沃溝·咸悅·井邑·潭陽·和順·咸平·樂安·光陽·順天·珍島·法聖等十三邑鎮, 得一鋤, 任實·谷城·靈光·茂長·金堤·萬頃·扶安等七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間或胚胎, 移種早稻畚, 已訖再除草, 木綿·黍·粟, 與張三耘, 和種豆·太, 再耘垂畢, 根耕豆·太, 已盡初耘, 木麥, 方張播種是白乎所. 靈巖踰月惜乾, 田畚焦荒, 珍島旱餘驟霏, 乍滿旋渴是如. 竝請霽祭, 故虔誠設知[行]之意, 措辭題飭, 而立秋已過, 雨澤尙闕, 言念民事, 誠甚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6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7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4·초5일의 비로 무주·금산·진산·고산·동북·남원·창평·광주·장성·옥과·장흥·홍덕·고부·군산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운봉·구례·능주·남평·홍양·강진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여산·익산·옥구·함열·정읍·담양·화순·함평·낙안·광양·순천·진도·범성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임실·곡성·영광·무장·김제·만경·부안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올벼는 간혹 알을 배고 옮겨 심은 올벼 논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목화·기장·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섞어짓는 콩·팥은 두벌 김매기를 마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영암은 한달 넘게 가뭄이 들어 논밭은 영암은 한달 동안 가뭄이 논밭이 황폐해졌고 진도는 가문 끝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려 잠시 가득 찼으나 이내

메달랐으니 아울러 기우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입추가 이미 지났는데 우택은 아직이니 걱정입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89. 1886년(고종 23) 7월 25일(양력 8월 24일)

湖南啓錄 4책(12a~12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596b~596b)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二十日申時，驟雨霎時霏灑，測雨器水探爲五分，而仍卽開霽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十六日之雨，高敞，得二鋤，礪山·金溝·任實等三邑，得一鋤，臨彼·[臨陂]金堤·扶安·泰仁等四邑，沍塵是如爲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0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소나기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6일의 비로 고창은 2서가 내렸고, 여산·금구·임실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파·김제·부안·태인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0. 1886년(고종 23) 8월 2일(양력 8월 30일)

湖南啓錄 4책(14b~15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597b~597d)

臣營下, 今月二十日申時, 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七日之雨, 淳昌·寶城·長興·綾州·南平·同福·和順·玉果·鎮安等九邑, 川渠漲滿, 咸平·谷城·康津等三邑, 得一犁[犁], 務安, 得二鋤, 珍山·高山·長水·南原·潭陽·長城·茂長·靈巖·順天等九邑, 得一鋤, 益山·古阜·興德等三邑, 浥塵. 二十日之雨, 金溝·金堤·沃溝等三邑, 得一鋤, 臨彼[臨陂],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次第發穗, 移種早稻, 間間發穗, 中晚稻, 方張胚胎, 木綿, 間或結穎, 黍·粟發穗, 和種豆·太, 結穀[穀], 根耕豆·太, 開花, 木麥向茁, 而前啓中, 祈雨是白在, 靈巖所得雨澤, 雖未優洽, 白露不遠, 停止雩祭. 珍島·海南·康津等三邑, 蟲患熾盛, 痒稼非細, 金堤近海一面, 海水揚溢, 沈鹹之穀, 無望發穗是如. 造相告悶, 言念民情, 誠甚憧憧. 嗣後形一[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0일 신시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6·17일의 비로 순창·보성·장흥·능주·남평·동복·화순·옥과·진안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함평·곡성·강진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무안은 2서가 내렸고, 진산·고산·장수·남원·담양·장성·무장·영암·순천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익산·고부·홍덕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0일의 비로 금구·김제·옥구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옮겨 심은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한창 알을 배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기장과 조도 이삭이 패고 섞어짓는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고 메밀은 싹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한 가운데 기우제를 지내기로 한 영암은 우택이 내려 비록 흡족하지는 않으나 백로가 멀지 않아 기우제를 중지하였고 진도·해남·강진 등 3개 고을은 충해가 극심하고 농작물 피해가 작지않아 김제 바닷가 한쪽은 해수가 넘쳐흘러 곡식이 소금물에 잠겨 이삭이 패일 가망이 없다고 번갈아 답답함을 아웁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1. 1886년(고종 23) 8월 11일(양력 9월 8일)

湖南啓錄 4책(15b~16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597d~598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一日戌時始雨, 間間霏灑, 初二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 而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同<日>之雨, 益山·龍安·高敞·淳昌·羅州·和順·同福等七邑, 川渠漲滿, 礪山·茂長·寶城等三邑, 得一犁[犁], 茂朱·珍山·高山·臨彼·[臨陂]沃溝·萬頃·金溝·泰仁·古阜·長城·潭陽等十一邑, 得一鋤, 任實·興陽·聖堂等三邑鎮,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今方垂穎, 移種早稻, 次第發穗, 中晚稻, 間間發穗, 木綿, 間或摘絮, 黍·粟, 幾盡發穗, 和種豆·太與根耕豆·太, 間或入實, 木麥開花, 茂長·沃溝·群山等三邑鎮, 海水汎溢, 近浦之處, 沈鹹各穀, 無望食實是如爲白乎所. 際此發穗, 料外受損, 若是非細, 言念民情, 誠切悶然. 嗣後形止, 鱗次, 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2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같은 날의 비로 익산·용안·고창·순창·나주·화순·동북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여산·무장·보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무주·진산·고산·임피·옥구·만경·금구·태인·고부·장성·담양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실·홍양·성당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범씨를 뿌린 올벼는 지금 막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옮겨 심은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벼·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목화는 간혹 솜을 따고 기장과 조는 거의 다 이삭이 패었고 섞어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알이 들고 메밀은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무장·옥구·군산 등 3개 고을은 해수가 범람하여 포구 가까운 곳은 각종 곡식이 소금기에 잠겨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삭을 팠 즈음이 피해를 입은 것이 이처럼 적지 않아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2. 1886년(고종 23) 8월 18일(양력 9월 15일)

湖南啓錄 4책(21a~21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599d~6000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九日酉時始雨, 斷續霏灑, 十二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同時以後載陰載陽, 十八日午時, 仍爲開霽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同日之雨, 昌平, 川渠漲滿, 金溝·古阜·寶城等三邑, 得一犁, 任實·礪山·益山等三邑, 得一鋤, 臨陂·鎮安·泰仁·金堤·谷城等五邑, 浥塵. 農形段, 付種早稻, 方張刈取, 中晚稻, 間間垂穎, 木綿, 今方摘絮, 黍·粟, 方始向熟, 豆·太, 和種與根耕, 次第向熟, 木麥, 已盡結殼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9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2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8일 오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같은 날의 비로 창평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구·고부·보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임실·여산·익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피·진안·태인·김제·곡성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한창 베어 거두었고 중벼·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목화는 지금 막 솜을 따고 기장과 조는 막 익어가기 시작하고 콩·팥은 섞어지은 것과 그루같이한 것이 차례로 익어가고 메밀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3. 1886년(고종 23) 8월 28일(양력 9월 25일)

湖南啓錄 4책(29a~29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4책(63c~63c)

道內雨澤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付種早稻, 幾盡刈取, 移種早稻, 方張刈取, 中晚稻, 次第垂穎, 木錦, 方張摘絮, 黍·粟, 漸次向熟, 豆·太, 和種與根耕, 間或收穫, 木麥, 方始入實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무논에 볍씨를 뿌린 올벼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옮겨 심은 올벼도 한창 베어 거두었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목화는 한창 솜을 따고 기장과 조는 점차 익어가고 섞어짓는 콩·팥과 그루같이한 콩·팥도 간혹 수확을 하고 메밀은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4. 1886년(고종 23) 9월 4일(양력 10월 1일)

湖南啓錄 4책(30b~31a)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64a~64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雲峯, 八月二十八日夜, 珍山, 二十九日夜, 竝只霜降是如. 報來爲白乎所, 年形已判檢田伊始. 嗣後形止, 待列邑報概分等執熟, 追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운봉은 8월 28일 밤에, 진산은 29일 밤에 아울러 서리가 내렸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올해 농사 상황은 이미 판가름났고 밭조사는 시작하고 이후 경위는 여러 고을은 대략적인 풍흉 등급을 나누고 충수를 합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5. 1887년(고종 24) 3월 18일(양력 4월 11일)

湖南啓錄 4책(114a~114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637d~638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七日申時始雨, 或霏或灑, 十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仍爲開霽是白遣. 初八日之雨, 營下無所得, 而連接各邑所報, 則錦山·茂朱·高敞·金溝·光州·玉果·同福·咸平·寶城·長興·靈巖·康津·海南等十三邑, 得一鋤, 礪山·高山·益山·臨陂·萬頃·金堤·扶安·興德·泰仁·長城·靈光·昌平·樂安·順天·光陽·求禮·谷城·南原·任實·龍潭·鎮安等二十一邑, 浥塵. 農形段, 早稻畚, 間間初鰲耕, 兩麥, 漸次向青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7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8일의 비로 감영에 내린 것이 없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금산·무주·고창·금구·광주·옥과·동북·함평·보성·장흥·영암·강진·해남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고산·익산·임피·만경·김제·부안·홍덕·태인·장성·영광·창평·낙안·순천·광양·구례·곡성·남원·임실·용담·진안 등 2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논은 간간이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6. 1887년(고종 24) 3월 28일(양력 4월 21일)

湖南啓錄 4책(119b~120a) /各司謄錄 18책, 湖南啓錄 4책(640b~640c)

臣營下, 今月十八日辰時至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城·咸平·務安等三邑, 川渠漲滿, 高敞·羅州·南平·玉果·同福·康津·珍島等七邑, 得一犁, 茂朱·龍潭·興陽等三邑, 得二鋤, 高山·錦山·長水·茂長·靈巖·寶城·樂安等七邑, 得一鋤, 礪山·益山·龍安·咸悅·臨陂·沃溝·萬頃·金堤·扶安·興德·井邑·泰仁·金溝·任實·南原·谷城·求禮·淳昌·昌平·順天等二十邑, 浥塵. 農形段, 早稻, 次第初翻耕, 中晚稻畚, 間或初翻耕, 兩麥, 漸次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8일 진시까지의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비로 장성·함평·무안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창·나주·남평·옥과·동북·강진·진도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무주·용담·홍양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고산·금산·장수·무장·영암·보성·낙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익산·용안·함열·임피·옥구·만경·김제·부안·홍덕·정읍·태인·금구·임실·남원·곡성·구례·순창·창평·순천 등 2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중벼·늦벼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보리와 밀은 점차 싹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7. 1887년(고종 24) 4월 8일(양력 4월 30일)

湖南啓錄 4책(121a~121b) /各司臚錄 18책, 湖南啓錄 4책(641a~641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七日寅時始雨, 或霏或灑, 酉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仍爲開霽是白遣. 農形段, 付種畚, 方始耕播, 早稻畚, 間或再翻耕, 中晚稻畚, 次第初翻耕, 秧坂間間注種, 大麥胚胎, 小麥茁茂是如爲白乎所.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 云云.

전라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7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밭씨 뿌린 무논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 있고 올벼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중벼와 늦벼 논은 차례로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못자리는 간간이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리고 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싹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298. 1897년(건양 2) 4월 21일

各司謄錄 公文編案 64책, 全羅北道

四十五號 報告

本府 陰曆三月七日未時始雨 霏灑斷續 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六分이 濕고 連接各郡所報이온즉 全州 金堤 益山 等 三邑은 泥塵 濕고 金溝 任實 鎭安 高山 咸悅 金堤 礪山 長水 茂朱 臨陂 淳昌 錦山 等邑 川渠漲滿 益山 雲峰古阜 三邑은 得一鋤 濕고 扶安 萬頃 泰仁 等 三邑은 得一犁 濕왔기 報告함.

指令 到付.

觀察使 尹昌燮

제45호 보고

저의 감영에 음력 3월 7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전주·김제·익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금구·임실·진안·고산·함열·김제·여산·장수·무주·임피·순창·금산 등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익산·운봉·고부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부안·만경·태인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으므로 보고합니다.

지령이 도착하였습니다.

관찰사 윤창섭

0299. 1897년(건양 2) 5월 5일

各司謄錄 公文編案 64책, 全羅北道

四十七號 報告

本府 陰曆三月二十三日寅時始雨 霏灑斷續 ㄱ야 二十四日辰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이
요 仍爲開霽이오며 連接各郡所報이온즉 全州는 得二鋤고 臨陂 茂朱 求禮 三邑은 得一鋤
고 읍고 礪山 金堤 高山 金溝 益山 五邑은 溫塵고왔기 報告함.

指令 到付.

觀察使 尹昌燮

제47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음력 3월 23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
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전주는 2서가 내렸고, 임피·무주·구례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여산·김제·고산·금구·익산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므로 보고합니다.

지령이 도착하였습니다.

관찰사 윤창섭

0300. 1897년(건양 2) 6월 16일

各司臚錄 公文編案 64책, 全羅北道

五十六號 報告

府下 本月二日辰時量 始雨 霏灑斷續 五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이 옴고
同月十一日巳時量 又雨 十二日辰時至 水深爲七分이 옴고 仍爲陰翳 姑未開霽
오며 連接各郡所報則 五日之雨 全州 益山 任實 咸悅 高山 茂朱 金溝 萬頃 金堤 珍山 鎭安
錦山 古阜 龍安 泰仁 扶安 淳昌 沃溝 等 十八郡은 浥塵 求禮 臨陂 龍潭 礪山 等四郡
得一鋤 十二日之雨 全州 臨陂 金堤 金溝 等 四郡 浥塵 玆에 報告事.

指令 到付.

觀察使 尹昌燮

제56호 보고

관찰부에 이번 달 2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끊어졌
다 이어지면서 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같은 달 11일
사시쯤 또 비가 내려 12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고 이내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5일의 비로 전주·익산·
임실·함열·고산·무주·금구·만경·김제·진산·진안·금산·고부·용안·태인·부안·순창·옥구 등
18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구례·임피·용담·여산 등 4개 군은 1서가 내렸습니다.
12일의 비로 전주·임피·김제·금구 등 4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
다.

지령이 도착하였습니다.

관찰사 윤창섭

0301. 1897년(건양 2) 7월 8일

各司謄錄 公文編案 64책, 全羅北道

第六十九號 報告

道內各郡 霽祭設行緣由는 已爲馳報호왓건과 本府下 今月六日巳時 始雨호야 或灑或注에 八日辰時至 測雨器水深이 爲二寸八分이옵고 連接各郡所報이온즉 全州는 得一鋤호옵고 益山은 邑塵이다 報來호온바 現今初庚이 在卽에 既始之雨가 未洽而止호오니 言念民事호 오면 轉連湯悶이옵기 益加處禱홀 意로 指令호옵고 嗣後形止는 鱗次馳報計料事.

指令 到付.

觀察使 尹昌燮

제69호 보고

전라도 내 각 군은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본 관찰부에 이번 달 6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8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전주는 1서가 내렸고, 익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현재 초복이 닥쳤는데 이미 내리기 시작한 비가 흡족하지 않은데 그쳤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리어 매우 걱정이므로 더욱 경건하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인 일입니다.

지령이 도착하였습니다.

관찰사 윤창섭

0302. 1897년(건양 2) 7월 16일

各司謄錄 公文編案 64책, 全羅北道

七十號 報告

道內各郡 雩祭設行緣由 纔已馳報호왓건과 全州等二十郡外 沃溝 錦山 淳昌 等 三郡도 亦行 雩祭이다호 읍고 連接各郡雨報이온즉 六日之雨에 高山 萬頃 茂朱 礪山 南原 任實 錦山 沃溝 井邑 鎭安 臨陂 等 十一郡은 浥塵호 읍고 九日辰時又雨호야 水深이 爲九分이읍고 連接各郡所報이온즉 全州 咸悅 萬頃 金堤 求禮 珍山 等 六郡은 得一鋤호 읍고 古阜 高山 扶安 臨陂 等 四郡은 二鋤호 읍고 金溝 龍安 長水 雲峰四郡은 得一犁호 읍고 龍潭은 川渠漲滿호 읍고 十三日各郡之雨에 萬頃은 浥塵호 읍고 咸悅은 得一犁호 읍고 益山 臨陂 沃溝 等 三郡은 得一鋤이다 報來호 읍고 府下 十四日午時 又雨호야 十五日辰時至 測雨器水 深이 二寸六分 仍爲陰翳호야 姑未開霽이읍기 報告事.

指令 到付.

觀察使 尹昌燮

제70호 보고

전라도 내 각 군의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전주 등 20개 군 이외에 옥구·금산·순창 등 3개 군도 또한 기우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연이어 각 군에 내린 비 보고를 접수해보니, 6일의 비로 고산·만경·무주·여산·남원·임실·금산·옥구·정읍·진안·임피 등 11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9일 진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전주·함열·만경·김제·구례·진산 등 6개 군은 1서가 내렸고, 고부·고산·부안·임피 등 4개 군은 2서가 내렸고, 금구·용안·장수·운봉 4개 군은 1려가 내렸고, 용담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13일 각 군에 내린 비로 만경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함열은 1려가 내렸고, 익산·임피·옥구 등 3개 군은 1서가 내렸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관찰부에 14일 오시에 또 비가 내려 1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고 이내 짙은 구름이 끼어 아직 개지 않았으므로 보고하는 일입니다.

지령이 도착하였습니다.

관찰사 윤창섭

0303. 1897년(광무 1) 8월 31일

各司謄錄 公文編案 64책, 全羅北道

七十六號 報告

府下 本月十三日至 雨澤은 已爲馳報이올건과 十六日丑時에 始雨호야 或霏或灑호야 寅時至 測雨器水深이 爲六分이옵고 仍爲陰翳이다가 二十日又雨호야 卯時至 水深이 爲二寸一分이옵고 仍爲開霽이오매 連接各郡所報 則十三日之雨에 淳昌은 浥塵호옵고 金溝는 得二犁호옵고 金堤 古阜 益山 咸悅 礪山 鎭安 萬頃 臨陂 高山 龍安 等 十郡은 川渠漲滿호옵고 十六日之雨에 全州는 浥塵호옵고 二十日之雨에 全州 臨陂 南原 等三郡은 得二犁호옵고 金溝 龍潭 咸悅 礪山 任實古阜 求禮 雲峰 等 八郡은 江川이 漲滿호옵고 金堤 扶安은 得一鋤이다 이옵기 茲에 報告事.

指令 到付.

觀察使 尹昌燮

제76호 보고

관찰부에 이번 달 13일에 이른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6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이내 짙은 구름이 끼었다가 20일에 또 비가 내려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13일의 비로 순창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금구는 2려가 내렸고, 김제·고부·익산·함열·여산·진안·만경·임피·고산·용안 등 10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16일의 비로 전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0일의 비로 전주·임피·남원 등 3개 군은 2려가 내렸고, 금구·용담·함열·여산·임실·고부·구례·운봉 등 8개 군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가득 찼고, 김제·부안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지령이 도착하였습니다.

관찰사 윤창섭

| | |
|------|------------------------|
| 발행인 | 박수희 |
| 총괄 | 김은영 |
| 기획 | 김재영 |
| 책임번역 |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
| 공동번역 | 이상식·유성국·오연숙 |
| 출판편집 |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 감수 |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
| 제작 | 흐름 |

| | |
|--------|--|
| 발간등록번호 | 11-1360000-001874-01 |
| ISBN | 979-11-6988-373-3(93450) |
| 발행일 | 2024년 11월 17일 |
| 발행처 |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
| 자료협조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